



5

198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9. 5호

(루게 499)



◇◇◇◇◇◇◇◇◇◇

차 례

◇◇◇◇◇◇◇◇◇◇

대홍단벌	4
김일성 주석 동상을 우러러	5
하늘에 새긴 글발	7
정일봉	7
백두산과 정일봉 (외 1 편)	8
백두산고향집으로 가는 길	8
오늘도 병사이기에	9
정일봉 기슭의 봄밤에 (외 1 편)	10
봄이 약동하는 벌에서	10
비봉폭포앞에서	11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창조의 나날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 (5)	12
혁명의 한길로 달려나가리	14
혁명의 북소리 힘있게 울리게 하는 투쟁의 노래	14
투사들의 발자욱	16
노래불러다오	17
새 거리의 탄생을 두고	19
기양의 어머니에게	20
로동계급의 전형을 빛나게 형상한 감동깊은 화폭	21
서해갑문호수에 풍년달이 휘영청	27
걸음걸음 뜨거움에 젖어	28
집은 나에게 무엇인가	30

온 세상이 걷는 길	31
문학의 현대성과 현실주제의 작품창작	33
출격의 밤	36
평양의 마음 (외 1 편).....	37
춤추자, 5 대륙의 벗들아	37
세계의 량심이 달려오는 푸른 대지우에서	38
소조원의 걸음	39
일편단심 만수무강 바라옵니다.....	40
조국의 휴양소를 떠나면서.....	40
진리	41
종착역	48
농법따라 비가 온다	52
궤도.....	53
술새 우는 오솔길	60
그대 손길 있어	61
수고 많은 사람들	62
봄의 자국소리	64
사립문.....	65
영웅의 인간상	72
눈이 녹지 않는 땅우에서.....	73
나의 군복.....	75
생활속에서	75
어머니의 기쁨	76
물을 채우라 (외 2 편).....	77
내가 만난 영웅	77
금야강으로!.....	78
한장의 사진을 놓고	79

대홍단벌

김윤일

홍단수 물소리 숲속에서 울려오고
이깔, 분비나무 성새처럼 둘러선
대홍단벌
반세기전 그날의 총성을
오늘도 울려주는곳

바라보면
갑무경비도로 저 한끝에서 보여올듯
위대한 수령님 대오를 이끄시고
조국으로, 조국으로 나오시던
그 영상

살아 숨쉴곳없던 강토에
새 삶의 숨결처럼
재생의 총소리 높이 울리신 그날
총창높이 내닫던 투사들의 함성소리
귀 아니 기울여도 들려오는곳

고역에 시달리던 벌목부들
모지랑호미안고 숨져가던 화전농들
신음하는 겨레의 가슴가슴에
소생의 피 뜨겁게 흘러든 그날

오, 벌이여 너는
장엄한 승리의 총소리와 함께
삼천리에 펼쳐진 투쟁의 벌판
온 누리에 신념의 화불을 지펴준
투쟁의 전구로 펼쳐지지 않았던가

이 땅을 철쇄로 묶었다고
호언장담하던 제국주의머리우에
자주의 봄우뢰처럼
영원한 투쟁의 불을 지펴올리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

그이께선 이 벌에 남기셨어라
영원한 진리의 메아리를
이 땅의 주인은 우리 인민임을
정의의 총성으로 남기셨어라

아직도
그날의 기관총좌지는 마음에 뜨겁고
그날의 영광
꽃으로 피여 만발했는가
벌판 가득히 핀
진달래 철쭉꽃도
투사들의 뉘를 고이 간직했구나

아, 영원한 승리의 상징인양
붉은 별 찬연히 탑우에 새겨안고
대홍단벌이여
지구우에 남아있는 제국주의를
운명의 종점으로 휘몰아가는
반제반미투쟁의 거창한 흐름우에
너는 오늘도
투쟁의 전구로 펼쳐져있구나

김일성주석동상을 우러러

-길림 육문중학교에서-

(중국) 문창남

1

나는 길림사람이다
백두천지에서 흘러내린 송화강물 마시며
잔뼉을 굽히고
푸르른 갈피마다 스민 영웅의 이야기
뼈뼉에 새겨넣으며 자란
길림의 어린 시인이다

폭풍이 불든말든
동란이 일든말든
백두의 폭포처럼 울리고
송화강 물결처럼 흘러 끝없는
중조친선의 교향악 메아리속에
오늘은 내 읊으려다
피줄에 채웠던
시줄을 읊으려다...

사람들이여
여기는
천지의 푸른 거울 그대로 내려와
김일성 주석 그날의 그 모습 조용히 안아보는곳
거룩한 동상 한줄기 빛갈마져
부서질가 흩어질가 저어하며
티없이 흠없이 주름을 펴는곳

여기서는
중조친선의 뜨거운 봄바람에
강물은 얼줄을 모른다
솔잎은 단풍을 모른다
여기서는
부실부실 내리는 비마져 뜨겁다
송이송이 날리는 눈마져 꽃송이 같다

2

군복자락 날리며
조용히 망원경 들고계시는
김일성 주석이시여
망망한 장백의 높낮은 봉우리
지금도 한눈에 굽어보시는가
줄기줄기 굽이굽이
헤쳐온 혈전만리 서서히 돌아보시는가

저 망원경속엔
풀뿌리 캐먹으면서도 아껴둔
강냉이자루 메고 지고
눈보라 우는 밀영의 귀틀집 찾아헤매는
고마운 중국백성의 군상 어렸으리

저 망원경속엔
유격대 부상병이 추격받는 아슬한 순간
신뜻이 옷을 바꿔 입고
놈들의 시선을 끌고가다 흉탄에 쓰러지는
슬기로운 한족아바이 영상도 어렸으리

저 망원경속엔
굶주린 친자식을 끝내 잃어도
피바다속에 태어난 유격대의 피덩이
품에 받아 젖물려 키워준
자애로운 한족어머니 영상도 어렸으리

무심히 볼수 없구나
예가 바로 그이께서
조선의 별로 솟아...
칠칠암야를 비추던곳이던가
예가 바로 그이께서
항일의 해불높이
중국인민과 어깨결고
천만리 혈로를 시작한곳이런가

저 백두의 천지물이
침침계곡을 지나
류류장강 흘러오긴 쉬워도
혁명의 성지
백두천지로 다시 오르기에는
천산만악
폭풍취우
피바다가 가로놓였었다...

3

외투자락에 스민 저 바람결-
백두설령에 몰아치던 눈바람 아닌가
망원경으로 바라보시던 천리혜안-
삼천리 강산에 서광을 뿌리던
희망의 새별 아닌가
저 릉름하고 드넓은 가슴은

깃뵈혀 신음하던
백의동포의 눈길이
중국인민의 손길이
산넘어 강건너 찾고찾던
희망의 품 아닌가

행주산성에
왜놈의 장도칼 번쩍이고
만리장성에
왜놈의 말발굽소리 어지럽던
수난의 세월
피나리보짐우에
망국노의 설음을 이고지고
아리랑고개 넘어
산해관 넘어
같은 처지의 형제들이
피눈물의 발자욱 옮기던 세월

-내 조국 찾기전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한많은 압록강 포평나루터에 울린 메아리
여기 길림의 한갈피 물결
한그루 소나무 년륜에도
서리서리 어리였거니

그이께서 여기서 키우신 큰뜻은
끝내 조선의 주체사상탑으로 일어서고
그이께서 족쇄차고 길림감방에 들어서던 그
발걸음
끝내 조선의 개선문으로 이어졌노라

그이께서 만경대의 봄을 생각하시며
흐뭇이 바라보시던 들국화
여기 룡담산에서 피고
그이께서 조선의 새 아침을 그리시며
오르내리던 컴컴한 약왕묘 지하실
여기 길림복산에 있노라

봄이면 봄마다 붉게 피는 진달래숲엔
장군님 전사들의 숨결 어려있고
장엄한 천안문 상공에
숙연히 나뭇기는 중화인민공화국기발엔
장군님 전사들의 붉은 피도 스며있노라

4

길림의 강산에
거룩한 영상 남기시고
장군님 헤쳐가신 길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축지법을 쓴다는 전설은 황홀해도
그 길은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던
고난의 혈로였거니

인민은
달비베여 장군님 신에 깔아주고
눈비에 젖은 장군님 군복
한가슴에 품어 말리워주었더라
저 군화의 목깃에선
지금도 싱그러운 장백의 풀냄새 풍기는듯...

헤쳐가신 길
그것은 언제나 최전선-
작전지도를 접을수 없는
동방아시아의 최전선이였거니
세계의 《최강》을 자랑하며 기여든
원쑤 미제도
삼천리강산에서
처음으로 코대를 꺾이우고
치를 떨었다, 곤두박질하였다

꽃피는 락원
강철의 요새에서
오늘도 망원경 들고계실 **김일성** 장군님
그 누가 만약
다시 한번 불질한다면
우리 중국인민은
또다시 서슴없이 달려가리라
또다시 한전호속에서 어깨걸고
피로써 매 한치땅 지켜가리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중국인민의 친밀한 벗
김일성 주석이시여
장군님은 오늘도 함박눈 맞으시며
어느 해안진지 돌아보시리...
언제야 한번 편안히 쉬시며
언제야 한번 폭 시름을 놓으시고
우리 길림에 들려보시랴...

오늘도 우리는
해따라 동산 별따라 동산
물따라 동해를
우러러보노라
아, 언제 다시 오시랴
길이길이 모시고픈 장군님...

하늘에 새긴 글발

백 하

백두밀영
푸른 수림 우에
빛을 뿜으며 열을 뿜으며
붉게 비낀 불멸의 글발
아, 정일봉!

행복넘친 이 작은 가슴에
삼가 모시던 빛나는 존함
조국의 하늘에 영원히 새겨졌구나

감격에 젖어
환희에 젖어
성스러운 기슭에 무릎을 꿇고
정가로운 흰눈에 뺨을 비비노라

기쁨에 겨워
우러르고 또 우러르는
정일봉
걸출한 위인의 예지
불멸의 업적 하늘에 닿아
시대의 절정으로 높이 솟았어라

정일봉! 정일봉!
내 더 가까이
가까이 우러르고싶어
아슬한 절벽아래 다가가 고개를 드니

하늘에 짙 찬 불멸의 글발
시작은 어데고 그 끝은 어데냐

인민의 운명도 백두의 위엄도
모두 말기고 따르는 품
받들어 영광넘친 그이의 위대한 존함이
조선의 하늘로 없었구나

친애하는 그이의 존함은
우리의 하늘
내 그 어디 가서 머리들어도
저 위대한 글발이 보이리
저 빛나는 하늘이 비껴있으리

나는 민노라
저 빛나는 하늘아래
조국의 전성기는 무궁토록 펼쳐지리
저 무한대의 하늘아래
자주의 꽃은 만발하리

정일봉의 기상을
한가슴에 안아보며
내 희열에 벅차 소리높이 웨치노라
오, 세기를 밝히는 저 위대한 존함은
우리의 온 우주여라

정일봉

박세옥

아아한 층암절벽이
하늘을 뚫고 솟았느냐
하늘에서 시작되어
이 땅우에 뿌리내렸느냐
눈을 들어 바라보면
이마우에 아득히 놓이는 봉우리

소백산, 간백산, 포태산
여기 하늘아래 펼쳐진 천만산악이
흐르는 구름속에 묻히어도
이 세상의 머리인듯

구름우에 우뚝 솟은 봉우리
조용한 심장으로는 마주볼수 없구나
붉은 피가 가슴에 뛰지 않고선
더더욱 볼수 없구나
이 나라 기상 of 절정
아, 정일봉 백두의 정일봉

고요히 내리던 흰눈우에
그날에 울리던 자장가소리
저 어느 숲에 깃들었느냐
붉은 기발의 펄럭임소리를 들으며

그날에 오르던 그 발자욱
저 어느 이끼오른 바위우에 새겨졌느냐

백두산야에 흐르던
질은 포연속에 간직하신 높은 뜻
저 마루에 머물러있고
조국산천을 굽어보며 키우신 그날의 의지
천만년 바위로 여기에 뿌리내렸거니
해와 달이 여기서 빛뿌리고
별들이 여기서 돌아올라라

아 여기서 한줄기 바람을 잡아
허공중에 쥐여뿌리면
눈덮인 천리수해가 격랑을 일으킬듯
저 자락의 한끝을 들었다 놓아도

잠자는 태고의 절벽들이
우뢰처럼 메아리칠듯

여기에 섰던
불타는 심장은 꺼질줄 모르리
여기서 다진 맹세
세월이 가도 변함없으리
여기서 시작한 걸음은 멈출줄 모르리
그런 인민은 굴복시키지 못하리

위대한 혁명의 참다운 뜻
혁명가들의 선서의 영원함
그 고귀한 진리를
한순간에 깨우쳐주는
아아, 혁명의 메부리 정일봉이여!

백두산과 정일봉 외 1 편

리남룡

하늘이 뿌린
흰눈 머리에 이고
조종의 산이라
대대로 불러온
백두산

력사가 흘러
장군별 솟아
혁명의 성산으로
그 이름 빛났고

력사가 수억년
다듬고다듬어

오늘은 누리에 빛나는
정일봉 솟아
창공만리에 달는
백두의 키

천하 제일봉
정일봉 솟아
백두산은 세계 그 어디서나
다 바라보이는
사상의 산
혁명의 산으로
빛나고있어라

백두산고향집으로 가는 길

백두의 고향집 프락으로
걸음걸음
나를 불러세워주는
한줄기의 오솔길

아, 이 길이 아니런가
사선을 헤치고헤치며
항일의 혁명전사들이
위훈을 안고
충성을 안고

우러러 웃기 여미며
들어서던 그 길이
이 한줄기의 오솔길따라
오늘은 축원의 마음안고
내가 걷고
온 나라가 걸나니

떠나온 우리 집
도시의 흥성거리는 대통로도
바로 이 길에
이어진것이 아닌가

내 앞에서 뒤에서

승엄한 생각속에 걸음 옮기는
저 농장원의 그 들길도
저 광부의 막장길도
이 길에 이어졌구나!

내 조국땅우에
온 지구우에
뻗은 수천수만갈래
그 모든 길들을
충성의 한뼘으로
피줄처럼 뜨겁게 이어주는 길
아, 백두산고향집 트랙에서
시작된 길이어!

오늘도 병사이기에

최익주

흰서리 내린
그 머리를 감추자고
폭 눌러썼는가
하늘빛 안전모

발과공아바이
화약배낭 지고 오르다
사갱 중턱에서 잠시 숨돌리는데
지나가던 갱장이 오금을 꺾으며
그옆에 앉는다

담배 한대 권하며
《아바이 올해 몇이오?》
그 담배 받아물며
《그건 왜 묻나
...물라서 묻나?》

담배불 붙여주며
갱장이 하는 말
훈장도 많겠다
예순도 지났는데
200 일전투나 끝나면
공로보장 받으며 편히 쉬라고...

《여보게 갱장
난 1211 고지 옛 병사야
당에서 200 일전투를
2 천일, 2 만일로 여기고 하겠는데

200 일전투는 끝나도
전투야 끝나겠나...》

빠금빠금 연거퍼
들이빨던 담배불
절반도 못타는데 비벼끄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아바이의 말
《여기도 1211 고지가 아닌가!》

벌떡 일어나
씨엥씨엥 걸어가네
공연히 잠간 앉아 쉬다가
화약배낭 아주 빼앗길번했다고
후회하며 자책하며
막장으로 막장으로

그의 등뒤로
빙그래 웃음을 보내주고
갈길을 재촉하던 갱장은 들었는데
이윽고 들려오는 발파소리를

아, 전투속에 불타는 삶은
정녕 늙음을 모르는것인가
오늘도 그는 병사이기에
200 일전투의 불길속에서
천길 지하전선에
1211 고지를 세우고있네

정일봉 기슭의 봄밤에 외 1 편

리덕진

정일봉우에 달이 밝아
더더욱 유정한 백두밀영의 봄밤
김정숙어머님 자장가를 부르시네
간절한 마음처럼 은은한 노래가락
아드님의 요람가에 고요히 흐르네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소백수의 물소리
어머님의 노래를 실어 그리도 맑은가
밤하늘에 가득한 백두의 별무리
어머님의 소원을 안아 저리도 반짝이는가

어서 커서 백두의 기상을 펼치시며
장군님 위업을 받들어가라고
어머님 가슴속에 타는 그 소원
정겨운 사랑으로 자장가에 담으셨네

그 사랑속에 꿈나래를 한껏 펴시고
그 사랑속에 천리혜안의 예지를 키우시며
친애하는 그이께서 이제 자라시면
아버이장군님 헤쳐가시는 그 길우에
혁명의 큰걸음 내짚으시려니

아, 봄빛같이 넘치시는
어머님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시며

어리신 아드님 영채어린 눈가엔
티없이 밝은 웃음이 피어났네
백두의 정기인양
조선의 아침인양

어머님의 하늘같은 사랑의 품에 안기시여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봄밤에 피우신 첫 웃음이며
밀영의 꽃들도 다투어 망울터치고
천리수해도 다함없는 축복속에 설레이고

어머님 피워주신 그 첫 웃음속에
장군님의 위업이 이 땅에 영원할
조선의 천년앞날이 열리고
인민의 만년행복이 약속되었거니

고요히 올려가는 자장가소리에
소백수의 맑은 물도 가락을 맞추고
정일봉우의 별무리도 들창가에 내리고
온 조국강산이 끝없는 환희에 넘쳤데

아아, 력사의 그 봄밤
어머님 피워주신 그 첫 웃음속에
찬란한 혁명의 미래가 빛나고있었네

봄이 약동하는 벌에서

숫구치는 환희의 분출인가
발머리 버들방천에 굴포를 파는
저 청년분조원들의 웃음소리
맑은 하늘가에 은방울을 굴리고

벌써 머리우엔 칠색무지개
분수식 물보라속에 곱게 비끼듯
발이랑에 콩크리트 판을 묻는

지원나온 청년들의 노래소리
풍요한 벌 한끝에 닿았구나

푸른 관개수 출렁이며 흘러드는
저 드넓은 벌뿐이라
여기 산기슭 발이랑우에도
영영 가물을 모를 풍년계절이 설레이리니

이 밭이랑에 분수비가 내리면
소출은 갑절로 넘치리라
이삭들이 흐늘어진 그날을 그려보듯
저저마다 주고받는 이야기로 즐거운데

분조원들모두가
이 봄에 농산기수 자격증을 받았으니
올가을엔 농장대학에 입학한다고
기쁨에 겨운듯 속삭이는
저 처녀분조장의 목소리
또 얼마나 노래처럼 정다운가

저 멀리 화답하듯
콩크리트관을 싣고 산굽이를 돌아오는
트랙터의 발동소리도
쏟아지는 햇빛속에 웃고있는
새로 선 양수장에 새로 단 창문도

류다른 생각을 불러대는 계절이로구나

아, 어버이수령님 밝혀주신
농촌테제의 빛밭아래
별도 변하고 사람도 변했거니
이제 저 벌 한 끝까지
종합적 기계화의 노래가 실리고
이랑이랑우에도
관개의 젓줄기 굽이쳐오면
이 땅은 얼마나 풍요한 나락에 덮일것이나

아, 축복받은 땅
축복받은 사람들이
삶의 희열에 넘쳐
꿈많은 래일을 마중가는 봄이로구나
농촌테제완성의 그날을 향해가는 봄이로구나

비봉폭포앞에서

조창제

폭포수에 흔들리는 계곡의 큰바위마냥
가슴은 자꾸만 울렁이고
물안개타이던가
눈가엔 이슬이 맺히거니

예 어디더냐 40여년전 그날
김정숙어머님 서 계시던곳은
어디더냐 장군님의 식사를 지어야 한대시며
그렇게 웃으며 돌아서신곳은

금강문 지나 구룡연으로 가는 길
단풍도 예서부터 더 붉게 타는데
바위들도 예서부터 묘한 제 모습 드러내는데
어이하여 아쉬움보다 귀한 웃음 남기셨던가

하늘가에 솟아 손저어 부르는
만이천 봉우리여 너 말해보라
수수만년 세월의 이끼를 고이 없은
너 력사여 말해보라
쉬이는 울수 없는 금강의 탐승길
예서 돌아선이 네 본적 있던가

아 손으로 마음으로
폭포수에 패워진 흰 바위를 쓸어보며

내 눈시울 젖노라
어머님은 그날 여기 천연암반에
충성이란 글발을 남기고 내리신것 아닌가

비봉폭포여, 너는
원췌의 총구앞에서나
극치이룬 산천의 절경앞에서나
전사의 그 자세 변함 없으신
그 사연 전하며 오늘도 폭포치누나

그래서였던가
우리 수령님
폭포중에 비봉폭포 제일 사랑하시는것은
그래서였던가
비봉폭포 그 그림앞에 서계시는 수령님 모습
우리 신문에서 자주 보게 되는것은

폭포치라, 폭포쳐 강산을 울리라!
불멸의 비봉폭포여
어머님을 우러르며
가슴젖는 이 마음속엔
또하나
감격의 폭포수가 쏟아져내린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창조의 나날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

(제 5 회)

세심한 지도의 손길

노래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가사는 골격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창조과정을 지도하시면서 무엇보다 먼저 노래의 사상정서적 기초로 되는 가사창작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어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나오는 노래들을 모두 명가사, 명곡으로 완성하여주시었다.

달밤장면과 명가사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보는 관객들의 가슴마다에 오래동안 지워지지 않고 인상깊이 남아 있는 장면의 하나가 제 3장 2경 달밤장면이다.

어머니의 약을 구하기 위하여 꽃을 팔러 나갔다가 억울하게 도적의 루명을 쓰고 매까지 맞은 꽃분이가 지주놈에게 강제로 팔려가는 몸이 되었다는 기막힌 사연을 안고 하늘중천에 높이 뜬 달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 맥없이 돌아오는 대목이다. 그런것만큼 이 대목은 가극에서 인정신을 타고 심각한 극적 정황을 조성할수 있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처음에 창작가들은 달밤장면을 설정하는 하였으나 심각한 극적 갈등속에서 형상화하지 못하고 주인공이 비감에 잠겨 애달파하는 처량한 달밤의 정경묘사에만 치우쳤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창조현장을 찾으시어 무대연습을 보아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달밤장면에 이르러 문득 연습을 멈춰세우시었다.

그이께서는 은은히 흐르는 달밤장면에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대뜸 포착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달밤장면이야말로 커다란 사회적 문제성을 도출해낼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자면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를 철학성있게 잘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심오한 뜻을 깨닫는 순간 창작가들은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창작가들은 이 달밤장면을 통하여 꽃분이의 기

구한 운명을 보여주어 관중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애뜻한 동정을 불러일으킬 생각은 하면서도 심오한 계급적 갈등을 보여주는 마당으로 전환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것이다.

노래가 불멸의 생명력을 가지려면 먼저 가사가 가극의 주제사상적 과제와 주인공의 성격, 극적 정황의 특성에 맞는 명가사로 되어야 한다.

그날부터 창작가들은 집체적 지혜를 모아 달밤장면형상을 부각하면서 가사창작에 정열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를 좀처럼 살려낼수 없었다. 창작가들은 안타까운 나날을 보냈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다시 극장에 찾아오시어 창작적 환상을 펼쳐주시며 달밤장면은 한갓 자연의 정서를 보여주는데 형상의 초점을 둘것이 아니라 달은 세상만물을 공정하게 비쳐주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제나름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슬퍼한다, 하늘에 달은 하나이지만 모순된 사회에서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처지에 따라 그 느낌과 뜻이 다르다는 심오한 형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창작가들은 가슴속에 솟구치는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의 구절구절이 정화된 하나의 명가사였기때문이었다.

창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그대로 가사에 옮기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약봉지를 안고 끝없는 슬픔에 잠겨 돌아오는 꽃분이의 의미심장한 노래, 극적 계기를 밝혀주는 노래가사가 먼저 창작되었다.

꽃잎우에 반짝이는 밝은 이슬은
방울방울 고여나는 내 눈물인가
밝은 달은 하늘높이 솟아있건만
이 세상은 캄캄하여 갈길 없구나

한참고 눈물많은 캄캄한 세상에서 의지가 지할

데 없는 너무도 외롭고 불쌍한 꽃분이의 신세,
지주와 거간군의 흉계에 영영 팔려가는 몸이 될
기막힌 운명을 놓고 가슴치며 통곡하고싶은 이밤,
그 네를 뛰며 깔깔거리는 부자집처녀들의 웃음
소리를 뒤에 남기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꽃분이,
그의 설움에 찬 노래를 받아부르는 녀성소방창가
사가 태어나게 되었다.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
땅우에서 보는 사람 서로 달라라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서러워한다

무대우에는 하나의 달빛아래 모순된 사회에서
의 두 극단의 생활이 펼쳐지었다.

이밤이 새면 팔려가야 할 기막힌 처지에서 마
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대접할 약을 구해가지고 집
으로 돌아오는 꽃분이와 희희낙락 환락의 밤을
즐기는 부자집처녀들의 생활은 강한 대조를 이루
면서 당대사회의 심각한 계급적 모순을 까밝히었
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계서는 하나의 달을 두고
도 그아래 펼쳐지는 인간사회와 인간심리의 두
극을 찾아주시고 바로 이 달밤장면에 깊은 철학
을 심어주시었다.

1972년 11월 25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계서는
창조현장에 오시어 가극형상을 지도하시다가 달
밤장면에 아직도 남아있던 미흡한 점을 발견하시
고 그를 극복할 새로운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꽃분이가 약을 사가지고 오는 장면은 밝게
하였는데 어둡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 그 장면
에 나오는 음악을 고치고 꽃분이의 노래를 한절
더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이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창작가들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녀성소방창으
로 달밤장면이 결속된다면 한하늘아래 펼쳐진 계
급사회의 모순을 고소하는데 그치고 주인공의 내
면세계를 폭넓게 개방하지 못하며 따라서 극적
여운도 없게 될것이었다.

창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명철한 가
르치심에 또다시 탄복하며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의 3절을 새로 창작하였다. 그러나
달밤 장면의 노래형상은 여기서 완성된것이 아니
였다.

그후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계서는 혁명
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달밤장면을 보시고 또
다시 강력적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먼저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심리적
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장면의 요구에 맞게

음악을 써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한동안 말씀을 멈추시고 달밤장면에 나오는 노
래가사들을 주의깊게 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
지계서는 가사에서 나타난 또하나의 부족점을 찾
아내시어 창작가들에게 알려주시었다.

《달밤장면의 방창가사가 철학적깊이도 있고
좋은데 관중에게 가사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방창가사에서 〈도망치련만〉을 〈없어지련만〉으
로 고치는것이 좋겠습니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몇달동안 노래가사를 보
아오면서도 발견하지 못한 부족점이였다.

사실 계급사회에서 주인공이 착취자들을 항거
하여 싸우다 한몸이 그대로 시체가 되어 없어지
면 없어질지언정 저지른 죄도 없이 깨끗한 량심
을 가지고 무엇때문에 도망친단 말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계서 제때에 부족점을 발
견하시고 정확히 바로잡아주시지 않았다면 불후
의 고전적 명작을 각색하는 가극작품에 또하나의
오점을 남길변한 창작가들이였다.

그들은 저지른 창작적 파오를 다시금 깊이 뉘
우치면서 꽃분이의 노래와 녀성방창가사 《하늘중
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의 3절을 완성하여 무
대에 올리게 되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기울지 말아
네가 지면 이내 몸은 어이 될거나
나 혼자면 이몸 던져 죽기도 하고
머나멀리 어디론가 없어지련만

앓고계신 어머니는 어떻게 되며
불쌍한 눈먼 동생 어떻게 되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
자동지계서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검열공연
을 보시고 이 노래가 명가사로 완성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이제는 가사를 고착시킬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달맞이장면에서 꽃분이가 부르는 노래 〈하늘
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은 가사를 고치지
말고 그대로 놔두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끝없는 사색과
빛나는 예지속에 달밤장면은 기쁨진 장면으로,
노래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의 가사
는 명가사로 완성되였다.

그리하여 달밤장면은 단순한 서정적인 장면으
로부터 계급사회의 기본모순을 예리하게 해부하
여 만천하에 고발하며 가극의 종자를 명백히 밝
혀주는 뜻깊은 장면으로 되였다.

혁명의 한길로 달려나가리

피눈물 그 얼마나 흘리었더냐
천대받는 인민들아 일어나거라
우리를 구원할진 우리의 힘뿐
혁명군 따라서 모두 나서라

아 모두 나서자
혁명군 따라서 모두 나서자

최악의 이 세상 뒤집어엎고
인민의 새 세상 마련해가자
삼천리 내 조국에 꽃을 피우려
혁명의 한길로 달려나가자

아 달려나가자
혁명의 한길로 달려나가자

명가사평(제 5 회)

혁명의 북소리 힘있게 울리게 하는 투쟁의 노래

-가사 《혁명의 한길로 달려나가리》에 대하여-

허수산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피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를 감상하면서 우리는 그 마지막장면에서 한없이 통쾌하고 장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작품의 마감을 우뢰소리처럼 크게 울려주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혁명가극의 마감대목에서 높이 울리는 혁명의 노래 《혁명의 한길로 달려나가리》와 크게 관련된다.

꽃분이일가에 불행과 고통을 들썩우던 배지주와 그와 결탁한놈들의 정수리를 내리치고 드디어 쌍이고쌍였던 원한을 푸는 가장 통쾌한 대목에서 철용이가 나타나 원수들을 죽치고 마을사람들을 투쟁으로 부르는 이 노래!

참으로 노래는 혁명가극의 마감을 크게 울려준다.

이 노래는 혁명가극의 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노래중의 하나이다.

이 노래는 전투적이고 호소성이 높은 서정으로 혁명가극의 다른 노래들과 구별된다.

이 노래가 명곡으로 되는것은 그 가사가 명가사로 되었기때문이다.

명가사가 없이는 명곡이 태어날수 없다. 우리는 명곡을 말하기전에 명가사를 말해야 할것이다.

이 가사는 우리 당이 밝혀준 명가사 풍격을 그대로 갖추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내용이 풍부하고 뜻이 깊으면서도 간결하고 세련된 가사에서 명곡이 나온다.》

명가사에서 중요한 문제는 새롭고도 심오한 사상을 밝히는것이다.

모든 문학작품에서 사상적 내용이 기본이듯이 작은 형식의 가사에서조차 기본은 그 높은 사상성에 있다.

가사 《혁명의 한길로 달려나가리》는 매우 뜻이 깊고 새로운 사상을 제기하고있다.

가사에서는 오로지 숙명처럼 차려진 압박과 구속을 벗어나 인간의 본성인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자기 힘을 믿고 혁명투쟁에 일떠서야 한다는 사상을 제기하고있다.

이 사상은 당시 꽃분이일가나 마을사람들, 아니 전체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사회적 문제였다.

꽃분이일가의 소박한 소원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던가.

머슴살이를 끝낼 오빠를 모시고 이제는 자기의 근면한 노력으로 보람있게 살아보리라던 그 꿈, 그러나 그 꿈을 무참히 짓밟고 꺾어버린것은 누구였던가. 그것은 배지주를 비롯한 착취계급들이었다.

매일 우박처럼 쏟아지는 착취와 압박의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꽃분이일가는 얼마나 몸부림쳤던가.

모질게도 몸부림치던 꽃분이일가. 그들은 청원도 해보고, 대를 이어 뼈빠지게 머슴살이도 해보고, 꽃도, 노래도 팔아보고, 하건만 그들의 운명에 해빛들 날이 없었다.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피눈물나는 생활체험을 통하여 오로지 자기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은 자기 힘을 믿고 투쟁의 길에 나서는것임을 깨달은 그들! 드디어 그들

은 투쟁의 길, 혁명의 길에 나선다.

혁명가극의 가사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가장 절박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에 기초하여 제기하였다.

가사의 이러한 사상은 혁명가극의 종자로부터 흘러나온다.

혁명가극 《꽃과는 처녀》의 종자는 설음과 효성의 꽃바구니가 투쟁과 혁명의 꽃바구니로 된다는 것이다.

설음과 효성의 꽃바구니, 그것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수 있었던가. 그것이 저절로 혁명과 투쟁의 꽃바구니로 변화될수 있었던가, 아니다.

가사는 오로지 자기를 구원할것은 자기 힘뿐이라는것을 믿고 항거의 길, 투쟁의 길에 들어설때만이 설음과 효성의 꽃바구니가 투쟁과 혁명의 꽃바구니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피눈물 그 얼마나 흘리었더나
천대받는 인민들아 일어나거라
우리를 구원할건 우리의 힘뿐
혁명군 따라서 모두 나서라

아 모두 나서자
혁명군 따라서 모두 나서자

가사에서는 설명이 없이 축적된 감정에 기초하여 첫시행에서부터 수사학적 질문의 수법으로 가사의 사상을 강하게 제기하고있다.

가사는 지난날의 피눈물나는 처지를 《피눈물 그 얼마나 흘리었더나》라는 물음문으로 제기함으로써 많은것을 생략함축하고있다.

가사는 주저없이 2행에서부터 목적하는바를 독자들에게 호소한다. 천대받는 인민들은 더는 지체 말고 일어나라고 호소한다. 그러면서 3행과 4행에서 가사가 제기하려는 기본사상을 명백하게 제기한다.

우리를 구원할건 우리의 힘뿐,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에는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던가. 이 진리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피눈물나는 생활을 겪어야 했던가. 이 진리에 도달한 인간은 인간의 존엄과 본성을 찾는 길에 나설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민족은 영영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꽃분이일가와 마을사람들은 뼈에 사무친 생활 체험을 통하여 드디어 이 진리를 깨달은것이다.

가사는 이러한 사상을 제시하면서 계속하여 혁명군을 따라 모두 나서자고 힘있게 호소하고있다.

혁명군을 따라나선다는것은 곧 철용이를 따라 나선다는것을 의미한다.

가사에서는 **군중들에게** 막연한 투쟁의 구호를 제시하지 않았다. 바로 눈앞에 혁명군복을 입고 있는 철용이의 구체적인 표상을 통해 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혁명투쟁에 나선다는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있다.

가사의 후렴에서는 다시한번 격조높이 혁명군 따라 모두 나서라는 호소적인 감정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가사의 2절에서는 1절의 사상을 더욱 발전승화시키고있다. 다름아닌 1절에서 제기한 혁명투쟁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즉 혁명군을 따라나선다는것은 최악의 이 세상을 뒤집어엎고 인민의 새 세상을 마련하는것이라는 사상을 제시하고있다.

최악의 이 세상 뒤집어엎고
인민의 새 세상 마련해가자
삼천리 내 조국에 꽃을 피우려
혁명의 한길로 달려나가자

아 달려나가자
혁명의 한길로 달려나가자

가사 2절에서는 혁명투쟁의 목적뿐만아니라 우리 인민의 리상까지 랑만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즉 3 천리 내 조국 금수강산에 행복의 꽃을 피우자고 호소하고있다.

가사에서는 눈물과 설음의 세상을 끝장내고 모든 인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행복과 기쁨의 꽃을 피우자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을 표현하고있다.

실로 가사에는 혁명군을 따라서 나가자는것으로부터 혁명의 한길로 모두 두렵없이 달려나가자는 전인민적인 호소가 뜨겁게 담겨져있다.

가사는 이와 같이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착취와 압박받는 인민이 자유와 해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힘을 믿고 투쟁에 일떠서야 한다는 사상을 제기하고있다.

가사 《혁명의 한길로 달려나가리》는 시적 형식에 있어서도 명가사의 풍격을 갖추고있다.

가사는 의의있는 사상적 내용을 세련된 시형식 속에 담고있다.

가사는 그 시어가 매우 통속적이다. 가사에서는 늘 쓰는 생활언어로 가사의 시문장을 쉽게 짜고있다. 그러므로 가사의 형상이 간명하고 보여 주려는 사상이 명백히 표현되고있다. 이 가사에 한자어나 정치적 표현들이 직선적으로 쓰인곳은 없다. 이렇게 되므로 가사는 한번 들어도 기억되게 간결하게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가사는 형상적인 표현들로 시의 형상을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꽃피우고있다. 가사 2절에 나오는 《삼천리 내 조국에 꽃을 피우려》라는 표현은 얼마나 생동한가.

혁명가극 《꽃과는 처녀》는 결국 꽃에 대한 이

야기, 꽃파는 처녀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꽃》은 형상의 씨앗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런데 가사 2절에서 《꽃을 피우려》라는 표현을 쓰므로 가사의 형상이 얼마나 잘되고 또한 그 뜻

얼마나 깊어졌는가.

가사의 매 시련은 까다롭지 않고 순탄하게 흐르고있다.

그리고 가사는 수사학적 질문과 대답, 호소, 부름법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전투적 서정에 맞는 운율을 살리고있다. 그러므로 이 가사가 강한 음

악성을 떨수 있게 하였다.

가사는 곡의 사상예술적 기초이다. 가사의 시문장이 음악적으로 잘 흐르도록 짜져야 가사에 곡을 붙이기 쉬운것이다. 그리고 가사는 점차 의미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시적 구조를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서정흐름이 고조상승하게 하고있다.

가사는 참으로 통속적으로 간결하게 형상되었으므로 명가사로서의 시적 풍격을 갖추었다. 가사는 대를 두고 혁명의 노래로 힘있게 불리워질 것이다.

투사들의 발자욱

리명근

백두의 옛 싸움터를 걸으며

아직도 투사들의 발자욱

생생히 찍혀있는것만 같아

무릎꿇고 락엽을 헤치니

아, 시커먼 숲

타다남은 숲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지피누나

한걸음 또 한걸음

삼가 걸음 옮기는 마음속에

그날의 기관총소리

나를 부르는듯한 투사들의 목소리

그날의 발걸음소리도 들릴듯

승엄히 다가서노라

항일전어로 힘있게 부르던 그날처럼

세월의 눈비에도 지워지지 않고

오늘도 남아있는 불멸의 구호폭앞에,

그앞에서 지금도

붓을 든 투사의 불타는 눈길이

나를 지켜보는것만 같구나

오 백두산

백두산으로 오르며

눈에 뜨거운 그 모든 자취

작식대원이 즐겨 오갔을 샘물터며

규모있게 옛모습을 안겨주는 천막자리...

그 모든것이

내 삶의 발걸음을 이끄는

불멸의 자욱이 아닌가

내 가슴속에 깊이도 새겨지는

그 자욱에 받들리어

승엄히 백두의 정점으로 오르는 이 마음

아, 백두의 절정우에 오르니

확 트이는 눈앞에

뚜렷이 바라보이는 내 삶의 길

공산주의 새 세계로 향해진

투사들의 발자욱우에

내 걸어갈 래일의 길도 뻗어있구나

받들어주며 따라서라고

이끌어주며 어서 가자고

한생의 리정표와도 같이

내 발걸음을 떼여주고있구나

백두산에 영원할

투사들의 그 발자욱이

내 한생 가고갈 그 길을 이어주고있구나

노래불러다오

권창일

나는 일요일 저녁에 한 시인의 집에 찾아갔었다. 특별한 용건은 없었지만 웬일인지 만나고싶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다.

권하는 의자에 앉으며 책상을 넘겨보니 쓰고째고 한 흔적들이 력력한 원고지들이 한벌 널렸다. 울적마다 보게 되는 광경이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그 원고지들을 주섬주섬 거두어놓고 사람좋은 웃음을 웃으며 나앉았을 시인이 이날따라 내앞에 원고지부터 밀어놓으며 한번 읽어봐달라는 것이었다. 사색어린 낮빛을 풀지 않은채 ...

례외적인 일이었다. 워낙 나는 그에게서 시의 《문외한》이라는 호를 받아놓았었다. 그래서인지 좀처럼 나하고는 시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따라 시인은 굳이 내손에 원고지를 들려주며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김정일 화에 대한 시를 쓰는데 가슴속에 걱정은 이글거리지만 좀처럼 붓으로 옮길수가 없다면서...

나는 원고지를 펼쳤다.

백두의 붉은 노을 그 타는 빛같이

김정일 화 꽃잎에 물들었느냐

백두의 푸른 숲 그 청신한 기상이

김정일 화 잎새마다 옮겨졌느냐

시의 첫구절부터가 가슴을 울렸다. 마감까지 읽고난 나는 정말 아무 보탬도 없이 좋구만, 훌륭해 하고 말했다.

예술가란 그 누구건 자기 작품에 대한 찬사를 바라는 법이다. 그것은 자기가 끝없는 진정을 기울인 그만큼 사람들도 진정으로 자기 작품을 대해주길 바라기때문이라 할가.

그러나 시인은 제먼저 굳이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무엇인가 새로운것, 인민이 말하고싶어하는것이 담겨져있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독자인 나는 잘 됐다거니 필자인 시인은 그렇지 않다거니.

이렇게 한창 욕심각신했다. 본인이 와짜 안됐다고 주장하는바람에 내가 좀 증증해지자 그는 창가의 한점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드는 것이

였다.

나도 부지중 생각에 잠겼다. 난생처음 시인이 되어본 그밤이라 할가. 다시금 원고지를 번져가던 나는 다름아닌 이 일때문에 내가 시인에게 오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따라 시인의 집에 오고싶었던것은 가슴속에 시인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기때문이 아니었던가. 나누고싶었던 이야기들중의 하나가 바로 다름아닌 **김정일** 화와 관련된 사연이 아니었던가.

나는 서둘러 이야기를 꺼냈다. 그것이 시인이 찾고저 모대기는 새 작품의 씨앗이 되기를 믿어마지 않으면서...

얼마전 일이었다. 한 친구가 신문사로 나를 찾아왔다. 펍 오래간만에 만나 무척 반갑기도 했지만 그가 외국출장을 떠난다는 소식도 들은터여서 나의 첫 인사말이라는것이 《아직 안떠났나?》 이렇게 나왔다. 그러자 그도 모든 사연은 생략하고 《래일 떠나려네.》 하고 대답했다.

《그런데 래일 떠난다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제일 큰 준비가 안돼서... 자네한테 부탁하려고...》

나에게? 부탁? 짐작이 안갔다. 외국출장을 간다며 그것도 단기출장도 아닌 여러해에 걸치는 장기출장을 간다는 사람이 조국의 특산음식도 준비할래, 친척들을 찾아 인사들도 할래, 할일이 좀 많지 않겠는데 면식이나 있는 정도의 나에게 무슨 긴한 부탁일가? 그것도 가장 큰 준비와 관련된 부탁이라니... 말은 안했어도 이런 속생각이 아마 얼굴에 내비쳤던 모양이다.

그는 무작정 나의 한팔부터 꼭 잡았다.

《나와 함께 이제 식물원에 가줍세. 거기서 **김정일** 화천연색사진을 찍어주게. 멋지게. 자네야 전문가가 아닌가!》

내가 미처 대답할새도 없이 그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천연색사진을 잘 찍어가지고가서 사무실과 숙소에 놓으려네. 조국을 멀리 떠나도 언제나 **김정일** 화의 향기와 빛갈속에 살려고...》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의 말도 말이려니와 그 말을 할 때의 그의 눈빛, 표정, 진심에 타는

어조가 가슴을 울렸다. 나는 긴말 않고 사진기를 메고나왔다. 여러가지 렌즈를 갖추어 가방에 챙기는것을 잊지 않고...

《내가 어렸을적 아버지가 살길을 찾아 현해탄을 건넌적이 있었네.》

지하철 계단승강기에서 그가 하는 말이였다.

《그때 집떠나면서 내놓은 돈이 25 전이였다네. 이걸 가지구 어떻게 살라는가 어머니가 물으니 <나도 모르겠소.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다시 만나자구>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질 않나. 그때 조국을 떠나는 아버지의 가슴에 차고넘친것이 무엇이 었겠나? 설음, 비애, 하소할길 없는 모멸...

그 아버지가 었저녁 주체조국의 친선의 사절로 먼 제3세계 나라를 도우러 가는 이 아들을 앉혀 놓고 꼭 한마디를 하시데. 사람이 한생을 살고 나면 다 현인이 되고 철학자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칠순넘은 아버지가 당부한 그 한마디가 천금무게였네.

《애야! 하늘끝에 가더라도 잊지 말거라. 이 모든게 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셨기때문이다.》

쿵쿵... 내 심장의 박동이란듯 전동차는 철길의 이음짚을 울리며 살같이 달렸다. 나의 귀전에는 먼길 떠나는 아들에게 했다는 한 타인의 말, 한 생의 체험과 교훈이 응축되고 천만마디 사연이 집약된 그 말이 너무도 생생히 울려오는듯했다.

아들아! 하늘끝에 가도 잊지 말아라. 이 모든것이 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셨기때문이다!

쿵쿵, 쿵쿵... 전동차는 철길이 아닌 내 가슴을 간단없이 흔들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닙니다.》

현세기의 중엽까지만해도 침략자의 발굽밑에 짓밟히며 가난과 략후에 울던 나라, 고국을 등지는 사람들의 눈물이 국경의 나무가에, 비내리는 항구에 휘뿌려지던 이 나라에 찾아온 천지개벽의 위대한 전변! 온 세상이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의 모범의 나라》로 칭송하는 우리 조국의 오늘의 위용과 존엄!...

그것은 백두에서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이 땅우에 찬연히 꽃피우시며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시기때문이다.

천리혜안의 예지, 무비의 담력, 만고의 위인이

지닐수 있는 모든 슬기와 천품을 지니시고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인류의 앞길을 밝히는 위대한 사상리론, 력사의 진군로를 주름잡는 탁월한 령도예술, 만인을 품어주는 그 고매한 덕성으로 하여 세계 수억만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을 받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시대가 축원의 송가를 불러드리고 온 세계가 흠모의 노래를 엮어올리고 인류의 소원과 지향을 모으고 합쳐 존귀하신 성함을 모신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삼가 피워올려 우리의 세기를 격동시키고있으니 인류의 태양이시며 미래이시며 구성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전사로 사는 우리 인민의 행복과 영광, 궁지와 자부름 과연 그 어디에 비길수 있을것인가. 바로 그 영광, 행복, 궁지를 소중히 안고살기에 우리 인민은

《**김정일**화》의 노래를 그토록 사랑하고 로인도 어린이도 심장으로 부르는것이며 제3세계나라로 떠나는 이 나라의 한 일군도 떠나는 길의 가장 큰 준비로 **김정일**화를 안고 가려 하는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 굽이치는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이며 우리의 모든 생활과 투쟁에 충만된 시대적 숨결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시와 노래들에 바로 이 숭고한 시대적 감정이 담겨져야 하지 않겠는가!

...나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시인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눈동자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분명 보았다. 그의 시적 령감과 환상이 나래펴고 있음을 나는 확신했다.

시인은 펜을 잡았다. 그는 벌써 나를 잊고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리로 나왔다. 돌아다 보니 시인의 집 창가에 불빛이 환했다.

몇개의 시집을 가진 머리희스한 시인이건만 이 밤도 시행마다에 시대의 목소리를 담고져 자신을 시대의 메부리로 승화시키는 시인.

나은 걸음을 옮기며 대동강쪽을 바라보았다.

멀고먼 아프리카의 어느 한고장에 가있을 나의 벗, 이밤도 **김정일**화사진이 빛나는 숙소에서 마을사람들과 마주앉아 향토성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그의 모습이 보이는데싶었다.

아,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과 영예가 있고 궁지와 자랑이 있으니 시인아, 이밤을 밝혀라, 그대 붓글을 다듬어 부디 훌륭한 노래를 지어다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르는 우리 인민의 진정이 담기고 시대의 뜨거운 숨결이 담긴 그런 노래를.

새 거리의 탄생을 두고

박혜란

사람들은 흔히 새로 태어난 창조물을 대할 때 창조자의 재능에 대하여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선 광복거리는 어느 설계가나 건설자의 재능에 의해 창조된 건물이 아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는 더욱 찬란히 빛나고있으며 조국땅은 이르는곳마다에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이 일떠서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상락원으로 전변되고있습니다.》

나는 얼마전 설계의 거장이라고 자처하는 외국의 한 도시설계가-요한 부르네와 함께 광복거리를 돌아보면서 바로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20대의 젊은 나이부터 도시설계에 종사해온 그는 자기 나라만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념비적 건물과 거리를 수없이 많이 설계하여 이름을 날린 사람이다. 그러한 그가 이번엔 60 고개를 넘어선 나이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것은 평양에서 열리는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대규모적인 거리가 유서깊은 만경대에 건설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직업적인 호기심이 작용한데로부터 결심을 내리게 된것이다.

광복거리를 향하여 달리는 차안에서 나는 그에게 만경대의 도로가 광장처럼 넓어진 이야기며 소나무림야산들이 오늘은 초고층살림집들의 정원이 되어버린 이야기, 청춘거리 체육관들이 웅장 화려하게 건설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건축물의 설계하나 시공하나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은정이 깃들어있음을 알게 된 그는 숨은 감정에 휩싸여 광복거리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다양한 형식의 고층살림집들과 봉사망들, 특색있게 지은 교예극장과 아이들을 한품에 부르는 듯 다정한 감을 주는 평양학생소년궁전, 거리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향기를 한가득 안겨주는듯싶은 향만루식당...

요한 부르네의 눈에는 설계가의 표정이 아니라 황홀한 신비경에 온 넋을 뺏기는듯한 감동의 빛이 어려있었다. 살림집의 층수를 세어보느라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있던 그는 문득 나를 돌아다보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이 거리에 발을 잠고있으니 어린 시절 어머니 한테서 들은 동화가 떠오르는구만요. 지금

내자신이 그 동화속의 룡궁에 서있는듯한 감이 듭니다.》

이것은 그의 솔직한 심정이였다. 설계가인 나도 자신의 설계로 건설된 이 거리를 바라보며 동화의 세계에 온듯한 감정을 체험했던것이다.

끊임없는 흥분속에 광복거리를 다 돌아보고난 요한 부르네는 나의 두손을 뜨겁게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건설하는 광복거리의 모습을 처음 화보에서 보았을 때 나는 당신들의 천재적인 재능에 대하여 놀라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와보니 이렇듯 훌륭한 거리는 어느 설계가나 창조자의 손끝재간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형성할수 없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수령의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위대한 지도자의 사상과 손길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진정에 넘친 심장의 토로를 들으면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로 모시고있는 긍지를 가슴뜨겁게 느끼었다.

참으로 광복거리 건설을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기울여오신 심혈의 자욕은 헤아릴수 없다.

만경대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 있다고 하시며 만경대의 고유한 지형을 살려 웅근 하나의 도시를 이루는 광복거리를 설계하도록 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 또 광복거리 건설에 끝끝한 청년들로 무어진 속도전청년돌격대와 인민군군인들을 불러주신것이며 우리 인민들이 쓰고 살 거리인데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하시며 광복거리 건설에 필요되는것이라면 서슴없이 풀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은정속에는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온 세상에 빛내이시려는 높이신 뜻이 어려있는것이다.

지난날 증조할아버님이 구하신 산당집에서 대를 이어 살아오시며 만경봉의 무지개를 온 나라에 세우시려는 어린시절 수령님의 그 념원, 피땀죽으로 끼니를 예우며 아이들을 위한 학교마저 없이 사는 만경대사람들의 불행이 곧 조선인민전체의 불행이라는것을 아시고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시며 다시시던 경애하는 수령님의 념원을 바로 여기 만경대에 더욱 활짝 꽃피워주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끝없는 충성심이 오늘 이렇듯 홀

통한 광복거리를 태어나게 한것이 아닌가.

이제 이 광복거리에도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 행사에 참가하러 평양에 오는 세계의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을 찾아올것이다.

광장처럼 끝없이 펼쳐진 거리를 거닐며 그들은 광복거리가 어떻게 되어 이렇듯 빠른 기간에 훌륭히 건설될수 있었는가 하는 사연을 알게 된다면, 만경대지구가 어떻게 오늘과 같이 꾸려져 우리 인민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었는가를 알게 된다면 주체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완성되어가는 우리의 위대한 조국에

대하여 심장으로 느끼게 될것이다.

그렇다!

오늘 이 땅에 솟아오르는 기념비적 창조물들, 이 강산에 펼쳐지는 통성과 번영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에는 창조자의 재능에 앞서 그 재능을 키우고 꽃피워주는 향도의 빛발이 한껏 무르익아있는것이다.

나의 눈앞에는 세계의 청년학생들이 향도성을 우러러 자주의 힘찬 발걸음을 울리며 목청껏 환호를 웨치는 축전날의 광복거리가 안겨오고있었다.

기양의 어머니에게

김철민

자신이 해놓은 일
자신이 다 몰라
서리내린 귀밑을 비다듬으며
찾아오는 손들앞에 송구한 어머니

나에겐 생각되는군요
저 양수기로 서른해나 어머니가 퍼올린 물
흘러흘러 먼 수로에 푸르른
그것은 분명 어머니의 젖줄기라고

생각되는군요, 첫 아기를 돌쳐업고
《락원 1》호 양수기를 지켜섰던 그밤에
아기에게 물려주던 그 젖줄기처럼
들을 향해 저렇게 흘러갔으리라고
잠든 이랑 달게 적시였으리라고

양수기야 그 무슨 사람일가만
그 숨소리만 들어도 아픈데를 알고
그우에 허물만 조금 나도 가슴이 저려
서른해를 하루같이 마음놓은적 없는 어머니

오늘토록 기운차게 도는 저 양수기
내뿜는 흰물결따라... 따라가면
어머니 심중에 고인 그 진정 볼수 있을까요
봉상, 룡강... 멀리 온천벌 한끝까지
흘러가는 단물에 어린 그 수고로움 안을수
있을까요

교대를 마친 밤에도
양수기의 정든 동음소리 베고서 잠들고싶어

살림집 추녀를 양수장 바투 잇대인 어머니
그때문에 멀어진 막내딸의 학교길 제가
걸어봅니다
그때문에 한사코 마다한 좋은 집도 생각해봅니다

아, 수령님 맡겨주신 양수기에
한생의 귀한것 고스란히 다 없고
서른해 어머니가 퍼올린 물은
그 더운 가슴이 뿜어낸 젖줄입니다
방울방울 꿈이 어리고 사랑이 담긴 그것은
이 땅의 행복에 고여진 깨끗한 량심입니다

외태머리 그 시절부터 오늘까지
자신이 해놓은 일
자신이 다 몰라도
우리 수령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당이 모두앞에 내세워주셨으니

서른해 물만을 퍼올렸습니까
어머니는 나라의 기쁨을 안아올렸습니까
서른해 땅만을 적시였습니까
어머니는 온 나라의 마음들을 적시였습니까
《락원 1》호 양수기로
그 뜨거운 젖줄기로

아, 그래서 이 땅 어디서나 볼수 있는
제 어머니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어머니의 수수한 모습앞에서
사람마다 제가 해온 일 밝아봅니다
가슴가슴 해야 할 일 생각합니다!

로동계급의 전형을 빛나게 형상한 감동깊은 화폭

-장편소설 《빈터우에서》에 대하여-

최길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장편소설 《빈터우에서》(김보행 작)를 보시고 이 작품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데 교범으로, 교과서로 된다고 여러차례 치하의 교시를 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찬란히 꽃피어나고있는 주체적 소설문학이 지닌 초대의 영광이며 자랑이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는 전후 재더미만 남은 빈터우에서 락원의 로동계급들이 우리 나라에서 첫 대형양수기를 생산해내는 영웅적 투쟁모습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충성과 의리를 다해가는 조선로동계급의 전형을 빛나게 형상한 우리 식 소설의 모범이다.

1

장편소설 《빈터우에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사회미학적 리상에 맞게 주체의 혁명관의 견지에서 조선로동계급의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수령관 확립에 교범으로, 교과서로 되고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을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심화발전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눈앞에 그려보게 됨에 따라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회미학적 리상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의리에 기초한 충실성과 유기적으로 통일되였다.

따라서 우리 문학의 긍정적 주인공의 성격적 특성은 우리 혁명의 전진과 함께 현실속에서 장성한 인간들의 성격적 미에 기초하고있으며 이러한 시대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이 우리 문학의 시대적 과업으로 제기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은 정치사상적측면에서나 정신도덕적측면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투철하게 체험한 새형의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받들고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충성심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강하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없고 민족적 금지와 자부

심이 높은 주체가 철저히 선 인간들입니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의 주인공 주용녀의 성격은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루는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이다. 혁명적 수령관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관화되어있으며 그것은 충성과 의리를 다하는것으로써 표현되고있다.

작품에서 묘사되고있는바와 같이 전후 재더미만 남은 빈터우에서 첫 대형양수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큰 주물품을 부어낼 만한 용선로도 없었고 기중기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양수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주용녀에게 무슨 타산이라도 있는가 묻는다. 이에 대한 주용녀의 대답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다해가는 그의 성격적 특질의 미학적 기초로 되고있다.

《저에게도 특별한 타산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수령님만을 믿을뿐입니다. 해방후 왜놈들이 파괴해놓고간 공장을 복구할 때도 그렇고 전쟁때 수류탄을 생산할 때도 그렇고 형편은 지금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수령님께서 하라는대로 하니 다 되였습니다.》

아버이수령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는것이 주용녀에게서 깨끗이 발현될수 있는 충성과 의리였다. 그렇기때문에 주용녀는 양수기생산문제가 제기되자 그 어떤 타산을 앞세우는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고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이기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것 그리고 수령님께서 하라는대로 하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신념을 먼저 간직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주용녀의 충성과 의리는 수령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절대화하는데서만이 아니라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문제를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발현되고있다.

소설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주용녀가 대형양수기를 생산하는데서 극복해야 할 난관은 용선로나 기중기의 부족만이 아니였다. 그보다 더 어려운 난관은 반혁명종파분자들의 파괴음모책동이 매우 극심한것이였다. 정인택이와 같은 부상은 자기의 직위를 악용하며 공업이 발전된 나라에서도 만들기 힘든 대형양수기를 《야생적인 정열》 하나만으로는 만들수 없다고 하면서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 집이 나오는가. 당장은 로동자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위장해나선다. 그

리고 양수기생산에 집중해야 할 로력을 주력건설에 돌리게 하는 음모를 한다. 대렬안에 잠입한 반혁명분자인 생산부장 엄기태는 서송재님과 공모하여 소개지에 있던 용선로를 싣고오는 때목을 습격하여 주용녀에게 심한 중상을 입히고 용선로를 강물속에 빠뜨리게 한다. 한편 양수기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귀중한 합금소재를 훔쳐버리는 모략을 꾸민다. 계급적 원썬들의 파괴음모책동이 우심한데 출세욕과 요령주의에 빠져있는 우유부단한 염우진지배인은 정인백에게 맹종맹동하면서 양수기생산을 회의적으로 대하면서 방해를 논다. 안팎으로 부닥치는 난관이 겹쌓이는데 용녀 자신은 두차례에 걸치는 심한 부상으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있었다. 여기에서 반혁명분자들은 기증기능력을 개조하기 위해 애쓰는 홍만석기사를 도와주고있는 용녀에게 《파부직장장》이 《홀아비현장기사》에게 반했다고 류언비어를 퍼뜨리며 로골적인 인신공격까지 하였다.

참으로 몸매 작은 주용녀에게 가해지는 타격은 너무도 가혹한 것이었고 다가서는 난관은 너무도 엄혹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용녀는 기계에서 집이 나오는가 밥이 나오는가 하고 하는 종파논의 궤변에 우리가 만든 기계로 집을 짓고 양수기로 수리화를 하면 기계에서 집도 나오고 밥도 나온다고 맞서며 철도지선을 놓기전에는 용선로를 옮겨올수 없다는 그놈의 《론거》에 열음을 까내여 한치한치 용선로를 옮겨오는것으로 대답한다. 그리고 부당한 루명을 씌워 홍만석기사를 비밀심문하고있는 친일 주구였던 도검찰소 부소장님과 대결하여 그를 빼내오며 끝내 기증기능력을 높이는데 성공하도록 한다. 한편 《반역자의 머느리》로 살아가게 할수 없다는 오빠들의 강요로 생리별을 하고 집을 떠났던 홍만석의 안해를 주준한 교양으로 다시 남편과 자식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이리하여 주용녀는 위대한 수령님께 맹세다진 양수기를 끝내 만들어내는 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주인공 주용녀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과 의리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도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양수기를 끝까지 해내는데서 힘있게 발현되고있다.

소설에서는 주용녀의 이러한 모습에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체현시켜 그의 충성과 의리를 형상적으로 강조하고있다.

안팎으로부터 계급적 원썬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실로 포성없는 전쟁과도 같은 어려운 난관이 겹쌓여있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에 있어서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당과 수령이 바라시는 대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오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매우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다.

주인공 주용녀의 형상은 이 요구를 구현하고있다. 그는 자기앞에 겹씩워지는 난관과 시련을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께 바치는 충성과 의리를 더욱 굳게 다지는 좋은 계기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그는 어려운 시련이 더해질수록 자신을 더욱 다잡고 채찍질하며 주저앉는것이 아니라 굳세게 일어나 완강하게 난관을 맞받아나간다.

장편소설은 주인공의 성격속에 체현되어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과 의리가 가장 깨끗한 량심으로 안받침된 효성에 의하여 더욱 드팀없고 순결한것으로 빛난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주인공 주용녀가 지닌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의리, 끝없는 충실성은 수령님을 위대한 어버이로 마음속깊이 간직하고있는 그의 육친적인 감정, 효성에 의하여 발현되는 것이다.

용선로를 세울 첩판을 해결받기 위하여 제의서를 만들어가지고 성에 올라갔던 용녀가 국장으로 부터 지금 강제 한톤, 세멘트 한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배정하신다는것을 알고 깊이 자책하는것은 이것을 형상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나라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면 강제 한톤, 세멘트 한톤을 친히 배정하시겠는가.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하겠는가. 수령님께서서는 그 많은 제의서들을 보아주시고 하나하나 풀어주시느라고 언제나 편히 주무시기나 하겠는가. 그런것도 모르고 나는 제의서를 가지고 올라왔다. 수령님께 복구전설은 넘려마시라고 해놓고는 일이 어려워지자 평양에까지 찾아올라와 손을 내밀러 하고있다. 제힘으로 할 생각이 안하고 험하게 해먹자고 제의서를 만들어가지고 올라왔다. 수령님께서 내가 올린 제의서를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는가. 이거야말로 량심이 없고 의리가 없는 행동이다. 그런데 나는 그 제의서에 한가지 내용이라도 더 적어넣으려고 하였다. 아, 내가 무슨 죄악을 저지를번했는가. 일을 험하게 해먹자는 한가지 생각에 눈이 어두워 무슨 큰 일을 저지를번했는가...)

여기에 용녀가 지닌 효성의 본질이 다 반영되어 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우에 제기하여 해결받고있는 조건에서 농촌의 수리화에 큰 의의를 가지는 대형 양수기 생산에 필요한 첩판 몇장을 해결받자고 하는것은 타당한 일일수도 있다. 그래서 주용녀도 제의서를 만들어가지고 손을 내밀었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큰 죄악으로 여기며 아버지를 모시는 자식의 심정으로 수령님의 로고를 생각하며 자책하는것이다.

주용녀의 이러한 효성은 종파논인 정인백부상의 강박과 그에 아부굴종하는 염우진지배인에 의

해 양수기를 만들수 없다는 제의서가 우에 제출되었을 때 그가 겪는 체험세계를 통하여 더욱 강력하게 부각된다.

...아버이수령님의 로고를 덜어드리고 그 높은 뜻을 받드는것은 우리 인민의 본분이며 도리이다. 하기에 남편은 전선에서 서슴없이 목숨을 바친것이고 자기 역시 남편을 잃고 어린이까지 반동놈들한테 빼앗겼지만 쓰러지지 않고 오직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만을 걸어왔다. 그 본분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복국건설은 우리가 하겠다는 맹세를 올렸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양수기를 만들자고 펼쳐나섰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전쟁때와 마찬가지로 큰 힘을 얻었다고 하시며 우리가 오늘은 비록 남들보다 뒤떨어지고 재더미만 남은 빈터우에서 새살림을 꾸리기 시작했지만 남들보다 먼저 공산주의 문어구에 들어설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런데 수령님께서서는 양수기를 만들었다는 보고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양수기를 만들수 없다는 제의서를 받아보시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불효막심하고 죄스러운 일인가...

주용녀의 이 심뇌속에는 수령을 받드는 전사의 의무감이 아니라 아버이를 모시는 자식의 감정이 뜨겁게 여울치고있다. 그러기에 계급적 원수들의 모략과 파괴음모책동, 종파분자의 방해책동, 너무도 가혹한 인신공격, 자신의 육체에 엄습하는 무서운 고통, 혈육을 잃은 슬픔 등 인간으로서 당할수 있는 모든 피로움과 시련을 다 겪으면서도 이 모든것은 참고 견디여낼수 있었지만 아버지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리는것만은 참을수 없었다. 이러한 효성을 지닌 용녀이기에 제의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당중앙위원회에 올리자고 하며 제의서를 수령님께 올리지 않았다는 소식에 접해서는 그러럼 온갖 시련을 다 놓는것이다. 그리고 정인백의 종파적 정체가 폭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런놈들이 우리 수령님 가까이에서 쓸라닥질을 했겠으니 수령님께서 얼마나 많은 심려와 로고를 겪으시였겠는가고 수령님의 안녕부터 먼저 생각하며 가슴저리는것이다.

위대한 아버이에 대한 자식의 본분과 의리를 지켜 효성을 다하는것, 이것은 작품에서 시종일관 용녀의 성격속에 관통되어있는 줄기찬 혈맥이다.

이로 하여 그의 인생관화되어있는 혁명적 수령관은 비할바없는 감화력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참다운 교범으로 교과서로 되어 더욱 빛나는것이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는 이와 같이 주체의 혁명관의 견지에서 주용녀의 성격을 혁명적 수령관을 인생관화하고있는 조선로동계급의 전형으로 창조함으로써 당과 수령께 바치는 그의 충성과

효성을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과 의리에 기초한 지극한 효성, 이것이 주용녀의 성격의 핵이며 따라서 이 장편소설이 제기한 문제이다. 시대의 요구와 지향이 체현되어있는 이러한 새로운 종자로부터 흘러나온 주용녀의 성격이기때문에 이 작품이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고 또 영화로도 창조되었으나 그것이 새로운 감흥을 주는것이다.

이 작품에서 주용녀의 성격을 새로운 시대적 높이에서 창조한 여기에 이미 다 알려져있는 사실이지만 새로운 미학적 충동을 야기시킨 근본요인이 있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작가들에게 새로운 창작적 시사를 준다. 소재와 원형의 유사성이 결코 형상의 류형화를 가져올수 없다. 같은 소재, 같은 이야기에 어떤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부여하고 미학적 평가를 주는가에 따라서 독창적인 형상세계도 개척되게 된다. 주용녀의 성격이 이에 대한 생동한 실례이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의 주인공 주용녀의 성격적 특질속에는 지금까지 우리 문학이 창조한 로동계급의 형상과 구별되는 일련의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심화발전과 함께 혁명적 수령관을 인생관화할것을 요구하는 현시대의 미학적 이상이 체현되어있으며 특히는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는 당의 구호를 받들고 생활하는 시대의 지향과 념원이 깃들어있다.

한마디로 주인공 주용녀는 혁명적 수령관을 인생관화하고있는 로동계급의 전형, 충성과 효성으로 안받침된 우리 시대의 영웅이다. 이것이 바로 주인공 주용녀의 새로운 면모, 새로운 성격적 특질이다.

주인공 주용녀의 이러한 성격은 우리 문학이 창조한 긍정적 주인공들의 영웅성을 계승하고있으면서도 그것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따라 부여된 새로운 성격으로 강화되었다.

우리 문학의 긍정적 주인공의 성격에 고유한 영웅주의는 그것이 대중적 영웅주의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새로운 특성이 있었다. 이러한 대중적 영웅주의는 바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우리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 즉 사회전체의 리해관계의 통일 등에 미학적 기초를 두고있었다. 그리하여 어제날의 평범한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이 영웅으로 되어 비단 전투에서뿐만아니라 로동에서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에서 그 새로운 특성이 표현되었다. 다시말하면 평범한 사람들속에서 비범한것, 영웅적인것의 확인,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문학의 긍정적 성격이 가지는 새로운 특성이었다. 왜냐하면 과거 사회주의사실주의이전의 문학에서는 인간의 영웅성을 묘사하면서 평범한것속에서 비범한것, 영웅성의 대중적 성격을

묘사하지 못하였고 또 묘사할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대중과 영웅의 분리에 대한 묘사가 지배적이었고 이러한 작품에서 영웅적 성격은 많은 경우에 전설적이며 대중을 초월한 기상전외적인 성격으로 특징적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에서는 영웅적 성격을 낳게 한 사회적 기초인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속에서 발양되고있는 대중적 영웅주의를 묘사하면서 평범한것이 체현하고있는 비범한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하였다. 이것은 긍정적 주인공의 성격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변이며 혁신이었다.

그러나 시대의 미학적 이상이 높아지고 풍부화됨에 따라 긍정적 주인공의 영웅적 성격도 그에 맞게 혁신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주용녀가 체현하고있는 영웅적 성격은 이에 대한 생동한 미학적 해답으로 된다. 그는 몸매가 작은 너무나 평범한 여성이다. 그에게는 동지들과 이웃들에 대한 우애가 있으며 남편을 잃고 딸애를 잃은 슬픔으로 몸부림치던 여성들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성품을 지닌 수수한 여성이다.

이러한 보통여성에게 그렇듯 상상을 초월하는 불굴의 의지, 영웅적인 위훈이 발휘될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였는가.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위대한 아버지로 높이 모시고 따르는 고결한 사상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충성과 효성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이고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이기때문에 무조건 양수기를 만들어내자, 수령님께서 하라는대로 하면 무엇이냐 다 된다. 이것이 주용녀의 영웅적인 행동을 낳게 한 요인이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위대한 아버지로 높이 우러모시고 따르는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에 의하여 발휘되는 영웅적인 성격, 이것은 주용녀의 성격적 특질에서 혁신성을 가지는것이며 이러한 영웅적 성격은 우리 문학의 긍정적 주인공형상에서 최고의 높이에 이른 전형이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의 주인공 주용녀의 형상에서 혁신성은 또한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으로 안받침된 혁명적 락관주의다. 주용녀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지로 굳게 믿는 신념이 영웅적인 위훈을 낳게 하는 정신적 기초로 되고있다면 수령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간직하고있는 정신적 대는 혁명적 락관주의를 발양케 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객관적으로는 온갖 반혁명종파분자들과의 파괴음모책동과 모략, 우유부단한 동요분자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혈육을 잃은 슬픔과 엄습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용녀가 곳곳이 일어나 대형양수기를 만들수 있는것은 나에게서는 언제나 아버지수령님께서 계신다는 마음의 의지였다. 그것은 그 어떤 론리나 기성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친아버지를 믿는 혈육

의 감정에서 우러나온 진정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딸이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도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수령님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간직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이 주용녀로 하여금 만난을 뚫고 승리를 확신하며 힘있게 전진할수 있게 한 혁명적 락관주의를 발양케 하였다.

물론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은 리기적인 목적과 추구앞에 나타난 극복할수 없는 난관앞에서 자기 개인의 리익을 비극적으로 시인하는 부르쥬아 비판주의와는 달리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고 여기로부터 지어는 죽음과 같은 비극적인 정황에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혁명적 락관성을 찬양하여 형상하였다. 이것은 문학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긍정적 주인공의 형상창조에서 혁신적인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이 경우에서조차도 긍정적 주인공의 성격속에 체현되어있는 락관주의는 인생관적으로 체득된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보다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에 대한 변증법적인식, 지식으로 체득된 미래에 대한 확신 등 리념의 세계에서 발현되는것으로 되어있었다.

주용녀의 성격속에 구현된 혁명적 락관주의는 이러한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그것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체득된 것이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그로부터 아버지를 마음의 의지로 간직하고있는 혈육적인 감정의 산아이다. 혈육적으로 이어져있는 육친적인 감정은 그 어떤 의무감에서 오는 자각이나 본분에 대한 자각에 기초한 사상감정보다 비할바없는 실천행동을 낳는다. 여기로부터 주용녀의 성격속에 체현되어있는 락관주의가 객관적인 인식에 기초한 행동의 발현과는 다른 새로운 높이의 차원을 가지고있다는 근거가 있는것이다.

이밖에도 주용녀의 성격의 혁신성은 다른 측면에서 더 말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느 경우를 불문하고 그의 성격에서 혁신적인 면모를 특징짓는 제반 사실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효성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것이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는 확실히, 이점에서 귀중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창작적 모범으로 되고 있다. 이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며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충신과 효자가 되도록 하는데서 자기의 사상미학적 감화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는것이다.

2

장편소설 《빈터우에서》는 시대가 체현하고있는 사회미학적 리상의 높이에서 인간관계를 뜻있고 깊이있게 맺어주고있다. 이리하여 수령과 인

민이 혈연적으로 련결되어있는 일심단결된 우리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대하여 미학적으로 높이 찬양하고있다.

장편소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인민과의 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아니라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리에 기초하여 아버지와 자식간의 육친적인 관계로 깊이있게 형성되어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인공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할수 있는 근본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수령과 인민이 혈연적인 관계로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는 구체적인 형상은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주인공 주용녀와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생활적으로 밝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락원의 로동계급들을 맡아들처럼 여기시며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그들을 먼저 찾으시여 과업을 맡기신다. 일찌기 전화의 나날 락원의 로동계급들을 찾으시여 주물직장당세포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전쟁만 이기면 복구건설은 넘려마시라고 한 용녀의 말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큰 믿음을 주신 수령님께서서는 대형양수기생산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락원의 로동계급들과 의논해보면 방도가 나올것이라는 신임을 안겨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양수기를 만들어내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들으시고는 우리가 남들보다 뒤떨어지고 재더미를 파헤치며 복구건설을 시작했지만 남보다 먼저 공산주의 문어구에 들어설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시었다고 대견해하시며 기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용녀의 신상에 대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뜨겁게 관심하시며 보살펴주신다. 용선로를 실어오던 용녀가 반동놈들의 습격에 총상을 입었다는 당위원장 김형운의 보고를 들으시고 하시는 수령님의 말씀은 이에 대하여 생동하게 체득할수 있게 한다.

《그 동무는 정말 우리한테 충실한 동무입니다.

그런 충실한 동무들이 있기때문에 우리당은 무엇이든지 결심할수 있고 일단 결심한 문제는 드림없이 실천에 옮겨놓곤합니다. 용녀동무를 잘 돌봐줘야 하겠습니까. 반동놈들이 용녀동무에게 총질을 한것도 결국은 그 동무가 우리한테 가장 충실한 동무이기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당을 믿고 당에 모든걸 의탁하고 사는 동무인데 당에서 용녀의 건강에 깊이 관심해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시는것이다.

주용녀를 비롯한 락원의 로동계급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은 그들이 만든 양수기를 돌려 기양관개의 통수식을 하는 뜻깊은 시각에 접해서도 주용녀와 락원의 로동계급들을 먼저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정을 베풀어주시는데서도 더욱 뜨겁게 안겨온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락원의 로동계급들이 당의

의도를 받들고 양수기를 만들어냈기때문에 오늘과 같은 기쁜 날을 맞이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전쟁을 이긴것만큼이나 기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용녀의 몸에 파편을 두개씩이나 남겨놓은 반동놈들의 작간과 총상으로 하여 그의 건강이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것을 아시고는 걱정을 누르실수가 없으시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동무는 훌륭한 동무입니다. 전쟁때도 그 동무는 남편을 잃고 아이까지 반동놈들한테 빼앗겼지만 오직 당을 믿고 당에서 하라는 수류탄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도 잃고 귀여운 딸도 잃었지만 나라가 입은 상처에 비하면 자기가 입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불비속을 헤치며 동해안까지 가서 내화벽돌을 구해다 폭격에 마사진 용선로를 일으켜세워가지고 전시생산을 보장한 동무입니다. 모든것이 다 파괴되고 재더미만 남았는데도 전쟁만 이기면 복구건설은 자기네가 하겠다고 한 동무입니다. 그 동무는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굳센 동무입니다. 이번에도 그

동무는 우리가 양수기를 만들라는 과업을 주자 전쟁때 대수술을 받은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온갖 악조건을 이겨내면서 끝내 양수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동놈들이 그에게 총질을 하고 종파놈들이 갖은 꾀방을 다 놀았지만 그놈들과 완강하게 맞서 싸우면서 당의 로선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 동무는 용선로를 만들 철환을 해결받았고 제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성에 올라왔다가 강재와 세멘트를 우리가 직접 배정한다는 말을 듣고는 우리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고 그냥 내려가서 엄동설한에 얼음을 까고 물길을 내면서 소개지의 용선로를 때로 실어다 세우고 쇠물을 뽑았습니다. 정말 충실한 당원입니다. 그런 충신들이 있기때문에 우리 당이 강한것이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해낼수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무가 아직도 전쟁 때 파편을 몸에 두개씩이나 가지고있었다니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피로운걸 참고 견뎌냈습니까...》

용녀에 대한 그지없는 사랑과 크나큰 심려가 잠긴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속에는 자식이 한 일을 감회깊이 회고하며 그의 신상을 넘려하는 아버지의 정깊은 사랑의 감정이 뜨겁게 숨배여있다.

아버이수령님의 육친의 사랑은 용녀를 평양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해주시고 몸소 병원에 나오시여 그의 병문안을 하시는 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에서 최고의 정화를 이루고 감동깊이 부각된다.

몸에 파편조각을 그냥 두고서는 건강은 물론 그의 생명까지도 담보하기 어려운데 용녀의 상태는 대수술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이러한 용녀를 만나보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걱정을 누르실수 없으시였다.

전화의 날,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것이라고 세

제가 우려하는 나라의 복구건설을 한가슴에 맡아 나서는 용녀는 가뜰이나 작은 몸매에 어깨가 더 좁아보이고 커다란 두눈은 깊숙이 안으로 들어갔으며 돈있만큼 작아진 얼굴에는 오직 짙은 병색 뿐이었다. 너무도 처량해진 그 모습이였다.

《동무가 왜 이렇게 됐소. 왜 자기 몸이 이렇게 되도록 자신을 돌보지 않았소. 왜 아픔을 숨기며 일했소. 동무가 그렇게 애쓰다가 이 땅에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날을 보지 못할 때 누구보다도 내 가슴이 아프리라는것을 동무는 왜 생각하지 못했소.》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몸소 용녀의 수술을 보증하시며 립회인이 되시는것이였다.

여기에는 수령의 위대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정이 한데 엉키어 인간사랑의 극치를 이룬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육친적인 감정의 정수가 뜨겁게 흐르고있다.

이것은 수령과 당, 인민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열렬한 미학적 찬양인것이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는 이처럼 수령과 인민과의 관계를 아버이수령님과 주용녀와의 혈연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영웅적이며 불요불굴한 혁명정신과 실천행동이 어디에 그 원천을 두고있으며 그 힘의 무진 장함을 격조높게 구가하고있다. 이리하여 내리는 사랑에 오르는 충성과 효성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수령과 인민의 혈연적 뉴대에 대한 깊이있는 인간관계속에서 인물들을 형상하고있기때문에 주인공 주용녀뿐 아니라 세포비서 황순동, 용선로 작업반장 강길무, 현장기사 홍만석, 창고장 송석규 등 주물직장 로동계급들의 각이한 성장과정속에서 발현되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의리가 하나의 지향속에서 감동깊게 표현되고있으며 그 실천행동속에 사회의 미학적 리상이 뜨겁게 체현되어있는것이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는 대형양수기라는 큰 생산기술적 문제를 기본사건으로 취급하면서 시대의 지향과 념원을 구현하고있으며 우리 시대 인간문제, 인생관적인 문제에 대하여 깊이있는 해답을 주고있다. 이것은 우리 식 소설의 모범을 보여준 귀중한 성과이다.

오늘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을 통하여 실천행동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당과 수령이 해결을 바라는 절박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현실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에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생산기술적인 문제를 기본사건으로 하여 이야기를 펼치게 되며 그속에

서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게 된다.

인간의 운명이란것도 사회발전의 력사적 과정에 의하여 규정되어진다. 오늘 우리 문학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운명이 선행한 시기의 고전작품들에서와 같은 본래로 사회와 개인간의 모순을 바탕으로 하여 채색되어질수는 없다. 또한 오늘 우리 문학작품의 주인공들에게 있어서 가정적인 갈등이나 세대론리, 애정세계 등이 생활의 중심내용이 될수 없으며 여기에 그 어떤 운명적인것, 인간문제가 있을수는 없다. 물론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은 다양한 측면을 자체속에 포함하고있지만 그 중심내용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사회주의건설투쟁의 세계이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의 주인공 주용녀나 세포비서 황순동, 현장기사 홍만석, 작업반장 강길무 등의 형상은 결코 사회와 모순관계에 있는 개인의 사색적 세계에서 추구되고있지 않다. 그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철저히 우리 혁명의 운명과 결부시키고있으며 그것은 당과 수령이 바라는 대형양수기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작품의 중심사건속에서 구현되고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채터미만 남은 빈터우에서 수령께 맹세다진대로 자력갱생하여 양수기를 만들어내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 즉 우리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였으며 그것은 또한 자기자신들의 운명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여기에 바로 우리 시대의 새로운 특질이 있으며 인간의 운명에 대한 옳은 미학적 견해의 궁지높은 구현이 있다. 그들의 형상속에는 각기 독자적인 개성속에서 자기의 운명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결부시키고있는 새로운 특질이 뚜렷하다. 주용녀, 황순동, 홍만석, 강길무, 송석규 등은 서로 같지 않은 개성적 특질을 보여주면서 자기들의 충성과 효성을 다하여 대형양수기생산에 모든것을 다바치며 일체의 아름답지 못한 불순한것들 즉 반혁명분자들, 종파주의, 요령주의 등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영웅적인 희생성을 발휘한다.

작품은 주인공들이 자체의 힘으로 간고분투하여 대형양수기를 만들었다는 생산적인 문제를 기록주의적으로 보도하고있는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의 담당자들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있는바 조선의 로동계급은 무엇을 생각하고있으며 무엇을 가장 귀중한것으로 간직하고 인생관화하고있는가를 그들의 깊은 정신적 내면세계를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곧 우리 시대의 인간문제이다. 인간문제도 결코 추상적인 범주인것이아니라 사회력사적인 구체성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범주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대한 본분과 의리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

시대 인간문제, 그 어떤 인생관적인 문제도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시대의 인간문제를 사회주의경제건설투쟁과정속에서 찾지 않고 그 어떤 《운명적인 곡절》을 인위적으로 주인공들에게 덧붙이는 것으로써 인간문제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매우 유해로우며 우리 식이 아니다.

이런 견지에서 장편소설 《빈터우에서》가 대형양수기생산문제를 기본사건으로 하면서도 우리 시대 인간들의 보람찬 삶과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참된 인생관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준것은 매우 긍정적인 창작적 모범이며 우리 식 소설에 대한 명확한 표상을 주는 생동한 레이다.

장편소설에서 정황과 갈등을 작품의 기본문제에 맞게 첨예하고 예리하게 설정하고 계급투쟁의

요구에 맞게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대형양수기생산은 단순한 생산투쟁이 아니라 그것이 곧 심각한 계급투쟁이었다는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한것도 또 한 우리 식 소설의 모범을 보여준 귀중한 성과이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는 이와 같이 조선로동계급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하고 주체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소설문학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과시한 성과작이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주체적인 소설문학의 창작적 성과를 적극 일반화함으로써 우리 소설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것이다.

서해갑문호수에 풍년달이 휘영청

리종덕

서해갑문 호수에
풍년달이 휘영청
어허! 황홀하여라
눈부시여라

동해의 뜨는 달은
은빛 고기떼의 다리를 놓는다더니
서해갑문 호수에 솟는 달은
금빛이삭의 풍년다리를 놓는구나

단물이 흘러가는 물길을 따라
내 마음의 노만 젓는가 했더니
달이며 너도
물노래로 뜻을 달았구나

천만년을
하늘길만 가더니
금실은실 두둥실 은물결타고
에헤야-황해곡창 찾아가누나

구름도 못넘는
구월산을 지날 때면

양수장 지붕우에 더덩실 앉아
양수기 노래속에 쉬여도 가자

신재령 나무리에 가닿으면
벼포기 아지치는 풍년가락에
더더구나
웃음이 벅글테지

물소리에 젖어선가
밤늦도록 잠 못드는
젊은이들 가슴가슴에
사랑의 금선도 뒹겨주어야지

서해갑문 호수의
단물이 흘러흘러
물길이 천리이니
달빛도 천리

오, 물노래로 뜻을 단 풍년달이여
너는 진정 금실은실 수놓고있구나
공산주의 새날과 빛나게 이어놓을
80 년대의 아름다운 풍년다리를

걸음걸음 뜨거움에 젖어

-무산지구전투승리 50년을 맞으며-

서봉제

첫기슭

봄이면
그리워
꽃이 피면
그리워

꽃에도
꽃중에도
진달래 피면
더욱 그리워

눈석이 봄부터
함께 피던 내 마음
예 5호물동가에 마주서니
아, 가슴에 젖어드는 그날의 꽃향기

이 산천이었구나
붉게 핀 진달래
타향의 하늘 밑에 쌓였던 그리움으로
살불이처럼 안으신 우리 어머니

차디찬 이국의 언 땅속에

사랑하는 혈육들을 다 묻으시고
먼먼 싸움의 험산을 헤쳐넘으시며
이 기슭에 닿으신 길 몇천몇만리던가

철창가에 죽음이 마주설 때도
눈보라행군길에 모진 시련 겹쌓일 때도
장군님 받드신 마음 순간도 드림없었기에
조국의 꽃 그리도 소중히 안으신 어머니

아, 짓눌려 신음하는 겨레들이
떨어져 그림던 장군님의 품
더는 헤어져 못살 조국의 그 마음을
뜨거운 이슬로 받아안은 너 5호물동

너는 정녕 세상에 말없어도
어머님이야기로 진달래산천을 피워준
어머님미소로 진달래꽃바다 펼쳐준
영원한 전설의 첫 기슭 되었구나!

-5호물동에서-

샘과 글밭

이 샘물에 갈고갈아
이 샘물에 풀고풀어
한자한자 쓰시었으리

굽어보면 수면위에 비쳐드는
청봉의 아름답드리 구호나무
쳐다보면 상기도 먹빛 또렷한
어머님 새기신 글밭

밟히어 사느니 앉아서 죽느니
겨레여 일어나 항일전에 나서라!
천고림 흔드는 저 웨침
맹세로 끓던 심장의 말을 터쳐
어머님 불러주신 저 목소리

자랑도 없이 소문도 없이
여기 숲속 고요한 샘가에
깊이 뿌리내려 살아 설레는
그날의 구호나무

아,
샘이여
청봉의 해 기울던 저녁
어머님께 정히 먹물 풀어드린 그 보람으로
저 글밭과 함께 세월을 넘어 솟는구나!

-청봉속영지에서-

건창의 우등불

한결 음이면

달을 듯이

이렇게도

가까이 타올랐구나

새도록 불빛 잠못들던

사령부의 천막 우러러

어머님 온밤 지펴가신

건창의 우등불자리

어깨우에 찬이슬 내려도

장군님의 작전지도우에서

힘있게 달리시는 연필소리에

걸음 함께 날으시던 마음

밤하늘에 피는 아름다운 불꽃 따라

광복의 개선광장에 장군님 높이 모실

환호의 축포소리도 귀전에 그려보시며

별보다 더 밝게 웃으시던 어머님!

아, 저기 숲푸른 청봉산너머

장군님의 안녕을 지키시여

백두광야에 이렇게 지펴가신

그 우등불 천이던가 만이던가

눈서리 가리울 처마라도 있었다면

눈바람 막아줄 울바자라도 있었다면

마음속에 짊어보는 우등불자리

이다지도 뜨거움에 탈것이나

오, 숙영지에 락엽은 날려도

어머님 마음 담아 타다남은 숯

만리설원에 찍어온 눈속의 불

온 조국땅에 번져가고있어라!

-건창숙영지에서-

축복받은 호수여

하늘이 비껴, 꽃잎에 잠겨

더없이 아름다운 못가에서

휴양생처녀들 사진을 찍데

한껏 웃고, 한껏 떠들며

꽃속에 앉자며 물속에 서자며

차레진 행복의 이 순간

영원토록 새겨 남기고픈 처녀들아

바로 예란다

희맑은 호수 푸른 물결에

웃음많은 너대원들과 함께

어머님 잠시 행군길 쉬여가신곳

어머님 오래도록 머물고싶으셨던

내 나라의 빼앗겼던 이 산전

기어이 찾아야 할 아름다움이였고

기어이 꽃피워야 할 가슴속 꿈이었기에

마음은 천년같이 살고파도

결전으로 달려가시는 그 걸음

순간에 떼시였나니

아, 축복받은 호수여

이 땅의 미래를 위해

어머님 그날에 안고가신 아름다운 꿈이

오늘은 락원의 강산에 꽃피었구나!

쏟아지는 억만구슬 피는 무지개에

품고오신 꿈 고이 엮어보시며

-삼지연못가에서-

세월의 끝이 없이

금빛에 익어

이삭은 흥치고

파도에 실려 대지는 설레고

금풍이는 대홍단벌의 한끝 찾아

내 해종일 걷고 또 걸었던만

눈앞에 마주셨구나

신사동의 키낮은 귀틀집이여

철늦은 봄마저
멀리 떠나간지 오래도록
땅에 물을 한줌 씨앗이 없어
한숨으로 가슴 꺼지던 농부들에게
배낭속의 소중한 밀종자 털어주신 어머니

둘러보니 지경없이 펼쳐진 별
이 집, 이 마당에서 이어졌구나
새겨보니 못잊어 속삭이는 대지
그날의 첫 씨앗에 받들려 영글었구나

사연깊은 귀틀집
저 고삭은 동기와추녀에 불을 대고
어리광치며 마주웃는 밀바다
우리 수령님 해마다 깊으신 감회속에
오시여선 쉬이 못떠나시는 백두삼천리별이여

아, 못잊을 신사동의 그밤
이제 조국이 광복되면
장군님 모시고 큰 잔치 베풀자하시며
웃음으로 남기고가신 그 약속
어언 몇십년의 년륜만을 감고감아
오늘도 목메여 목이 메여 부르는 어머니!

그래서 그래서 이 별의 금빛이삭
가슴에 타는 그리움으로 익어가고
이를길 없는 소원에 이 대지의 풍년노래
우리 마음 이리도 울리고울리던가

아, 우리의 김정숙어머님
그토록 바라시던 념원
찬란한 향도의 빛발아래
활짝 꽃피여 한껏 누리는 행복
세월은 끝이 없이 다가만 서는구나!

-신사동전적지에서-

집은 나에게 무엇인가

장병철

어제날 나라없던 그 시절
네 귀에 기동을 뻗친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거적문을
감탕속의 갈게마냥 드나들 때
집은 나에게 무엇이었던가

하늘이 내다보이는 천정에서
흘러내리던 장마철 비물줄기
그것은 하염없는 서러움의 눈물이었고
동지설달 싸늘한 방바닥은
녹을줄 모르는 마음속 얼음장이였거늘

집은 무엇이었던가
지울수 없는 가난의 흔적
앓아누운 어머니의 누런 얼굴빛
세월의 짓눌림에
눈물이 무거워 눈길 들지 못하던것

무엇이었던가 집이란
태어난 운명에 대한 저주
때식을 구걸하던 깡통소리
번개빛처럼 내리쬘하던
착취와 억압에 맞서던 반항심뿐이던것

내 오늘은
모란봉 기슭의 화려한 집에서 살고있건만

다 알던가 집이란 무엇인지
새로 일떠선 광복거리
하늘가에 마당이 달린 집으로
이사하여 살게 된다는 그것조차...

손녀애의 맑은 눈동자처럼 소중하고
행복의 웃음소리처럼 들먹이는것
집이란 흘러간 가슴아픈 추억이더냐
집이란 받아안은 고마움의 눈물이더냐

이 세상 그 어디 간다해도
못견디게 그리워 돌아올 나의 집
결사의 그날엔 원쑤의 불구멍도 막아
피로써 지켜갈 행복의 요람

자연의 눈비만 막아준다면
바람세찬 나무아지의 새둥지와 무엇이 다르랴
생활의 눈비까지 다 막아주는
집이란 내 삶의 운명과 같은것이나니

오! 집은 나에게 무엇인가
심장에 물으며 생각할 때
어디선가 울려오는 맑은 노래소리여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온 세상이 걷는 길

류인옥

세상에는 길이 많다.

아름다움으로 하여, 력사로 하여, 혹은 경제적 가치로 하여 제나름의 자량을 펼치는 길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별로 생각해본적이 없다.

그러나 얼마전에 있는 일은 사람들의 가슴에 참다운 삶의 진리, 혁명의 높은 뜻을 새겨주는 길에 대한 생각의 바다로 나를 이끌어간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장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항일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더없이 고귀한 재부로서 세월이 흐르고 혁명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산과 들에 봄빛이 무르녹는 5 월의 어느날, 나는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열차에서 내린 나는 순식간에 아이들속에 묻혀 버렸다. 며칠 학교를 떠났다 올 때면 의례히 마중오던 아이들이였지만 이날의 상봉은 류다른 것이었다. 나의 머리에서 붉은별이 빛나는 군모를 벗겨 써보는 아이, 기어이 줄라 풀색 배낭을 등에 지는 아이... 모두들 한번 《유격대원》이 되어 보고싶다는 것이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심리그대로 질문이 시작된다.

5 호물동에 진달래가 피었던가, 청봉의 구호목이 어떻게 되어 색이 바래지 않는가, 삼지연 물맛이 어떤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음에 대답하기에 바빠하는 나의 손목을 꼭 잡으며 꼬마 한길이가 울려다본다.

《선생님, 〈갑무경비도로〉는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자 여기저기서 제나름의 견해를 내놓느라 법석인다.

《우리 마을 큰길만 할거야.》

《쳇, 그만밖에 안되겠니. 시내도로만큼 넓을 거야.》

《갑무경비도로》가 얼마나 넓은가.

나는 한길이의 말을 새겨보았다.

참 엉뚱한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뜻이 깊은 질문인가?

순간 답사의 나날 받아안았던 감동이 가슴속에 파도쳐와 나는 선뜻 입을 열수가 없었다.

...삼지연을 떠난 우리 답사대오앞에 마치 자를 대고 짜놓은것처럼 곧바른 길이 펼쳐졌다.

《〈갑무경비도로〉 다!-》 누구인가 환성을 올리자 대오는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태고연한 밀림속에 총검처럼 들어선 이깔나무, 분비나무, 붓나무의 숲사이로 눈썹리 아득하게 뻗어간 이 길이 바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갑무경비도로》이다.

휴식구령이 내렸다.

화판을 꺼내들고 저 멀리 무포쪽으로 뻗은 길을 속사하는 청년, 이깔나무숲사이로 가볍게 뛰어다니며 이 지대의 풀이며 봄꽃을 책갈피에 끼워놓는 대학생처녀, 그런가 하면 승엄한 표정으로 이 길을 배경으로 사진기앞에 나서는 축들도 있다. 마치도 이 순간을 기다렸단듯이 이 길의 모습을 간직하려고 사람들은 바삐 서두르고있었다.

문득 나의 눈길은 길가에 앉아서 일손을 놀리고 있는 한 녀인의 모습에서 멎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오락히때 《평북년병가》를 건드려지게 부르던 운전벌의 녀성이었다.

《!...》 나는 그만 그자리에 굳어지고 말았다.

녀인은 길가에 무엇인가 심고있었다. 작은 꽃삽으로 흙을 파헤치며 일손을 다그치는 얼굴에는 밝은 흥조가 어려있었다. 나를 알아본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떠나올 때 작업반농장원들이 《갑무경비도록》에 심어달라고 넣어준 꽃씨라는 것이다.

《어쩌면... 참 좋은 생각을 했군요!》 그러자 녀인은 손을 들어 가리킨다. 앞을 바라보니 길옆의 이깔나무아래에도 정성껏 조약돌을 손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락원의 영웅 주형공아바이와 신포의 어로공청년이예요.》 나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알뜰히 꾸러진 길을 바라보았다.

짧은 휴식참에 이 길과 더불어 자기의 몫을 바치며 가슴깊이 간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은 세월을 거슬러 1939년 5월 력사의 그날로 내려쳐간다.

간악한 일제의 책동으로 국내혁명조직들이 파괴되고 조선의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아치던 우리 혁명의 가장 암담하던 그 시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려 또다시 국내진공작전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구가점전투로 춘기총반격전의 첫 봉화를 올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백현 15도구전투와 반절구전투를 통해 적들의 력량을 국경으로 쏘리게 하신 후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시였다.

5호물동을 건느시여 청봉과 건창을 거쳐 배개봉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지휘원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이 백두산 동남부에 주의를 집중하며 또한 야간에 주의를 더 돌리는 약점을 리용하여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행군하며 대담한 군사활동을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총 연장길이 120킬로메터에 달하는 이 도로는 보천보전투에서 났을 잃은 《조선총독》이란놈이 일본 《천황》의 추가예산승인을 받아 2년반동안이나 죽을 힘을 다해 닦아놓은 새 국경경비도로였다. 일제가 국경을 《경비》하겠다고 닦아놓고 검열을 받으려고 깨끗이 청소까지 해놓은 이 길, 군경들의 사나운 서슬에 날새까지 떨어졌다는 이길로 우리 혁명의 주력부대가 바로 그 원썬들을 치러 갔다!

눈을 감으면 용기백배 신심에 넘친 유격대원들의 모습이 어리어오고 귀기울이면 그날에 울려가던 《유격대행진곡》의 힘찬 선율이 바람결에 들려오는듯하다.

일제놈들을 무색케 한 《일행천리전술》! -정녕 이것은 무비의 담력과 비상한 통찰력, 탁월한 군사적 예지가 없이는 엄두도 못내는 뛰어난 전법이었다.

세계의 걸출한 위인이시고 뛰어난 지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력사에 길이길이 전하여 주는 《갑무경비도로》!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면서 《세계제패》

를 꿈꾸던 《무적황군》-일제의 패망이 무엇때문인가를, 한세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조선의 힘이 어디에 시원을 두었는가를 축도판처럼 새겨안은 불멸의 이 길!

《갑무경비도로》와 더불어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로정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뜻을 새겨본다.

1956년 6월 당안에 끼친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책동을 뿌리뽑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고수하실 하나의 신념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님의 피어린 혁명의 발자취를 더듬으시며 답사로정을 정하여주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일제의 삼엄한 경계속을 뚫고 대낮에 걸어간 이 길을 어떻게 뺄스를 타고 가겠는가고 하시면서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보무당당히 행군하도록 진두에서 이끌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열어주신 길, 백두산과 잇닿은 이 길을 따라 온 나라 인민이 걷는다. 이 길을 걸으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가슴불태우며 조국통일의 길, 사회주의, 공산주의 높은 봉우리노도쳐갈 신념을 다지며 산악도 격랑도 넘고 헤쳐갈 무비의 담력과 의지를 키운다.

이것이 어찌 우리 인민만이라! 대양과 대륙을 넘어 찾아온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의 대오가 굽이친다. 이 길을 따라 백두산, 백두산으로!

그들이 부르는 환호성이 우주의 하늘가득 메아리친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지도자를 모신 조선의 영광 누리에 빛나라. 세계는 백두산의 정신을 안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리라!

백두산과 잇닿은 길 《갑무경비도로》는 날마다 달마다 넓어진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의 혈통을 이어받으려 충성의 대하가 굽이친다.

나는 그날 농장원녀인과 영웅아바이, 어로공청년앞에 섰을 때처럼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모두 그러안았다.

그리고 힘주어 이야기하였다.

《〈갑무경비도로〉는 보통길이랍니다. 하지만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을 따라온 세상이 걷는 길, 한없이 넓고넓은 혁명의 길입니다.》

문학의 현대성과 현실주제의 작품창작

조인화

문학의 현대성을 강화하고 그 교양적 역할을 높이는데 있어서 현실주제의 작품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학의 교양적 기능과 역할은 현대성을 철저히 구현하면 구현할수록 높아진다.

현대성은 시대의 절실한 혁명적 요구, 다시말하여 시대적으로 나서는 당파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절실한 혁명적, 미학적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특성으로 하여 현대성을 구현하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 잘 구현할수 있을뿐 아니라 문학의 교양적 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일수 있다. 문학은 현대성을 구현하여야 오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힘있게 가르칠수 있으며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문학의 현대성은 현실생활에 가까운것, 오늘의 혁명투쟁과 직접 관련된 문제부터 그릴수록 더욱 강화된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무엇보다도 현실주제의 작품을 창작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 현실주제의 작품들은 시대정신을 구현하여 시대의 절실한 인간문제에 예술적 해답을 줌으로써 그 어느 시기 생활을 그린 문학예술보다도 비할바 없는 거대한 감화력을 가진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3대혁명의 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장엄한 현실을 반영하여야 하며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투쟁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현실주제는 우리 인민들이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역세게 투쟁하고 있는 약동하는 사회주의현실을 그리는 주제이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걸으며 달리는것이 오늘의 장엄한 현실이며 어제의 새것이 오늘에는 벌써 낡은것으로 되버리고 날에날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 영웅적인 현실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장엄하고 영웅적인 현실은 문학예술앞에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있으며 새로운 인간, 새로운 영웅, 새로운 생활을 민감하게 그릴것을 요구하고있다.

현실주제의 작품은 이러한 문제, 이러한 요구

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예술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현대성을 높이 체현하게 된다.

현실주제작품이 현대성을 높이 구현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대가 제기하는 절실한 문제들을 제때에 주제적 과제로 제기하고 풀어내기때문이다.

현실주제작품은 시대가 제기하는 절실한 문제를 인간문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현실발전에 적극 이바지할뿐 아니라 현대성을 더욱 높이 체현하게 된다.

시대의 절실한 인간문제는 어느것이나 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이며 그것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생활이란 무엇이며 사람들은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시대와 생활의 물음에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주는 현대성이 구현된 문제이다. 당정책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것이며 따라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현실은 부단히 새로운 문제들을 문학예술에 제기하게 된다.

현실주제작품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사상주제적 과제로 내세우고 형상적으로 해명하기때문에 그 어떤 주제의 작품들보다 현대성을 높이 구현하게 된다.

현실주제작품이 현대성을 높이 구현하게 되는 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현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체현하고있는 긍정적 주인공들의 전형적인 형상을 직접 창조하기때문이다.

시대정신은 시대의 지향과 결부되어있으며 현실 생활에 구현되어있다.

현실생활은 시대의 지향을 보여줄뿐아니라 시대 정신을 체현한 산 모범들을 화폭의 중심에 내세울수 있게 하는 생활적 바탕으로 된다.

현실생활에는 3대혁명기수들과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시대정신의 체현자, 생활과 투쟁의 산 모범들이 수없이 많다. 이러한 산 모범들은 시대정신이 내려치는 약동하는 현실생활을 떠나서 보여줄수 없다.

현실생활이야말로 시대정신으로 일관된 생활이며 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체현한 인간들이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새로 변형하여 나가는 생활이다.

그러므로 현실주제의 작품을 창작한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체현하고있는 긍정적 주인공의 산 모범을 강조한다는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작품들은 현실교양에 직접 아바지하게 된다.

현실주제작품이 현대성을 높이 체현하게 되는 것은 현실생활이 시대의 정서와 미감을 직접 보여주기때문이다.

현실생활은 해당 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함께 그들의 다양하고도 풍부한 정서와 미감도 직접 보여준다.

현실주제작품에서 현대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이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혁명과 건설으로 불러일으키는 동원자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매 시기 제기되는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당정책이 빛나게 구현되는 혁명적 현실이다.

현실주제작품에는 그 어느 주체의 작품에서보다도 당정책이 민감하게 반영되며 당정책적 요구를 작품의 주제로 제때에 내세운다. 원래 문학작품은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시대의 절실한 인간문제를 제기할수 있다.

시대의 절실한 인간문제란 폐외없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문학예술은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시대정신도 옹바로 구현할수 있다.

시대정신은 당정책을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여 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정신, 혁명정신이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은 곧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것은 자주화를 위한 투쟁과 련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우리 인민들의 시대정신을 옹바로 반영할수 없으며 당정책관철에서 창조되는 숭고한 모범, 참다운 시대적 전형을 보여줄수 없다.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또한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수 있으며 시대의 미감과 지향을 옹게 구현하여 현대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중편소설 《불바람》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대건설방침과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받들고 현대적인 대규모의 흑색야금기지 제철소건설을 기한전에 완공하기 위하여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영웅적 로동계급의 혁명적인 생활과 투쟁을 그림으로써 시대의 정신과 미감을 구현하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앞장에 선 박진수와 같은 시대적 전형을 성과적으로 창조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진실하고도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었다.

이것은 현실주제작품에서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는것이 현대성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현대성을 구현하자면 다음으로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반영하며 3대혁명기수들과 숨은 영웅들의 전형을 옹게 형상하는것이다.

주체의 기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그리는것은 현대성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우리 문학예술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력사의 자주적 주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해나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고 그려냄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기체가 아니라 사람이며 위대한 생활을 어떤 한들의 특수한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자각한 수백만 근로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창조된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준다.

현실주제작품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결국 3대혁명기수들과 숨은 영웅들을 옹바로 형상하기 위한 현실적인 요구로 된다.

3대혁명의 기수들과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주체형의 새 인간들은 폐외없이 시대의 요구와 지향의 대변자, 옹호자들이다. 그들은 시대정신을 체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시대와 생활의 산 거울로 되고있다. 시대정신의 체현자인 3대혁명기수들과 숨은 영웅들은 생활과 투쟁의 참다운 본보기인것으로 하여 그들을 형상한 작품은 산 모범을 통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도록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 그것은 시대정신을 구현한 현실주제작품의 주인공들이 시대와 생활의 본보기로 되는 전형이라는 사상과 관련되어있다.

시대정신의 체현자인 3대혁명기수들과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사상정신적 특질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있는것이다.

3대혁명기수들과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주체형의 새 인간들은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있기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산 모범을 보여주는 시대정신의 체현자로 되는것이다.

이처럼 3대혁명기수들과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주체형의 새 인간들은 높은 사상정신적 풍모를 소유하고있는것만큼 현실주제의 작품에서는 시대정신의 체현자인 이러한 시대적 전형을 옹바로 내세우고 그들이 혁명실천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화하여나가는 과정,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하는 과정을 잘 그려야 한다.

예술영화 《청춘의 심장》은 당의 사상의지대로 살며 일하려는 3대혁명소조원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잘 형상하고있다. 이 작품은 배수리 15일체제를 세우는데서 절실하게 나서는 코베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는 3대혁명소조원 채숙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 특히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며 투쟁하는가를 생동한 산 모범으로 가르치고있다.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은 숨은 영웅 녀성 과학자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을 잘 보여준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개인의 명예나 그 어떤 특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수령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아버지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요구하는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춘도 사랑도 고스란히 과학탐구에 바쳐온 주인공 유설경의 형상은 사람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성다하도록 이끌어주는데서 산 모범으로 되고있다.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현대성을 옹게 구현하자면 다음으로 부정인물의 개조발전과정, 특히 개조이후의 생활을 잘 그려야 한다.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3대혁명기수나 숨은 영웅들과 같은 긍정적 주인공을 통하여 혁명화의 본모기를 보여주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정인물들의 개조과정, 특히 그의 개조이후의 생활을 잘 그리는것은 매우 중요한 교양적 의의를 가진다.

우선 부정인물의 개조과정, 혁명화과정을 잘 그려야 한다.

꾸준한 수양과 노력으로 자신을 혁명화해나가는 긍정적 주인공 혁명화의 본모기를 창조하는것과 뒤떨어진 사람들이 교양개조되는 과정, 혁명화되어가는 과정을 그리는것은 현실주제작품의 교양적 의의를 더욱 높여준다.

단결과 협조, 통일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긍정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부정인물이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과 생활습성을 가진 뒤떨어진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은 대체로 낡은 사상 잔재를 가지고있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옹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발전하는 현실에

서 뒤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부정은 주관적으로는 당을 따르려고 하지만 아직도 낡은 사상 잔재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사업과 생활에서 이러저러한 결함과 부족점을 발로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렇기때문에 현실주제의 작품에서는 부정인물, 뒤떨어진 사람들이 개조되는 과정, 혁명화되는 과정을 그려야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혁명화할수 있고 충성의 한길에서 참된 삶을 누리갈수 있다는것을 옹게 인식시킬수 있다.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는 또한 부정인물, 뒤떨어진 사람들의 개조이후의 생활을 잘 그려야 한다.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작품에서는 뒤떨어졌던 인물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것으로 작품을 마감짓기보다 그의 개조된 이후의 새롭고 보람찬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혁명적으로 생활하는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의있는것인가를 자연스럽게 리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주제의 작품에서 부정인물, 뒤떨어진 사람들의 운명처리, 개조이후의 생활을 잘 그리는것은 긍정의 의의를 돈구어줄뿐아니라 그자체로써도 사람들에게 주는 교양적 의의가 자못 크다.

우리 시대의 부정은 그가 계급적 원쑤가 아닌 이상 교양개조되기마련이다.

그러므로 개조된 인물이 긴장한 투쟁을 벌리면서 사업과 생활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는 보람찬 생활모습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현실에 있는 부정적 현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긍정적 모범으로 부정이 나아갈 길을 뚜렷하게 밝혀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보람차고 아름다운 생활을 적극 지향해나서도록 고무추동할수 있다.

이처럼 현실주제의 작품에서 부정인물, 뒤떨어진 사람들의 개조발전과정, 특히 개조이후의 생활을 잘 그리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발전의 합법칙성을 옹바로 인식시킬뿐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시대정신으로 숨쉬고 생활하며 참된 삶을 누리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도록 이끌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현대성을 옹바로 구현하자면 다음으로 전형적인 생활을 옹게 그려내야 한다.

현실주제의 작품이라고 하여 저절로 전형적인 생활을 담게 되는것은 아니다. 현실에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고있는 본질적인 전형적 생활도 있고 그렇지 못한것도 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상적 준비정도가 서로 다르고 그것이 생활에서 그대로 표현되기때문이다.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생활을 통하여 참다운 시대적 전형을 내세우고 그것을 성격형상으로

보여주려면 전형적인 생활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특히 시대정신의 높이에 서서 생활을 진실하게 그려야 시대정신의 체현자인 3 대혁명기수들과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주체형의 새 인간 전형을 성과적으로 창조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옳게 보여줄수 있다.

시대정신의 높이에 서서 생활을 진실하게 그려야 또한 시대의 지향을 옳게 보여줄수 있으며 생활에 대한 공산주의적 리상과 관점을 세워줄수 있으며 작품의 형상전반에서 현대성을 옳게 구현할수 있다.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시대를 특징짓는 전형적인 생활을 그려야 한다.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창작방법의 기본요구이다.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생활을 사실대로 생동하게 그려 그 본질을 천명한다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문학예술이 생활을 반영한다고 하여 결코 비본질적인것을 비롯하여 이러저러한 생활을 다 반영하는것은 아니다. 문학작품창작에서는 종자의 요

구와 형상적 의도에 맞는 본질적이고 전형적인 생활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대를 특징짓는 전형적인 생활이라고 할 때 그것은 시대의 본질을 안고 있는 생활이며 오늘 우리 시대, 주체시대를 특징짓는 전형적인 생활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나가는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속에서 벌어지는 생활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주체시대를 특징짓는 전형적인 생활을 진실하게 그려야 혁명적인 사고방식과 시대정신을 가진 공산주의적인 인간전형을 창조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다.

이처럼 현실주제작품에서 현대성을 옳게 구현하는 문제는 문학예술이 시대정신을 옳게 구현하여 대중교양의 역할을 최대한 높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창작가들은 시대와 혁명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현실주제의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므로 우리 문학예술의 현대성을 강화하고 교양적 역할을 더욱더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출격의 밤

림공식

출격을 앞둔 순간
문득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아름다운 별무리 별무리
나를 부르는것만 같아

정다운 미소를 대지에 남기고
하늘가에 날아오르면
달빛을 휘감고 칭칭 감겨드는
운무의 흰자락도 비행사 나를
기다린듯하구나

허나 이 아름다운 밤하늘과 정들어
내 하늘높이 날아올랐던가
이런 밤 이런 때면
눈아래 무수한 불빛들
나는 그 불빛들과 한밤을 속삭이네

나의 몸은 하늘중천
구름우에 날건만
나의 녀 나의 기쁨은
언제나 그 불빛들에 있어

내 마음속엔 아름다워라
내가 지키는 조국의 모든것
조국의 행복한 모든것 다 비긴
저 대지의 황홀한 불빛들이...

아, 어릴적
나의 아이가 나래쳐올라
녘과 꿈을 다 없던 하늘처럼
떠나온 대지는 오늘에
수호자 나의 운명도 미래도 다 있는
목숨같은 하늘이여라

평양의 마음 외 1 편

송명근

하얗게 깃을 치며 내리는 비둘기
구구구- 불러 모이를 주는
빨간 리본의 소녀
티없는 그 마음은 지금
축전광장 푸른 하늘을 날고있다

밤에 낮을 이어 들끓는 광복거리
안전띠를 매고 허공중을 날르는 청년돌격대원
대동강유보도를 다듬으며
구슬땀 흘리는 청춘들의 눈빛엔
꽃배 흐르고
친선의 물결 굽이칠 그날이 비꼈다

저 경기장 높은 지붕우에서
쏟아져 내리는 불보라, 불보라...
용접면을 얼굴에서 땀줄 모르는
저 가슴들에도
축포가 터져오른다
5 대륙 청년들과 팔걸고 웨치며 바라볼
경축의 축포, 환희의 축포가...

축전도시, 축전도시!
춤추는 분수를 다듬어세워도
푸른 잔디에 물조리를 기울여도
평양의 마음
반제의 한길에
평화와 친선의 꽃 활짝 피워
온 지구를 뒤덮을 마음이어!

그 마음은
전쟁의 쓰라림도 겪어보았고
핵구름 질은 저 남녘을 한강토에 둔 인민이
끓으며 불타며
지칠줄 모르고 창조하는 값비싼 재부!

오, 그 마음은
깊은밤 용접불빛에도 피어나고
거창한 경기장 은빛지붕우에
아찔한 광복거리의 총총우에
날마다 시각마다 키돋움하며
5 대륙을 향하여 손짓하고있다
손짓하고있다!

춤추자, 5 대륙의 벗들아

대동강 맑은물도 넘실거린다
5 대륙의 벗들아 함께 춤추자
언어는 달라도 손에손 잡으면
뜻으로 통하는 벗이 된다네

지구가 둥글어 끝이 없듯이
돌고돌아 끝없는 우리의 원무
돌고돌아 깊어가는 친선의 정이어
시작은 어데냐 그 끝은 어디?

춤추자 친근한 축전의 벗들아
만남은 즐겁고 벗은 소중한...

청춘의 사랑과 룬무의 무대
지구는 하나뿐인 우리모두의 집
그 누가 핵으로 폭파하려 하는가
손에손 잡고서 지구를 안자

굴러라 발구름, 땅을 울려라
하나의 곡조에 힘찬 발구름
제국주의전쟁을 짓부셔가는
단결은 승리! 단결은 평화다

춤추자 청춘들아 한번 잡은 손
놓지 않고 변함없을 벗들이 되자

세계의 랑심이 달려오는 푸른 대지우에서

리영준

푸른 물결 출렁이는 기슭은 그 어디나 깨끗하고 정답다.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열리는 평양으로 달려오는 5 대륙의 발구름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지금 나는 동해의 명승지 송도원의 백사장을 걷고있다.

언어와 피부색은 달라도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이라는 한결같은 리념을 안고 달려올 5 대륙의 청년학생들...

그날, 그들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안고갈까?...

나의 귀전에는 기슭을 적시는 파도소리가 먼 여운으로 사라지고 몇년전에 이 기슭에서 들던 여물지 못한 속삭임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하얀 도랑물이 흘러내리는 돌돌거림 같았다.

《리나! 그건 안돼!》

《왜? 난 가져갈래!》

《넌 그게 뭔지 알기나 하구 그러니?》

《왜 몰라, 기관총탄피지 뭐.》

《그걸 알면서두 가지구 가겠니. 조국에 돌아가서 부모들이랑 동무들에게 줄 기념품들도 다 마련되었는데.》

《...》

리나라는 소녀는 류달리 긴 속눈썹을 살쾅이 내리깔며 장미빛의 입술을 오무작거렸다. 먼 나라에서 온 금발머리의 소녀이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와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래일이면 조국으로 떠나야 할 소녀는 그사이 정들었던 모래불로 나왔다가 기관총탄피를 얻었던모양이다. 아마도 지난밤에 폭우가 내리더니 수십년간 모래불에 묻혀있던 탄피를 드러낸것 같았다.

팔에 분단위원장의 표식을 단 앵두볼의 소년은 탄피를 버리라고 했지만 리나는 고집이 여간 아니었다. 그는 녹이 쓸긴 했어도 노란 퇴판이 유표한 탄피를 꼭 잡은채 머리만 살래살래 흔들었다. 앵두볼은 리나의 귀에 대고 무엇인가 속삭거렸다. 그래도 소녀는 여전히 머리를 흔들었다.

《에참, 넌 그게 어떤건지 알기나 하니?》

앵두볼은 말허리를 끊으며 돌아섰다.

정적이 깃들었다.

노을이 물든 붉은바다, 탁 러뜨린 붉은 꽃보라

마냥 풍겨 날리는 갈매기무리, 푸른 솔밭, 도래굽이를 달려간 따뜻한 모래불엔 호합진 해당화가 떨기떨기 불타고있을뿐.

이 아름다운 대지와 녹슨 미국제 탄피...

소녀는 지금 저주로운 그 탄피를 보며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가.

이 땅을 태우던 전쟁의 불길을 그려보는가, 침략자를 타승한 억센 심장들에 대하여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어울리지 않는 그 탄피를 두고 단순한 호기심을 굴러보는것일까.

그 처녀애는 무척 어리고 천진한 나이이다. 단순한 호기심과 의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이이다. 그러나 머지 않아 그는 깨닫게 될것이다.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고 반제투쟁의 진두에 선 이 나라에 대하여, 영웅적 인민에 대하여 잘 알게 될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싶다.

아! 내 어린 시절 푸른 하늘 향해 두발 디디고 설때 자갈처럼 밟히웠던 뜨거운 탄피! 그 탄피가 저 금발머리소녀의 고운 손을 따갑게 지저대지는 않았는가!

두 소년은 채 끝맺지 못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나란히 걸어간다. 야영의 나날 아름다운 꿈을 키우던 바다기슭을 따라...

어느덧 사위는 어두워졌다. 그 애들이 저녁노을을 데리고 간것 같다.

오늘 평양으로 향하는 5 대륙 청년학생들의 발구름소리가 각일각 가까와지는 소리를 들으며 파도 일렁이는 모래불을 내 다시 걷고있음은 무엇때문인가. 그날 탄피를 주어들고 이 기슭을 걸어가던 리나와 앵두볼의 그 애들때문은 아닌가.

그렇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나간 폐허우에 짙게 서렸던 포연을 가시며 평화의 노래로 첫 막을 올렸던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정상적인 궤도를 달려 조선에 이르렀다.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굴복시킨 영웅의 땅에서 열세번째의 회합을 가지게 되는 세계청년학생축전은 핵전쟁의 위험이 극한점에 이르고있는 오늘 더없이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니 이 땅의 공민이 어찌 흥분되지 않으랴.

나는 그들에게 리나와 앵두볼의 소년에 대하여,

그들이 탄피를 주어진 이 푸른 대지가 39 년전 전쟁의 그날엔 한대의 가로수, 한장의 벽돌, 목추길 한모금의 맑은 물마저 찾아보기 힘든 폐허였다고 이야기해주리라.

그다음엔 심장을 터쳐 말하리라. 이 푸른 행성에 다시는 신천의 참화나 오스벤뎀과 히로시마, 나가사키, 비키니섬과 같은 흑점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네바다주에서 울리는 핵폭발의 끊임없는 굉음과 버섯모양의 구름을 푸른 하늘에서 영영 지워버려야 한다고!

조선을 향해 달려오는 5 대륙 청년학생들의 발구름소리는 점점 가까와진다. 그들속엔 리나와 앵두불의 소년도 보인다. 아니 이제는 그들도 어엿한 청년이 되어 이번 축전에 참가할것이다.

그들을 마음속으로 마중해가는 나의 백사장길도 어느덧 끝이 난다.

돌아보니 멀리 찍히운 발자국은 보이지 않고 이제 금방 찍히운 발자욱만이 질어가는 어둠속에 또렷하다.

썩아!- 파도가 밀려오며 이제 금방 찍히운 나의 발자욱을 데리고 가버린다. 모래불은 금시 깨끗해 졌다. 물이 찌며 반짝거리는 기슭엔 내 홀로 남았다. 파도는 노래도 지을줄 알며 사람의 가슴에 흘러드는 신묘한 제주도 가지고있다.

아! 푸른 바다여, 내자신 파도되어 기슭을 적시고싶다. 그리고 웨치고싶다.

우리의 푸른 대지로 오라!

우리에게 전쟁을 이긴 평화의 노래가 있다.

소조원의 걸음

로영우

빈포기 생기면 마음의 흠이 될듯싶어
보식모춤 쥐었는가
모내는 기계의 음향 앞세우고
논판을 걸어가는 소조원처녀

가쁜히 자리잡은 벼포기들이
랭상모판에서 낮을 익혔다고
누나, 소리쳐 부를듯
파란 잎새 하늘거리고

잘 자라거라, 그 목소리 금시 울릴듯
처녀의 입가에 흐르는 미소
정이 든 들바람도
벼포기들을 어루쓰다듬으며
소조원을 따라서고

아무렴
고르롭게 물써레도 잘 쳐놓았으니
기계정비도 잘하고
모도 튼튼히 자라왔으니
빈포기 있을라구

사래 긴이랑 끝날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한줌의 보식모춤
걸을수록 눈가엔 기쁨이 출렁
들가득 어리는 환희로운 얼굴

아, 나는 본다
그 모습, 그 걸음새에서
소조원을 닮은 농장의 마음
당의 뜻 꽃피가는
농장의 큰 걸음을

가사

일편단심 만수무강 바라웁니다

김아필

어버이수령님이 안겨주신 그 뜻으로
총련의 애국위업 대를 이어 꽃피우시네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러
칠십만은 영원한 행복을 노래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그 사랑을
동포들의 가슴마다 해빛처럼 안겨주시네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러
칠십만은 끝없는 영광을 노래합니다

주체의 내 조국을 온 세상에 빛내시며
공화국 해외공민 영예를 떨쳐주시네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러
칠십만은 일편단심 만수무강 바라웁니다

조국의 휴양소를 떠나면서

김윤희

문을 여니
솔솔 푸른 송도원야영소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갈매기 벗삼아 헤쳐온
동해의 물결도
조국의 마지막밤을 보내는 이 가슴에
치밀어오르는 뜨거움을 안겨주는가

아, 조국에서 보내던 즐거운 나날들이
천만이랑 물결우에 실려
내 가슴에 안겨오는듯

차레지는 사랑은
여기 조국땅에서 보내온 나날들을
곱게 수놓아주었더라

길을 거닐어 산책을 할 때면
가벼운 바람조차 나를 안아주고
길가의 나무들이랑 못꽃들도
정다웁게 나를 반겨주던 이곳

기간은 짧았으나
따사로운 그 사랑에
나의 가슴은 마냥 설레이기만 했고
넘치는 그 은정에
북받치는 내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거니

잠을 자다가도 문득 깨어나

뜨거운 그 사랑에
잠 못이룬 밤도 한두번이 아니었어라

이국의 하늘 어두운 밤에
창문 열고 우려했던
조국의 하늘아래서
뜨거운 사랑속에 휴양을 즐기다니

알지 못했어라 이국땅에서는
꿈에조차 생각 못했어라
이국의 하늘아래서는
우리에게 이같은 즐거움 안겨질줄이야

고마움에 목메이면 목메일수록
뜨거운 열정 내 가슴에 불타오르거니
내 말은 초소
주체의 해외대학 더욱 빛내여
이 사랑, 이 은정에
보답하리라는 굳은 한마음

래일이면 떠나야 할 아쉬운 마음
억누르지 못하건만
밤은 깊어만 가고
하늘에는 못별들이 반짝이는데
내 그 언제인가

불타는 충성 가슴에 안고
다시 찾아올 그날을 되새기며
창문을 닫는다

진리

김송이

1

롱구런습을 끝내고 5층교원실에 올라온 임미의 몸은 온통 땀투성이였다. 큰키에 날씬한 그의 몸매는 체육복이 잘 어울리였다. 긴 머리칼은 하나로 쓸어올려 묶었는데 귀밑머리에서는 김이 문문 오르고있었다.

《선생님, 절 부르셨어요?》

《거기 좀 앉어라. 숨이 찬 모양이구나.》

교원 리신수는 맞은편에 결상을 밀어주며 애정 어린 표정으로 나직이 말했다. .

《예.》

임미는 이마전의 땀을 수건으로 훔치면서 발랄하게 웃었다. 그는 공부도 잘하고 언제나 끈고 정직한 성격이어서 학급동무들과 선생님들에게서 남다른 사랑을 받고있었다.

《임미, 래일 교장선생님께서 아침모임때 발표하시겠지만 우리 반이...》

신수가 말끝을 맺기도전에 임미는 벌써 눈을 반짝거리며 환희에 넘쳐 소리쳤다.

《선생님, 우리 학급이 〈모범반〉이 되었던말이지요?》

《그래 너희들이 조청사업을 잘했다. 성적도 많이 제고시키고...》

《야!- 선생님, 그럼 우리 반이 모두 조국에 갈수 있지요!》

언제나 자기의 감정을 숨김없이 나타내는 임미는 두손을 쳐들고 만세나 부르듯 기뻐하며 떠들었다.

《임미.》

《예?》

임미는 그제서야 자기의 기쁨에 비하면 웬일인지 그늘져보이는 담임선생님의 눈빛을 느끼고 주춤거렸다.

《임미, 실은 국적문제때문에 너를 불렀다. 어째서 우리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너의 부모는 국적을 고치지 않았을가?...》

《...》

순간 임미의 눈에서 반짝이던 환희의 불꽃은 불시에 꺼졌다.

《임미, 일본국적은 조선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재입국허가를 받는데 웅근 한달은 걸린다. 우리 학급이 타고갈 배는 2주일후에 떠나게 된다.

그러니...》

《선생님, 그럼 저는 못...》

갑자기 임미의 입귀가 실룩거리더니 눈물이 뺨을 따라 줄을 그리며 떨어졌다.

《임미, 학교에서는 지금 너도 같이 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못갈수 있다는것을 생각해줘.》

《...》

임미의 머리는 점점 숙여졌다.

《임미학생,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 응 꼭 안된다는건 아니니까. 본부가 여러 연줄을 통해 사업할테니... 우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도 방조를 아끼지 않고...》

교원 신수는 소리없이 울고있는 임미에게 이런 저런 가능성들을 다 들어가며 위로하였다. 그러나 임미의 귀에는 마주앉은 선생님의 애정어린 말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지금 그의 머리속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못갈수 있다.》는 소리만이 줄곧 확성기에서처럼 웅웅 울리고있었다.

《임미야, 그럼 안돼, 힘을 내야지...》

《...》

《임미, 먼저 돌아가거라. 나도 곧 뒤따라 너의 집에 들리겠다.》

임미는 어깨가 축 처져서 교원실을 나왔다. 벌써 학교운동장에는 저녁어스름이 스며들고있었다.

조용한 운동장을 지나 학교정문을 나서는 그의 눈앞에는 영예의 《모범반》을 쟁취하기 위하여 전개하던 여러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을 따라 배우는 운동, 서명운동, 성적제고운동, 가두선전, 무지각 무결석 100 프로운동, 대렬확대운동...

(그런데... 온 학급 전원이 그리운 조국에 가는데 유독 나만 못간단말인가...)

임미는 형언할수 없는 슬픔과 피로움에 모대기며 눈물을 머금고 집을 향해 걸어갔다.

2

《무엇이 어째? ...일본국적은 안된다? 그렇다면 그만뒤!》

벌써 화술이 돈 임미의 아버지-태근의 관자노리가 팔딱팔딱 뛰었다.

임미는 아무말없이 아버지의 모습을 쏘보고있

었다.

태근은 부유하지 못한 생활속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에는 남다른 관심을 돌려 무탈하고 곱게 키웠으며 학교사업을 위해서라면 돈도 아낄줄 몰랐다. 그는 비가 와서 미장질을 못할 때면 초급부를 다니는 두 아들을 기다렸다가 사내애들이 즐기는 장수들의 옛이야기를 들려주곤하던 그런 무던한 아버지였다. 그러나 술이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이 판판 달라져 까닭없이 마누라를 꾸짖거나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아이들에게도 고래고래 고향을 지르는 참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었다.

(정말 야속하구나 우리 아버지...)

임미는 이제 곧 담임선생님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니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침착하게 인사하며 담임리신수가 방안으로 들어섰다.

《선생님, 이걸 너무합니다. 국적이 뭐기에 이렇게 애들한테까지...》

신수가 다다미위에 앉기가바쁘게 태근은 걱정을 누르지 못한 어조로 내뱉었다.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님, 물론입니다. 사실 임미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일본의 법이 그렇게 돼먹어서...》

《선생님, 일본에 사는데 어쩌서 일본국적이 걸리는가말입니다.》

일본사회에 대해서 감감 어두운 질문에 담임교원 신수는 어이없는듯 한참 말없이 있다가 앉은새를 고치며 타이르는 조로 나직이 말했다.

《아버님, 일본이 아직 우리에게 대하여 공공연히 적대시정책을 쓰고있으니 그런것입니다. 국교가 없는 속에서 일본에 있는 우리 민족 모든 사람들이 조선에 자유로이 오갈수 있도록 하자고 우리 조국도 총련조직도 막 투쟁을 하고있지만 현재는 기성의 법을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취기가 오른속에서도 귀여운 딸의 문제라 태근은 담임교원의 말을 한마디 놓침없이 바싹 긴장하여 들었다. 그리고는 탄식조로 《후-》 하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피로움에 시달리는 그의 손이 술잔에서 담배로 간단없이 오고갔다.

《에이 참, 고약하게 됐군.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벌써 국적을 바꾸었을건데... 참...》

태근은 자기자신을 탓하듯 연거퍼 술잔을 들어들이켰다.

임미는 그러는 아버지가 못건디게 미웠다.

(어쩌면 저렇게도 표리가 부동할수 있을까?)

그는 방금전 자기앞에서 하던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니 노여웁기 그지없었던것이다.

태근이와 마주앉은 담임교원 신수는 임미를 담임한 지난 4월이래 제 마음속에 품어오던 의문을 이제 여기서 풀어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있었다.

《아버님, 그런데 어쩌서 이때까지 등록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하도 생활이 바빠와서 래일, 래일하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만 이렇게 됐지요.》

대수롭지 않게 내뱉는 태근의 말소리는 신수에게 불쾌하게 들렸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감정을 누르며 조용히 다시 물었다.

《그럼 다른 이유는 없고 그저 시간이 없어서 국적을 바꾸지 못했습니까?》

《그렇지요.》

태근의 어조며 표정은 여전히 태연하였다.

《호적이 흑가이도에 있는데... 바꾸자면 거기까지 가야 한단 말입니다.》

(거짓말쟁이... 무슨 시간과 날자타령이예요? 선생님, 아버지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임미는 마음속으로 웨쳤다.

담임교원 신수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는것을 느끼고있었다. 그러나 얼근히 취기가 오른 태근을 상대로 하여 까근까근 캐묻는것도 멧적고 한편 밍도 깊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선생님, 이상하게도 제생활은 꼬이기만 합니다. 아무튼 다 내탓이니 이 아비를 탓하고 제말은 용서해주시오. 이번에 학급애들과 함께 딸애도 가도록 힘써주십시오.》

현관에서 신을 신은 담임에게 태근은 따라서며 말했다. 담임 신수는 본부며 학교가 지금 최대한 사업하고있다고 말하면서 떠나갔다.

《아버지, 아까 저에게 하던 말과 선생님한테한 말이 왜 판판 달라요?》

담임이 돌아가자바람으로 임미는 마뜩잖은 눈길로 아버지를 향해 걸기있게 말했다.

《응당한거야. 아무리 담임이라 하여도 남은 남이야.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제속을 드러내보일수는 없어!》

태근은 톱박톱박 명확한 어조로 잘라 말했다.

《아버지,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네?... 어쩌면 그럴수 있어요!》

태어나서 여태껏 아버지앞에서 순종밖에 모르던 임미는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자기자신도 놀랐다. 지금 그의 가슴속에서는 하나의 심장이 아니라 여러개의 심장이 일시에 쿵쿵 뛰는 듯했다.

《그게 무슨 말본새야? 일본국적으로 갈수 있

으면 다행이고 못가면 그만이야. 그렇다고 국적을 바꿀 생각은 아예 그만둬!-》

《아버지!-》

《정신만 바로 가지면 되는거야. 조선의 정신 말이야!-》

태근은 또다시 고향을 치며 욕을 퍼붓고싶었으나 눈물이 가랑가랑 맺힌 사랑하는 딸애의 얼굴을 보면서 가까스로 격정을 눌렀다. 그리고는 분을 삭이듯 씹씹거리다가 안해가 퍼준 이불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조금후에 푸푸 풀무를 불기 시작하였다. 잠의 깊은 나락에 빠져든것이다.

옆방에서 어머니와 같이 자리에 누운 임미는 자정이 넘도록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자기앞에서 아버지가 한 말, 그리고 담임선생님앞에서 한 말은 전혀 판이한 내용의 말이었다. 임미는 처음으로 본 아버지의 2중성으로 하여 크나큰 실망에 빠졌다.

(난 여태까지 술을 제외하고는 아버지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을 그대로 믿었고 존경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두고 아버지의 2중성을 어떻게 봐야 옳은가?...)

옆방에서 아버지의 드렁드렁 요란스레 코고는 소리가 들린다.

(나의 생각마저 방해할 하는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 그래, 아버지의 진짜 속심은 무엇이었어요?...)

임미는 어머니쪽으로 모로 뒹배였다. 그의 눈앞에는 깊이 잠든 어머니의 뒤통리가 보였다.

(어머니, 피롭지요?... 어머니, 국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미는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피로운 밤을 궁싹거리면서 뜬눈으로 밝혔다.

3

다음날.

임미는 보통때보다 좀 일찍 학교에서 돌아왔다.

《임미나?...》

어머니는 웬일인지 수심이 비낀 눈길로 임미를 맞이했다.

《임미야, 오늘 아침에 왜 지각했니?...》

《네?》

임미는 가방을 든채 놀란 어조로 말하며 방문으로 들어섰다.

《담임선생님이 네가 학교에 아직 도착 안했다고 연락을 띄웠더라.》

주근깨가 다닥다닥 돋아난 어머니의 얼굴이 어쩔지 해쓱하게 보이였다. 표나도록 오목하게 들

어 간 어머니의 눈을 임미는 얼른 피하였다. 때로 엄습하는 고생스러운 생활의 갈피에서 자기의 피로움보다 어머니의 피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임미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배가 좀 아파서 역홀에서 쉬다가 갔어요.》

복잡하게 엉킨 마음의 정리를 아직 못했던 임미는 고모네 집에 들렀다가 학교에 가느라고 지각한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임미야, 그 어떤 일이건 우리는 서로 조용히 의논하군했지. 지금껏 그렇게 하지 않았니?》

어머니는 깊은 상심으로 하여 고민하는 딸에게 어머니된 립장에서 방조를 주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저 솟구치는 모성애를 담아 한마디씩 힘주어 말하였다.

《어머니!...》

푹푹 속깊이에 배이는 어머니의 살뜰한 정이 마쳐와 임미의 가슴은 찌르르 저려올랐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는 함바식모로 장알이 박힌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어머니, 목욕하고 오겠어요.》

임미는 대야를 들고 집을 나섰다. 가까운 거리에 새로 지은 목욕탕이 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식사하고 곤히 잠들 시간까지 돌아가지 않을 작정으로 한증탕에 들어갔다. 얼마후 임미가 이제 마지막 한증탕에 들어갔을 때였다. 그의 옆에 앉은 일본아주머니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소리가 귀에 솔깃이 들어왔다.

《남조선이란 이상야릇해!》

《거 뭐라고 하는가? 눈물이 막 나는 폭탄?》

《최루탄말이지.》

《그래 그 최루탄을 쏘면 나무들이 말라죽고 새들도 숨막혀 죽는다는데...》

《학생들이 너무하니까 경찰이 그걸 쓰지.》

《글쎄 가만히 공부나 하지, 부모들이 비싼 학비를 대는데...》

임미는 정의로운 조선의 피가 솟구쳐올라 더는 가만히 듣고있을수 없었다. 그는 폭발하려는 자기의 격분을 간신히 누르며 나직이, 그러나 명확한 어조로 말했다.

《아주머니들, 그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우리 조선청년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주고받던 일본녀인들이 일시에 놀라듯 임미를 바라보았다.

《저는 조선사람이기때문에 그들, 남조선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왜 것처럼 투쟁하고있는가를 알

고 있어요.》

《아-그래요. 당신은 남조선사람인가요?》

《저는 조선사람이에요!》

임미는 남조선피뢰들의 악정, 미제의 본성 등을 아는껏 력설하였다.

《그래요? 우린 몰랐구만.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일본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곱절을 해가며 사죄하였다.

《정확히 알았다니 저도 기뻐요. 남조선 대학생들은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고있어요.》

한증탕안의 모래시계를 보니 들어간지 벌써 1분을 넘고있었다. 온 체내의 수분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게다가 내내 이야기를 하고있었으니 입안이 짹짹하게 말라붙어 침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땀수탕에 들어가 갈증이 난 목을 추겼다.

차디찬 물에 후끈단 몸을 식히니 기분은 날아갈것만 같았다. 게다가 수명의 일본녀인들한테 남조선정세를 똑바로 알려준것으로 마음은 흐뭇하였다. 그는 자못 상쾌한 기분으로 목욕탕을 나섰다. 그리고 축축히 젖은 머리칼을 서늘한 바람결에 날리며 가벼운 걸음으로 밤길을 걸었다. 어느새 집에 이른 그는 살며시 문을 열고 조용히 현관에 들어섰다. 뜻밖에도 아버지가 기다리고있었다.

《여기 않아라.》

임미는 현관 대돌에 대야를 놓고 소리없이 아버지앞에 앉았다.

《애, 어째서 오늘 학교에 지각했니?》

《...》

《바른대로 말해라! 지금까지 몇년간 지각 한 번 없는 네가 무슨 리유로 오늘 그런 오점을 남겼는가? ... 말해라.》

《...》

임미는 그냥 침묵했다.

《왜 말을 못해?》

일은 임미가 목욕탕에 갔을 때 일어났었다. 아침에 뜻밖에도 조카의 방문을 받은 고모 갑순은 갑수성이 강하고 상하기 쉬운 사춘기의 조카딸을 걱정하여 동생 태근에게 전화를 건것이였다.

방안의 분위기에서 이제 들장났음을 임미는 빠르게 감각했다. 그는 마지못해 시들하게 말했다.

《고모집에 갔드랬어요.》

《무슨 리유로 학교에 지각하면서까지 아침에 들렀는가말이야?》

《...》

《좀 조용히 말해요. 임미에게도 무슨 신중한

생각이 있었겠지요.》

어머니는 딸을 두둔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태근의 화를 더 돋구었다.

《당신이 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멋대로 돌아치는거요.》

《여보, 밤도 깊었는데 래일 이야기하면 안되우?...》

너그러운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은 임미는 아버지를 마주 바라보며 마뜩치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고싶어 고모한테 들렸어요!》

《뭐라구?!...》

태근은 어이없어 말을 못하고 한동안 임미를 바라보기만 했다.

《나한테 묻지 않고 왜 고모한테 물었니?》

《아버지는 믿지 못하겠어요.》

《뭐야?!...》

태근의 목소리는 순간 비약하듯 높아졌다. 그랬으나 임미는 아랑곳없이 입심을 부렸다.

《아버지를 믿지 못하겠어요.》

《닥쳐!...》

고함소리와 동시에 태근의 손은 임미의 볼을 때렸다.

《아이고, 당신 정말... 임미야,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나? 잘못하였다고 하여라!》

임미의 어머니는 어쩔바를 몰라 허둥거리며 남편과 딸애사이에 끼여들었다.

《싫어요 전... 그럴바엔 집을 나가고 말겠어요!》

《임미야!-》

태근은 뻥 돌아서 나가는 딸을 분노와 경악의 눈으로 쳐다보았다.

《음...》

그는 한동안 낯을 찌프리고 잠잠히 앉아있었다. 아이들이란 부모 모르게 자라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서글프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였던것이다.

《여보, 내 좀 나갔다고겠어요.》

집을 나선 모녀는 공원의 긴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임미야, 너 춥지 않니?》

《일없어요.》

《임미야!》

어머니는 딸애의 마음을 농쳐주려고 빙그레 웃었다.

《네가 벌써 다 자랐구나. 하지만 지나치게 당돌해선 안된다.》

봉건적이라 할만치 남편에게 순종만 해온 그는

남편한테 자기 의견을 내달만한 용단이 부족했다.

《자, 임미야, 그만 집으로 들어가자. 지금 너의 아버지는...》

《...》

《또 화술을 마시고 뿔아떨어졌을게다.》

《어머니!...》

《응...》

그들 모녀는 깊어가는 밤의 공원에 오랜 시간 앉아있었다.

4

집안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면 그렇게 정해진것처럼 식구들의 말수가 적어진다. 어느때 아침이면 학교갈 준비를 서두르는 임미의 동생들인 진삼, 진환이들의 학습도구를 찾는 청높은 목소리가 방안을 요란스레 울리곤하였는데 오늘은 둘다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느라 잠잠했다. 그 바람에 아침식사도 빨리 끝나 여럿은 보통날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임미는 학교로 가는 전차안에서 신문을 펼쳤다. 신문에는 《36 개의 대학에서 일제히 시위》란 큰 제목을 단 남조선기사가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있었다.

(그들은 오늘도 계속하여 목숨걸고 싸우고있구나!-)

임미의 머리속에는 남조선청년들이 목숨걸고 싸우고있는 서울의 거리들이 격렬한 화폭으로 펼쳐졌다. 그 화폭앞에서 그는 어쩐지 자신이 비겁하게만 생각되었다.

(그래 아버지가 이른대로 마음만 조선사람이면 되는가? ... 국적이 일본인데도?... 아버지의 진짜 속심은?...)

이러한 의문들이 련속 머리속에서 맴돌았으나 그 어떤 명확한 대답은 도무지 찾을길이 없었다.

마지막 수업시간이 끝나자 교실은 조국에 갈 준비로 흥겹게 들끓었다. 노래집을 만드는 조, 기록장을 인쇄하는 조, 해설집을 편집하는 조, ... 임미는 한쪽에 활기없이 앉아있다가 어머니의 병을 구실로 빠져나왔다. 그는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고독과 피로움을 느꼈다. 어떻게 학교정문을 나서고 언제 집앞에 도착했는지도 몰랐다. 집앞에 이른 그는 무의식적으로 열쇠를 열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놀래였다. 누군가 쇠를 열고 방안에 있었던것이다.

(어머니인가?...)

방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임미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어쩐지 신음소리처럼 들렸다.

임미는 나직이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섰다.

《?...》

아버지는 자리를 펴고 꼼짝 않고 누워있었다.

《어디 편찮으신가요?》

《허리를 좀 다쳤다.》

이날 태근은 새로 건설중인 고층살림집의 미장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켰었다. 한쪽 벽면의 미장을 끝내고 다른쪽 벽면으로 이동하던 그는 충충대에 발을 헛디디어 그만 어쩔사이없이 나자빠진것이었다. 큰 사고는 아니였지만 허리에 충격을 받아 쿡쿡 찌시었다. 태근은 아까부터 줄곧 사고의 원인을 생각하고있었다.

(음, 요새 줄곧 임미의 생각을 하느라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은 뒤숭숭하고... 내가 요새 왜 이렇게 허둥거리는가?...)

그는 힘겹게 몸을 뒤쳐어 베개에다 턱을 고이고 담배를 피워물었다. 부엌에서는 호박을 썰는 임미의 서투른 칼도마소리가 들려왔다.

(저 애는 우리 교육을 11 년이나 받아왔지. 그러니 자기 생각도 있을것만은 사실이고... 그러나 아직은 어려. 이제 내 허리가 나으면 꼭 마주앉아 신중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칼도마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오고있었다.

5

3일후의 저녁이었다.

《여, 한잔하러 가지 않겠소?》

이틀간 집에 누워있다가 일터에 나온 태근에게 미장질을 같이하는 일본동료가 오른손으로 입에다 술잔을 갖다대는 흥내를 내면서 말했다.

《미안하오. 아직은 허리를 찜질해야 하니 오늘은 못가겠소.》

태근은 이렇게 잘라 말하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앞에서, 특히 임미에게 행복에 대한 나의 견해를 털어놓고 말해줘야지. 그러면 임미는 석연하게 이해할것이니까-)

그는 병원에 들리지도 않고 그길로 집에 들어섰다.

그날저녁 오래간만에 가족 다섯이 밥상에 둘러앉았다. 어느때 같으면 이런 시각이 가장 단란하고 즐거운 한때가 될것이었지만 모두 말한마디 없이 밥을 먹었다. 진삼, 진환이들은 슬며시 숟가락을 놓고 숙제를 하는등마는등 하더니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여보, 좀 들어와 앉소.》

태근은 부엌에 있는 안해를 불렀다. 그리고 임미에게도 여느때없이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너도 여기 와 앉아라.》

태근은 마음먹은대로 이야기를 할 심산이었다. 모녀가 태근이앞에 앉자 그는 침착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임미, 잘 들어라. 나는 네 나이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소원을 성취할수 없었다. 그 이유가 뭐였던지 알겠니? 조선사람이라는 단지 그 한가지 이유로 추천도 해주지 않았다. 희망이 무참하게 짓밟히자 나는 그만 너무도 억울해서 며칠밤 울기만했다...》

태근은 담배를 깊이 빨고 후- 그 시절의 고뇌를 보여주듯 길게 연기를 뿜었다.

《나는 내 운명을 저주하면서 막로동을 시작했다. 학교는 커녕 사실은 먹고 살아나기도 힘들었으니까-》

그는 일어서서 속이 답답한듯 창문을 뚫고 열었다. 5월초의 산뜻한 밤바람이 방안으로 흘러들었다.

《임미야, 아버지의 청년기에 비하면 그래도 너희들은 살기가 나아진셈이다. 일본사람들속에서도 우리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같이 나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꽤 늘어났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1 억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사람이 이 일본땅에서 잘살기 위해선 일본국적이 제일이야. 정신만 똑똑하면 등록증이건 국적이건 무슨 상관이었느냐. 아버지는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것인가 하는것이다. 지난 시기 조선사람이란탓으로 쓰라린 멸시와 온갖 차별을 받아왔지. 난 지금 생각만해도 지긋지긋하다. 임미야, 명심해듣거라. 이 일본땅에서 살면서는 현재 유리한건 모조리 리용해야 하느니라. 이건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눈물속에 얻은 교훈이란다!...》

태근은 얼마간 흥분한 어조로 말끝을 맺고는 언저시 임미를 바라보았다.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신중한 표정으로 듣고있던 임미는 얼굴들었다. 그리고 한결 밝아진 눈빛으로 태근을 마주보았다.

《아버지, 그러니 결국 우리들의 장래를 위해 국적을 일본으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오냐, 그렇다. 아버지는 너희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산다면... 너희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뿐이다.》

태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부모들도 그랬고 나나 너의 어머니도 지지리 고생만 하며 살았지. 허나 너희들만은...》

《아버지, 우리들의 국적이 왜 일본으로 되어 있는지 잘 알았어요. 우리들의 앞날을 헤아려주는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잘 알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렇지만 아버지!-》

임미는 어찌선지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이 꼭 메여 말을 계속할수 없었다. 천대와 멸시,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면서 살아온 아버지, 자식들에게만은 그런 천대, 그런 멸시, 그런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눈물겨운 과거를 알고고도 해보지 않았던 자신을 생각하느라니 까닭모르게 눈물이 솟구쳤다. 그러나 동시에 임미의 머리속에는 아버지의 그릇되고 정당하지 못한 생각을 지금 여기서 깨우쳐 줘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이 떠올랐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바라는대로 지금도 행복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행복하지 못할것이에요. 일본국적을 가지고 사는 한 저의 마음은 언제나 피로울것이니깐요!》

태근은 놀라듯 눈을 크게 뜨고 임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을 못했다.

임미는 흐느끼며, 그러나 확고한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아버지, 아버지가 말하는 행복이란 뭐예요? 그건 한갓 개인의 물질적 행복만을 말하는것이지요. 아버지, 대답해주세요. 우리가 왜놈들의 《동화정책》에 넘어가 일본국적을 가지고 살면서도 물질의 행복이 차례지면...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러자 지금껏 묵묵히 담배만 피우고있던 태근은 더는 침묵하고있을수 없는듯 담배를 비벼끄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아직 인간생활을 몰라!... 이역땅에서의 우리 생활이 쉬운줄 알아? 네가 이제 어른이 되면 세상의 쓴맛 단맛 다 본 아버지의 말을 리해하게 될게야!-》

태근의 목소리는 높았으나 웬일인지 자기자신도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

임미의 자신있는 목소리가 다시 방을 울렸다.

《지금 이 시각도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은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어요. 그들이 무엇때문에 목숨을 바치며 싸우고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만해라!-》

태근은 버럭 성을 내며 웨쳤으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아버지, 한마디만 더하겠어요. 조국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조국이 슬플 때 우리도 슬퍼하고 조국을 위하여 살며 배우는 그속에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재일동포들의 생활의 진리예요!-》

임미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것들을 상기하면서 힘껏 이야기하였다. 자기로써도 놀랄만큼 순조롭게 말이 나왔다.

《...》

《아버지, 우리는 조선사람이에요. 모든것은 옛 날과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에게겐 조국이 있어요.

저는 조국을 위하여 사는 조선청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뿔때문에 남의 국적에 묻혀 살아야만 한단 말이에요.-》

《후!...》

태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없이 담배를 다시 피워물었다.

6

비가 내리고있었다. 보슬비였다. 태근은 일을 끝내고 우산도 없이 그냥 집으로 향했다. 지금 그는 걷고싶었다. 무엇인가 줄곧 생각에 잠기고 싶고 그러다가 일단 임미의 생각에 이르면 안절부절 하게 되는 그였다. 그는 옷이 젖는줄도 감각 못하고 그냥 비속을 걸었다. 생각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자신심이 없어졌다.

(조국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조국이 슬플 때 우리도 슬퍼하고...이것은 우리 재일동포들의 생활의 진리예요!)

임미의 절절한 목소리는 예리한 칼날처럼 태근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피로운듯 주춤거리고 섰다가 자기도 모르게 길가의 빠짱꼬점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기분이 개운치 않을 때는 빠짱꼬알도 잘 들어가지 않는 법이어서 그는 잠간사이에 5천원을 떼우고 점방을 나왔다.

《제길!...》

그는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나서 허거프게 웃었다.

바로 그때였다.

다이꼬꾸쪼에서 동무들과 헤어진 임미는 지하철도계단을 오르다가 신호관 저편에 서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처진 어깨며 비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아버지의 뒤모습을 본 임미의 발걸음은 못박힌듯 멈추어졌다. 그전날 같으면 《아버지!》하고 뛰어가 젖은 아버지의 머리에 우산을 받쳐드렸을것이였지만 지금은 선뜻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랬으나 임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

의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갔다.

《아버지!-》

임미는 나직이 상냥한 목소리로 불렀다. 태근은 등뒤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얼핏 돌아보았다.

《응, 임미로구나, 지금 오느냐?》

《네 아버지, 옷이 젖었어요.》

임미는 아버지의 머리에 우산을 받쳐드렸다.

《아버지, 빠짱꼬에서 떼웠군요.》

《허,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얼굴에 다 찍혀있는걸요.》

임미의 맑은 웃음소리를 듣는 태근의 무겁던 마음은 불시에 밝아지는것 같았다.

《아버지!-》

오랜만에 한우산밑에서 걷는 딸애의 목소리는 썩 정겹게 들렸다.

《아버지, 조국을 떠난 행복이란 있을수 없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국적을 고쳐주세요.》

《...》

《저는 요사이 부끄러워 학교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녀요.》

태근은 묵묵히 걸기만 하였다. 오래동안 침묵하고있던 그는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나도 요즘 너희들의 행복에 대해서 줄곧 생각해보았다. 임미야, 네가 하는 말에 진리가 있다고 고쳐생각했다. 넌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학교에서 크게 성장했다. 임미야!...》

태근의 목소리는 저즈기 떨렸다.

《너희들의 그 명랑하고 생기있는 웃음이 어데서 온것인지를 잘 몰랐었구나.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부모들도 기쁜것이다.》

《아버지!-》

《내가 너무도 동포사회를 모르고 살아온걸 용서해라!-》

《아버지!-》

임미는 눈물이 맺힌 행복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전... 정말 기뻐요!》

그의 두볼로는 맑은 눈물방울이 줄지어 소리없이 떨어졌다. 태근은 말없이 오랜 로동으로 찳찳해진 손바닥으로 딸애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임미에겐 아버지의 그 손이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임미야, 어서 집으로 가자, 모두 우리를 기다리고있을게다.》

보슬비는 듽성등성 걸린 외등에 은빛으로 번쩍이면서 행복한 마음 안고 걷는 그들의 우산위에 소리없이 떨어지고있었다. ...

종착역

리호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재일동포들에게는 따뜻한 조국의 품이 있다.

인생의 첫걸음을 떼던 소년시절과 청년시절에는 다분히 걸어온 길에 대해서보다 걸어갈 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법이다. 그 시절이 지나서부터는 걸어갈 길에 대해서보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게 된다.

그럴 때면 나의 귀전에는 일본 아마가사끼에서 살던 어린 시절 권아저씨가 부르던 노래가 울려 오곤한다.

무엇을 원망하랴 나라마저 망했는데
집안이 망하는건 너무나도 웅당하지
실어나를뿐 돌려보내주지 않네
관부련락선은 지옥선

권아저씨는 체구가 강대하였고 힘이 장사여서 그와 견줄만한 목도군이 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망국노총각》이라고 불렀고 나는 《망국노총각아저씨》라고 불렀다.

권아저씨는 소낙비가 쏟아붓던 장마철 어느날 아마가사끼를 떠나갔다.

떠남에 앞서 그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서쪽하늘가를 바라보며 그 노래를 불렀다.

《아저씨, 그게 무슨 노래야?》

《쪽발이섬나라에서 태어난 이 불쌍한것아, 내가 아무리 말해줘봤자 니가 알아들올게 뭐가. 현해탄에 피눈물을 뿌리며 낫설고 물설은 이놈의 섬나라에 끌려와 마소처럼 부려먹혀봐야 알지.》

권아저씨는 땅이 꺼질듯한 한숨을 후-내쉬며 의연히 눈길을 서쪽하늘가에서 떼지 못했다. 나는 권아저씨의 눈길에 자기의 눈길을 실었다.

시커먼 구름떼들이 온 하늘을 뒤덮었지만 서쪽하늘은 맑게 개였고 해살이 비끼고있었다.

《아저씨, 서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면 좋게, 북쪽으로 가. 저 서쪽하늘너머에 이 아저씨가 두고온 고향도 있고 니아 버지, 어머니의 고향도 있단다. 망국노의 고향이...》

권아저씨의 눈에는 이슬이 고여 가랑가랑했다.

《아저씨, 망국노가 뭐가?》

《철이 들면 알게 돼. 니도 이 아저씨나 니아 버지처럼 노가다질을 피하지 못할거다. 노래에 있는것처럼 <나라마저 망했는데 집안이 망하는건 너무나도 웅당하지.> ...》

권아저씨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나서 역전쪽으로 향해 걸어갔다.

권아저씨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나는 년중 눈을 떠이고있는 누다가무우슈베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혹가이도 이시카리평원에서 배수로를 파는 노가다질을 했다. 새벽일찍부터 밤이숙도록 목도질을 했다. 정말 힘겨웠다. 일본의 최북단인 눈나라-혹가이도의 겨울은 날아가는 까마귀도 얼어서 떨어진다는 강추위였다. 눈벌에 타서 흑인도 울고갈 정도로 얼굴은 새까맣다. 하루에도 죽고픈 생각이 몇번이나 드는지 모른다. 막 달아나고픈 생각이 간절했으나 목도채가 나를 놔주지 않았다. 목도채를 벗겨주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별을 등에 지고 함바집으로 돌아올적이면 자기도 모르게 멍히 서서 권아저씨처럼 서쪽하늘을 바라보곤했다.

그때사 나는 망국노신세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것을 절감했고 《나라마저 망했는데 집안이 망하는건 웅당하다. 》, 《관부련락선은 지옥선》이라는 말속에 담긴 진 뜻을 알게 되었다.

나는 조선대학교에 다닐 때 학급동무들과 같이 이동영사기를 둘러메고 동포들을 찾아가곤했다.

대학 2학년때 겨울방학철이었다.

어느 방학철때처럼 학급동무들과 같이 이동영사기를 둘러메고 혹가이도에 사는 동포들을 찾아 떠났었다. 그때 우리 2세들의 어머니, 아버지 즉 동포 1세들이 일본에 끌려와 피눈물나는 망국노 생활을 담은 단편예술영화 《어머니와 나》라는 필름을 가지고 갔었다.

우리는 우선 먼저 도소제지 샷썰로에 있는 제일조선인총련합회 혹가이도본부부터 찾았다.

우리 조대생 일행을 반겨맞이한 도본부위원장장은 혹가이도에는 조선동포들이 약 만명정도 살고 있다고 했다. 도본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유바리탄 전에 가졌으면 했다. 그곳에는 비교적 **동포들에**

많은데 그들 거의가 일제때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던 《탄부》들이었다는것을 덧붙여 말했다.

이튿날새벽, 우리 조대생 일행은 유바리탄전지구의 해발 1000 메터가 넘는 한 탄전마을에 도착하여 고물상을 하는 동포네 집에서 러정을 풀었다.

고물상동포는 우리 조선대학생들이 왔다느니, 귀한 손님이 왔다느니 하며 기뻐 어쩔줄몰라했다.

그는 안해를 불러 우리 일행의 아침식사를 지으라고 이르고 집을 나섰다.

집을 떠남에 앞서 그는 동포들을 모이게 할테니까 저녁에 영화를 돌려달라고 신신당부하였다.

새벽에 집을 나선 고물상동포는 저녁녁에야 돌아왔다.

《아침도 점심도 잡숫지 않고 어데가 있었어요?

배도 고프지 않은 모양이지...쯔쯔.》

고물상의 안해가 허를 차며 밥상을 들고왔다.

《한두개 굶었다고 뭐라우. 여태 당신한테서 얻어먹은 밥끼수가 몇만이 잘되겠는데...》 고물상동포는 안해의 말에 룡으로 대하고 아래방에 있는 우리 조대생 일행을 돌아보았다. 《우리 귀한 손님들은 저녁을 했소?》

저녁을 먹었다는 우리들의 말을 듣고서야 그는 술을 들었다.

저녁상을 물리고나서 아래방으로 건너왔다.

《한집도 빼놓지 않고 동포네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기벌했네. 이내 우리 집에 다 모여옴거네. 준비는 다 했겠지?》

준비란 별게 아니다. 책상우에 이동영사기를 올려놓고 필립통을 끼우면 되는것이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자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렸고 동포들이 옷에 묻은 눈을 털고 고물상동포네 안방으로 올라왔다.

미구하여 안방이 좁다하게 사람들이 앉았다. 어른들은 여러문명 되었다. 조무래기까지 세면스물 닷명 되었다.

고물상동포의 말에 의하면 이 끝안의 동포들은 어린 아이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다 모였다는것이다. 그러니 세대수를 보면 대여섯집 되나마나하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이 끝안에는 동포네 집이 한 50 호가량 있었다. 그러던것이 탄을 다 캐먹었거나 무너져 갯들이 폐갱으로 되는통에 살기가 어려워져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하였다.

영화가 시작되자 웅성웅성하던 방안이 조용해졌다.

보통이를 이고 갓난아이를 업은 치마저고리차림의 젊은 녀인이 영화화면에 나타났다. 젊은 녀

인은 남편을 찾아 낯선 이국의 거리를 헤맨다.

비가 억수로 쏟아붓는 거리, 세찬 바람이 부는 마을을 걸어간다. 품속에서 편지를 꺼내여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어느 누구도 남편의 행처를 안다는 사람은 없다. 손을 젓거나 고개를 흔들뿐이다. 그러나 락심하지 않고 녀인은 계속 남편을 찾아헤맨다. 마침내 남편이 일하고있다는 탄광함바를 알아낸 녀인은 눈바람치는 언덕길을 반달음으로 달려간다. 녀인은 탄광함바로 들어가 한 탄부에게 편지를 꺼내보인다. 녀인은 탄부에게서 남편이 락반사고로 죽었다는 비보를 듣는다. 녀인은 방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한다.

방안의 여기저기에서 흐느낌 소리, 가슴을 치며 허를 차는 소리가 울려왔다.

이때 방구석에서 《관부련락선은 지옥선이지...》라고 눈물에 젖은 목소리가 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원살 쯤 돼보이는 등이 흰 사나이가 앉아있었다.

순간, 나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비록 등은 휘었고 나이는 많지만 얼굴 룡판이 권아저씨와 같았다.

(세상에는 비슷한 사람도 있는 모양이지.)

나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였다.

영화는 30 분가량 걸렸다.

어둠던 방안이 환해지자 등이 흰 동포는 일어나더니 나한테 좋은 영화를 보여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그 순간 그와 나의 눈길이 마주쳤다. 그가 다름아닌 권아저씨라는것을 확신하였다.

그러나 그는 15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권아저씨, 저를 모르겠어요? 아마가사끼에서...》

나는 권아저씨의 손목을 짊 쥐였다.

《대학생이!!... 어디 보자.》 권아저씨는 일간 사람처럼 한동안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끌어안았다. 《옳구나!》

나는 권아저씨네 집에서 류하면서 회포를 나누려고 그의 팔을 끼고 고물상의 현판문을 나섰다.

꼬불꼬불한 끝안길을 걸어가던 권아저씨는 무춤 멈춰섰다.

《용서해라. 맘같아서는 데려가고싶네만 그만 두자.》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뜻밖의 말에 어리둥절해졌다.

《오죽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나. 15 년만에 만났는데. 그것두 평생 노가다질을 할줄 알았던

니가 어엿한 대학생이 됐는데…》

《제가 가지 못할 무슨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나는 권아저씨의 팔목을 쥐고 흔들었다.

권아저씨는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긴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무얼 숨기겠나. 이 〈망국노총각〉이 조선해방을 맞아 〈망국노〉 감투는 벗었지만 〈총각〉 감투는 벗지 못했다. 그러니 대학생 니를 재울 힘이 없다. 용서해라.》

권아저씨는 팔목을 쥐고있던 나의 손을 뿌리치고 밤눈이 내리는 꼬불꼬불한 경사급한 오솔길을 반달음으로 걸어갔다.

나는 불의에 한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땡해졌다.

그날밤, 나는 고물상동포에게 권아저씨에 대해서 물었다.

고물상동포는 《그 량반이 언제 일본땅에 왔는지, 고향이 어딘지 모르네. …》 하고 허두를 땀다.

권아저씨는 올해 서른일곱이 아니면 여덟일거라는것이다. 탄지계를 지내 저서 등이 휘었는데 그래서 제나보다 훨씬 늙어보인다는것이다. 게다가 재산이 있거나 한가, 제 몸 덮을 이불 한채 변변한것이 없으니 누가 곱다고 시집오겠는가, 모름지기 총각으로 늙으리라고 했다. 그리며 한숨을 후- 내쉬었다.

이튿날 나는 학급동무들과 같이 이동영사기를 둘러메고 유바리탄전의 다른 골안마을로 떠났다…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조청(재일조선청년동맹)에서 일할 때 유바리탄전에 간적이 있었는데 고물상동포는 있었으나 권아저씨는 그곳에는 없었다. 고물상동포의 말에 의하면 내가 권아저씨를 만난 그해 여름 어디론가 떠나갔다는것이다.

지난주에 한 식물학자에 대한 소설을 쓰기 위하여 신의주에 있는 도식물원을 취재하러 갔었다.

평양발 신의주행 급행열차는 12시 정시에 떠났다.

나는 선반에 가방을 올려놓고 식당칸으로 갔다.

열차가 신안주역을 지났을 때 나는 점심식사를 하고 제 좌석에 돌아왔다. 평양역을 떠날 때만 해도 앞좌석이 비어있었는데 그자리에 회색 양복에다 넥타이까지 맨 로인이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고있었고 그의 곁에 앉은 녀인은 차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나는 좌석에 앉아 담배를 붙여물고 무언하게 펼쳐진 별판을 바라보다가 무심결에 눈길을 떼고 앞좌석에 앉은 로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딘가 모르게 로인의 얼굴륵박이 권아저씨와 비슷했다. 권아저씨처럼 체격도 좋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로인은 혈색이 좋았고 그의 몸에서 노가다체취라곤 전혀 풍기지 않았다.

《여보, 자요?》

로인의 곁에 앉은 녀인이 속삭이듯 조용히 물었다.

《자진…》

로인은 눈을 감은채 대답했다.

《그럼 뭘 생각하세요?》

《이 〈망국노총각〉이 머느리를 얻고보니 생각되는바가 많아서…》

(《망국노총각》이라니?! 그럼…)

나는 피우던 담배를 재털이에다 비벼끄고 로인을 바라보았다. 권아저씨가 틀림없었다.

《권아저씨!》 나는 로인의 팔목을 무작정 쥐었다.

《이렇게 만날줄이야!》

권아저씨는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그런지 입을 하 벌린채 한동안 다물줄 몰랐다. 그의 얼굴에 반가움과 기쁨의 기색이 돌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귀국선이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누만… 여보, 내가 〈망국노 총각〉 때부터 잘 아는 동무요. 인사하오.》

녀인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눈인사를 했다.

《우리 마누라요.》

권아저씨의 어조는 자못 자랑스럽게까지 들렸다. 하긴 그럴만도 했다. 보매 인품도 있고 젊잖은 부인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퍼그나 고왔으리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선반우에 놓인 여행용 가방에서 향기 그윽한 커다란 사과를 꺼내여 창탁우에 올려놓았다.

《아저씨는 언제 귀국하셨습니까?》

나는 권아저씨에게 담배를 권하며 물었다.

그는 담배를 받아쥐고 붙여물었다. 그리고 한모금 길게 빨아들이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민족의 대이동을 온 누리에 알리는 고동소리를 울린 제1선으로 왔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근 30년을 협동농장에서 일하고있네.》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동부인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탄광기사로 일하고있는 우리 큰 아들 결혼식에 갔다오는길ियो.》

《에 그렇습니까, 대단히 기쁘겠습니다.》

《그야…그런데 새 머느리한테서 큰절을 받고 보니 조국의 품이 고마워서 울었네. 조국의 품을 생각할적이면 의례히 우리 마누라와 선을 보던 일이…》

너인은 얼굴을 붉히며 남편의 말허리를 툭 끊었다.

《뭘라우…》

권아저씨는 첫 선을 보았던 일을 회상하였다.
…봄눈이 소리없이 내리던 저녁이었다.

권아저씨는 분조장한테서 관리위원장이 찾는다
는 전갈을 받고 관리위원회로 갔다.

그가 관리위원장방에 들어서자 리당비서와 애
기를 하던 관리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서동무, 갑시다.》

세사람은 봄눈이 내리는 동구길을 걸어갔다.

《권동무, 올해 나이 몇이요?》

리당비서는 권아저씨의 흰 등에 손을 얹었다.

《…》

권아저씨는 대답을 못했다. 뻔히 아는 나이를
왜 물어볼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비서동무하고 동갑일거요.》

관리위원장이 권아저씨를 대신하여 말했다.

《그러니 마흔둘이구만요. 그런걸 난 한 오십
쯤 되는줄 알았됐구만요.》

《결에서 돌봐주는 안사람만 있어보시유. 그놈
의 흰 등두 쪽 꺾이고 한 서른댓나보이겠는데…》

관리위원장과 리당비서가 주고받는 말이 권아
저씨에게는 자기 몸을 덮어주는 두툼한 비단이불
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그들은 관리위원장네 집 트락에 들어섰
다.

관리위원장댁이 앞치마를 두른채 정주간에서
나왔다. 그는 머리수건을 벗어주고 리당비서에게
가벼운 눈인사를 보내고 관리위원장 뒤에 서있
는 권아저씨곁으로 다가섰다.

《왜 이리 늦었나?…귀한 손이 기다리고있네.》

관리위원장댁은 권아저씨의 소매자락을 쥐고
끄당겼다.

《…》

권아저씨는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어 의아한
눈길을 관리위원장에게 던졌다.

《여보, 어찌 된거예요? 말하지 않았어요?》

《원, 당신두. 그래 권동무의 일생문젠데 말하
지도 않고 무작정 데리고 왔겠소.》

관리위원장이 안해에게 대답하였다.

그제사 권아저씨는 동구길을 걸어오면서 관리
위원장과 리당비서가 주고받던 말 뜻을 헤아렸다.

《권동무, 어서 들어가 보우.》

관리위원장은 권아저씨의 등을 가볍게 떠밀었
다.

권아저씨는 어린 아이들처럼 발우물을 팔뿐이
였다.

《원, 사람두 그놈의 〈총각〉 감투를 조국에 와
서 까지 쓰고있자는거요? 그렇게는 안돼, 벗어야
지.》

관리위원장은 권아저씨의 손목을 쥐고 방안으
로 들어갔다.

방안에는 웬 젊은 너인이 앉아있었다.

《삼십리 눈길을 걸어오느라 수고했다. 기별만
했으면 관리위원회 차라도 보냈을걸…어쨌든 오
길 잘했다.》관리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권아저씨를 너인앞에 앉혔다. 그리고 권아저씨를
돌아보았다. 《권동무, 이 관리위원장이 이태를
품놓고 찾았는데 마다하지 않겠지.》

《…》

권아저씨는 고개를 숙인채 말이 없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구 말을 해야지, 원,
귀운 보리자루처럼… 리당비서와 동갑이란 사람
이…》

관리위원장은 답답하다는듯 권아저씨의 어깨를
툭 쳤다.

《관리위원장동무, 인생의 길동무를 택하는 일
인데 그리 쉽게 대답할수 있습니까.》

리당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는바람에 관리위원
장도 따라 일어났다.

방안에는 둘만이 남았다.

권아저씨는 의연히 고개를 숙인채 담배만 태울
뿐 말이 없었다.

그의 눈앞에 《관부련락선》-지옥선에 실려 수
평선너머로 사라져가는 오륙도를 바라보며 눈물
짓던 일이며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왜놈들한
테서 개, 돼지처럼 짓밟혔던 청년시절이 선히 밝
혀왔다.

그런가 하면 귀국선을 타고 어머니조국땅에 공
화국기를 흔들며 첫발을 내디뎠을 때 일이 떠올
랐다. 그때 그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더는 어머
니 조국의 품을 떠나지 않으리라 마음 다졌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죄스러운 감을 금치
 못했다. 조국 인민들이 조국을 지켜 미제와 피홀
려 싸울 때 피 한방울 흘리지 않았던 자신을 두
고, 폐허우에 조국을 거연히 일떠세울 때 말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벽돌 한장 들어올리지 않았던
자신을 두고, 손에 든것 없이 알몸으로 그것도
골병이 든 등이 흰 몸으로 돌아온 자신을 두고…

한편 관리위원장과 리당비서는 봄눈을 맞으며

뜨락에 서있었다.

《그 량반 국수를 얻어먹으려다가 얼어죽겠소.
원, 사람두-》

관리위원장은 더는 참을수 없다는듯이 방문을 열었다.

권아저씨는 너인의 앞에 그냥 고개 숙이고 앉아 있었다.

《권동무, 사내대장부가 그게 뭐요?! 머리카
들게.》

관리위원장은 권아저씨의 두손을 꼭 쥐었다.

《관리위원장동지!》

권아저씨는 관리위원장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리고 흐느껴울었다.

《그놈의 일본땅에서 눈물을 다 흘리고 온줄
알았겠는데...》

관리위원장은 권아저씨의 뺨등을 쓰다듬었다...

《여보, 다 왔어요.》

너인이 권아저씨의 무릎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바람에 권아저씨는 하던 이야기를 끊고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열차는 정주역구내로 서서히
들어서고있었다.

《다 왔군.》

권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선반우에서
짐을 내리웠다.

자기도 모르게 나의 눈길이 그의 등에 가닿았
다. 그의 등은 쪽 퍼져있었다.

《뭐 놀랄것 없지. 조국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조국의 대지를 가꾸느라니 절로 등이 퍼지더구
나.》

권아저씨는 나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던졌다.

나는 승강대까지 그들 부부를 바라드렸다.

권아저씨는 승강대를 내릴 때 마치 병풍처럼
둘러싼 과수밭속에 포근히 들어앉은 마을을 손으
로

가리켰다.

《저 마을이 우리 마을이요. ...》

열차는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했다.

미구에 속력을 내며 달렸다.

나는 승강대에 그냥 서서 멀어져가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러며 속으로 이렇게 뇌이였다.

(재일동포들, 아니 모든 해외동포들의 인생의
종착역은 조국의 품,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여라!)

농법따라 비가 온다

리근지

어허 수수천만년
하늘에서 내리던 비
농법을 따라 온다
땅에서 솟아
푸른 하늘 적시며 온다

벌을 안고 바다로만 흐르던 물이
굽이굽이 산굽이 돌아 시오리
넘어넘어 험한 령 넘어 시오리
배관따라 산에도 산상 땅 한끝에 올라
분수비되어 땅을 걸쿤다

저기저기 덕을 지나
방목지에 오르는 소야
한뼘 쪼이는 평벌에
코끝의 땀마저 빨더니
걸음걸음 무지개 감겨 멈춰서는거나

충충 다락밭
푸르른 강냉이잎사귀에
진주이슬 껴여주고

하늘끝에 남새밭 푸른 이랑 열어주며
농법따라 비가 온다

물보라 물보라
천만 알알 햇빛이 주렁진 물보라
하늘땅에 금나락으로 펼쳐져
이 강산은 어디 가나
풍년이 설레는 나라

뜨락뜨락 앞세우고
령넘어 오는 별방의 물축새
너도야 땀젖은 몸 분수비에 감아라
연분홍 비옷자락 날리는 포전관리공처녀
너도야 고운 얼굴 무지개속에 피워보자

아, 수수천만년 물따라 농법이 찾아가더니
은혜로운 햇빛아래
만풍년 무지개 비끼는 분수식 관수
땅에서 솟아
농법따라 비가 되어 내린다

제도

강대정

하얗게 회칠을 해놓은 나지막한 울타리가 결눈에 띄우자 성구는 머리를 들었다. 초가을 저녁의 황혼을 받아 더욱 아늑해보이는 목조건물이 확 안겨왔다. 이곳 북부고원일대에 자리잡은 종합농장 분장사무실로 쓰이는 단층집이다.

순간 그의 눈엔 놀라움이 가득어리었다.

승용차가 분장사무실 마당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멎어서는게 아닌가.

(언제 저 승용차가 내옆을 스쳐지났는가?)

차의 왕래가 드문 외통길우에 승용차의 바퀴자리가 생생하게 찍혀져있었다.

(허, 참...)

벌컥벌컥 차문들이 열리었다.

뒤따라 마당에 들어서면서 성구는 안해가 아침에 하던 말을 문득 생각했다. 이 순간에 그 말이 떠오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승용차가 서있는 분장사무실 마당에 들어선 성구는 마음속으로 웃었다.

(자동차가 옷자락을 스치며 지나치는줄도 몰랐단 말이지. ... 그래서 집사람이 그런 말을 했던가.)

《여보, 당신 낮빛이 왜 그래요? 요즘엔 노상 그런 표정이시니 ...》

성구는 안해한테 대답을 못했다. 전쟁때 전선에서 받은 상처때문에 영예군인으로 평생을 불편하게 지내고있는 안해였다. 가정일의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남편앞에서 안해는 몹시 말이 적었다. 그만큼 안해는 자기가 하는 한마디의 말을 백번도 더 생각한 다음에야 입밖에 내는 것 같았다.

방금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몇단 안되는 현관앞의 층계에 서있었다. 부지배인과 로동지도원이었다. 다른 또 한사람은 그들과 조금 떨어져서 아직도 승용차곁에 서있었는데 인품으로 보아 중앙급 일군이라는것이 한눈에 알렸다.

로동지도원이 급히 이쪽으로 마주 걸어왔다. 그는 성구한테 귀뜸을 했다. 정무원에서 내려온 부총국장이라는것이였다. 새 종합농장 신설때문에 내려왔다는것도 잊지 않고 덧붙이였다.

성구한테는 부총국장이라는 그 풍채좋은 사람이 어딘가 낯이 익었다.

놀라움은 저쪽이 더 큰것 같았다. 부총국장의 얼굴에서 팽팽한 근육이 움찔거렸다. 드디어 그의 입에서 환성이 터졌다.

《성구동지! 성구동지가 틀림없었구만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제야 성구도 그를 알아보았다.

《명환동무가 아니요?!》

성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었다. 그대신 부총국장의 감격에 젖은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명환입니다. 성구동지, 처음 보았을 때엔 설마 성구동지일줄은 몰랐습니다.》

성구는 숨결이 가빠졌다. 옛 부서의 나이 어리던 사랑스러운 지도원을 만난것이 기뻐다. 지금도 가끔 《우리 부서》라고 불러보는 청춘시절의 다감했던 그 일터를 잊지 못하는 성구였다. 성구가 지도원으로 사업하던 당시 내각사무국의 한부서에서 명환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배치를 받아왔던 신입지도원이었다. 그래서 부서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부서책임자의 귀여움을 받았다. 그때로부터 서른해가 지나간 다음 그들은 이렇게 서로 만났다.

《난 성구동지가 여기에 이렇게 계시리라곤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어데서든 지금쯤 큰몫을 담당하여가지고 큰일을 하고계시리라구만 생각했더했습니다.》

성구의 얼굴에 짐짓 노여워하는듯한 룡기가 천진스러울만치 소박하게 떠올랐다.

《모르는 소리, 내가 지금 하고있는 일이 좀적어서... 하긴 명환동무처럼 부총국장에야 비길수가 없겠지만...》

두사람은 서로 손을 마주잡은채 몸들을 뒤로제치며 유쾌하게 웃었다.

부지배인과 로동지도원은 놀라운 눈길을 서로 맞추었다. 성구라는 이 나이많은 농산기사가 자기들이 알고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닌듯싶었던것이다.

명환은 여전히 웃는 얼굴로 물었다.

《우리는 아주머니의 병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더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쾌되었는지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울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될 성구의 얼굴에 현현한 빛이 고요히 맴돌았다.

《의사들의 말은 이제 머지 않아 좀더 차도가 있을거라고 하더군. 그렇구말고, 공기가 좋구 물이 또 맑으니까... 그래 명환동문 아이들이랑 몇이나 뵈나?》

명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빛이 확 피여났다.

《예, 외아들입니다. 지금 순천에 나가있는데 자주 편지가 옵니다. 돌격대생활에 인젠 애착을 느끼는가봅니다. 꽤 말쑥꾸러기였는데 하하...》

성구의 얼굴에도 기쁨이 넘쳐났다.
명환이도 눈을 크게 해가지고 옛 지도원의 사
랑스럽던 아들에 대한 안부를 물었다.

《참, 그 애 이름이 호영이었지요? 이젠 청년
이 되었겠는데. 그 애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일순간 주위가 얼어붙은듯했다.

성구의 입에서 허파가 빈듯한 바람소리같은것
이 헉하고 새어나온것도 그 순간이었다.

로동지도원이 곁에서 나직이 설명하였다.

《호영인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몇년전에 분계
선에서 미국놈들의 무장도발을 저지시키다가 장
렬하게 전사했습니다.》

부지배인이 그다음의 이야기를 끝맺었다.

《전사후 아버지앞으로 공화국영웅칭호와 국기
훈장 제1급이 전달수여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다음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부지배인이 어조를 바꾸어가지고 방으로 들어
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재촉을 했다.

일동이 복도에 들어서자 부지배인은 로동지도
원과 함께 다른 방으로 들어가버렸다.

명환은 가슴이 아팠다. 대동강유보도에서 산보
를 하는 지도원의 품에 안겨 《삼촌》이라 부르던
애 어린 목소리가 금시 귀전에 들리는것만 같았
다. 다리를 쓸수 없는 몸이기때문에 삼륜차에 앉
아있는 어머니와 곁에 서있는 아버지 사이로 아
장거리며 오가던 그 애의 모습이 아프도록 눈에
밝혀왔다. 그때 총각지도원이었던 명환은 인정 많
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 애의 소꿉동무
역을 끝잘 했었다.

(그 애가 인민군대에 나가 전사하다니, 그것도
몇년전에...)

부총국장은 목너머로 닭알같은것을 힘겹게 삼
켰다.

(삼십년가까운 세월이...)

그때 당은 기사들을 생산현장으로 부른 일이
있었다. 기사들만 있었던 부서에서는 누구나 없
이 현장으로 나갈것을 탄원했지만 누구든 한사람
이 나가기로 되어있었다. 누가 나가게 될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몰랐다. 부서는 능력이 있는 기
사들로 꾸려져있었다. 명환이만은 사정이 달랐다.
실무로나 부서의 복무년한으로 보아도 제일 어
린 사람이 명환이었다. 군대복무경력도 없고 로
동년한도 없고 오직 고스란히 대학과정까지 마친
사람도 명환이었다. 어느모로 보든지 명환이가
그 진출의 적임자였다. 명환이로서는 그만큼 현
장단련이 필요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
게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부서책임자가
성구지도원이 현장으로 자원하여 나가게 되었다
고 선포를 해버린것이였다. 성구가 무엇때문에
그런 결심을 했는지 그후에도 원인을 딱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명환은 친형처럼 따르던 성구지

도원과 헤어진후 한동안 풀이 죽어 지냈지만 편
지거래만은 뜨겁게 했다. 편지가 끊어진것은 명
환이가 조국을 떠나 외국에 장기출장을 나간 때
부터였다. 특수한 사정으로 명환은 성구네 집에
더는 편지를 못하게 되었다. 성구는 성구대로 그
동안 현장에서 연구소로, 연구소에서 다시 현장
으로 몇차례 조동을 해서 서로 소식이 끊어지고
말았다.

넬마루복도가 두사람의 발밑에서 각이하게 소
리를 냈다.

《농산기사》라고 써붙인 방까지 복도로 걸은
시간은 불과 몇십초밖에 안되었다.

문이 열리고 그다음 방안에 들어서자 큰숨들이
나갔다. 그들은 둘다 짧은 복도를 지나온게 아
니라 한생을 다시 지나온듯한 기분들이였다. 자
리를 잡고앉았으나 다시 회포를 나눌념들만은 못
했다. 지나온 인생이란 즐거움만이 있는것은 아
니였다. ...

부총국장은 농산기사의 방을 둘러보았다. 책들
과 실험기구들과 표본들과 시료들을 넣어둔 장들
이 네벽을 천정높이까지 빈틈없이 채운 방이였다.

모두다 북방의 토색이 짙은것들뿐이였다. 크고
작은 감자알들이 액체로 가득채운 각이한 크기의
유리그릇안에 들어있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장
안에 무독히 쌓여있기도 했다. 잘된 밀이삭이며
보리가삭, 조, 수수이삭들이 듅성듅성하게 묶어
진채로 장안에 간직되어있었다. 오래되어 고삭아
버린것들도 있었다. 기사가 오래전에 무척 흥미
를 가졌지만 지금은 다시 손을 댈수가 없어 그냥
뒹둔채로 있는 모양이였다.

명환은 생각했다. 성구는 여기 현장에다 깊숙
이 뿌리를 내린게 아닌가. 그런데 왜 또다시 새
개간지로 가겠다는것일까? 명환은 개간지로 가겠
다고 탄원해나선 기사들의 명단 제일 첫자리에
성구의 이름이 있던것을 생각하고있었다. 이번에
나라의 북부고원지방에서는 대규모의 개간사업
이 벌어지게 되어있었다. 말그대로 거창한 대자
연개조사업이였다. 이곳 종합농장보다 더 큰 규
모의 종합농장이였다. 새로 나오는 방대한 종합
농장인것만큼 그곳엔 경험있는 농산기사들이 많
이 필요했다. 이곳 종합농장에서도 많은 기사들
이 탄원했다. 그중에는 성구기사의 이름이 제일
앞에 있었다. 명환은 그 이름을 볼 때엔 자기가
아는 그 성구일줄은 몰랐다.

명환은 성구의 얼굴을 다시한번 새삼스럽게 쳐
다보았다. 성구는 오십대의 후반기에 들어섰다.
이제 새 개간지로 또 가야 할 그의 처지가 난감
했다. 그곳엔 아직 아무것도 없다. 원시림을 찍
어내고 새 땅을 개간해야 했다. 집들을 짓고 길
들을 닦아야 했다. 해발고도 이곳보다 어방없이
더 높아서 가을에 눈이 내린다는고장이였다.

부총국장은 자기 운전수를 불렀다. 그는 평양

에서부터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내려왔다. 장기간의 출장이기때문이었다. 명환은 운전수에게 논것을 했다. 뒤자리에 놓아둔 식료품구력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한발자욱 앞도 가려볼수 없는 어둠속에서 부총국장은 길을 잃었다. 쌓아놓은 잡관목과 침엽수의 형클어진 가지들이며 뿌리채 뽑아놓은 그루터기들이 간단없이 널려있고 깊고얕은 뿌리구멍이들이 여기저기 패워져있었다.

성구기사가 몇명의 개간지돌격대원들을 데리고 온실을 짓는 현장까지 가려면 아직도 퍼그나 가야 하겠지만 어데가 어덴지 분간할수가 없었다.

(참. 극성스럽기두 하다구야...)

명환은 큰숨을 내그었다. 그 나이에 젊은 개간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있을 그의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팠다. 오늘도 밤을 꿔졌이었다. 그가 이곳에 와서 그렇게 일을 하고있다는것을 부인이 아신다면...

명환의 눈앞에는 자리에 누워있는 옛 녀성군인의 모습이 아프도록 안겨왔다. 두달전 성구기사를 서른해만에 처음으로 만나던 그날밤에 본 모습이었다. 전쟁시기 적후에서 상한 다리때문에 땅을 딛고 일어서보지 못한채 중년기를 보내는 부인이었지만 마음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맑고 깨끗했다. 새 개간지로 남편이 가게 되었음을 알았을 때 부인의 얼굴이 금시 처녀시절처럼 젊어지는것 같지 않았던가. 단발머리시절 군복에 파발총을 메고 전선에서 불비속을 헤치며 싸울 때 어려운 전투임무를 대할 때마다 짓군했을 그런 표정이 아니였을가. 그때 안해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구기사의 눈빛 역시 옛 지도원시절처럼 그렇게 불타오른것도 명환은 놓치지 않았다. 두사람의 시선속에서 오고간 말없는 격려와 고무는 성구기사를 끝내 여기 개간지로 떠나오게 했다. 성구는 자기가 지금 연구하고있는 감자품종은 새 개간지로 가지고 가서 그곳 기후풍토에 맞게 완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때 성구기사는 이렇게 말했었다.

《새 개간지에 심을만한 알맞는 종자가 별로 없지 않소? 내가 연구하고있는 감자종자가 있는데 마침 그고장에 적합할게요. 나는 그걸 위해서라도 누구보다 개간지로 가야 하겠소.》

성구기사는 옛 지도원시절의 불같은 성미 그대로였다.

명환은 그앞에서 힘겹게 말했었다.

《그렇지만 아주머니도 아직 완쾌되지 못했는데...》

《그사람은 내가 어려운 일을 말아나설 때 제일 기뻐한다오. 그래서 지금까지 그저 옛적 전사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시와 같은 이야기였다.

파연 그들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30 년전 어느날, 명환은 성구지도원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석양녘의 대동강유보도로 걸어 가고있었다. 때마침 그들이 걸어가고있는 앞쪽의 버드나무밑에 자행삼륜차가 서있고 그우에 한 처녀가 앉아있었다. 처녀는 건장이 없는 군복을 입고 자행삼륜차우에 조용히 앉아서 명상에 잠겨있었다. 건장자리가 또렷한 군복을 깨끗이 손질하여 단정하게 입은 처녀의 모습은 눈에 띄게 파리해보였다. 전쟁이 끝난지도 수년이 지났는데 고집스럽게 입고있는듯한 전쟁시기의 군복, 파리한 얼굴, 명상에 잠긴 그윽한 눈길, 처녀는 주위에서 벌어지는 변화한 움직임에 눈길을 보내는 일이 없었다. 그는 마치도 전쟁의 준엄했던 그 나날들에 온 넋을 맡기고 그 추억속에서만 살아가는듯한 느낌이었다.

명환은 얼핏 지나쳤다. 몇걸음 걸어가던 명환은 뒤떨어진 성구지도원을 돌아보았다. 성구지도원은 그자리에 서있었다. 그저 서있는게 아니라 그는 석상이라도 되어버린듯 창백한 얼굴로 굳어져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불췌 근육이 마구 뛰더니 뒤이어 환희의 물결이 확 피어났다.

《인숙이, 최인숙이...》

성구지도원의 목소리는 흥분에 떠서 떨리었다. 그는 자행삼륜차로 달려가서 그우에 앉아있는 군복입은 처녀의 손을 부동켜안았다.

《인숙이, 정말 인숙이로구만...》

뒤늦게야 군복입은 처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성구동무...》

인숙이라고 불리운 처녀의 목소리는 먼곳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명환의 귀에 들리었다.

《왜 그렇게도 소식이 없었겠소. 얼마나 찾াদ구...》

그때에야 명환은 성구지도원이 로총각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냥 침묵을 지키고있는 까닭을 알았다.

《난 늘 적후에서 싸웠답니다. 그때 부상을 당했어요. 전쟁이 끝난지 두해가 지난 다음에야 퇴원을 했구요. ...》

《그랬었구만...》

《난 다시는 성구동무를 만나지 못할줄 알았어요. 또 만나지 않으려 했어요.》

처녀는 흐느껴 울었다.

《만나지 않는게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요. 아, 인숙이...》

며칠이 지난 어느날 성구지도원은 자기의 결혼식에 부서의 지도원들을 빠짐없이 초청했다.

손님들은 그들의 행복을 진심을 다하여 축복했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들은 대학에서 둘다 전선으로 나갔었다. 열렬히 사랑하던 두사람은 얼마동

안 서로 소식을 전했지만 그다음은 주소를 잃고 말았다. 전쟁이 끝난지도 한두해가 지났지만 그들은 서로 기다리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뜨겁게 기다렸다. 그 사랑때문이었는지 그들은 이렇게 서로 만났다....

때마침 어둡숙 어딘가에서 인기척이 났다.

부총국장 명환은 그쪽에 밤눈을 밝혔다. 커다란 다른 장대나무를 어깨에 올려놓은 사람이 우줄우줄 걸어가고있었다. 옛동화에서 나오는 장수같은 모습이였다.

불현듯 바람이 일었다. 눈가루가 흩날렸다. 백암령일대의 그 번덕스러운 날씨가 갈데가 있을텐가. 맹수의 무리처럼 달려오는 바람세에 밀림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캄캄한 하늘에서 별빛이 얼핏 얼핏 나타났다가는 구름속으로 스며들면서 차가운 빛을 뿌려주었다.

장대나무를 언땅위에 떨어뜨리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지척이었다. 이어 도끼질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비닐박막이 펄럭이는 소리도 들렸다. 찾아오는 온실이 바로 곁에 있었다.

도끼질소리가 멎었다.

《그게 누구요?》

성구기사의 웅글은 목소리였다.

《그쪽엔 길이 없습니다. 누군지 이쪽으로 나오시오.》

이어 기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니 명환동무로구만. 어떻게 된거요, 응?》

그는 이쪽을 웅케도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길을 잃었됐구만. 그쪽은 몹시 험한데 자, 더운곳으로 들어가자구...》

명환은 성구가 이끄는대로 온실안으로 들어갔다. 후끈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시뻘겋게 달아 오른 난로가 온실 한복판에 놓여있었다.

성구의 걱정어린 목소리가 온실안에서 조용히 울렸다.

《몹시 피곤할게요. 몸을 돌보며 일해야 한다니까. 식사두 제때에 하구 잠두 제대로 자야지...》

성구의 얼굴은 애정에 넘쳐있었다. 나이가 들어 살이 빠지고 주름이 생긴 얼굴이었지만 청량한 기품이 깃들어있었다.

《가만 앉아있게, 감자맛을 좀 보라구. ...》

성구는 온실 한쪽구석으로 걸어갔다. 거기엔 기사가 방금 얇게 눈을 따낸 감자알이 무뎡히 쌓여있었다.

《이걸 구우면 별맛이야. 전분이 다른 감자보다 꼭 한배나 더 많다네. 이제 훌륭한 품종으로 될걸세.》

한삼태기나 되는 감자알이 우르르 소리를 내며 잉겔볼이 이끌거리는 난로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이어 감자가 구워지는 구수한 냄새가 온실안에

가득찼다.

《그렇지 않아두 얼마전부터 부총국장을 조용히 만났으면 했겠네. 나는 이 개간사업전반에 의견이 많은데...》

명환의 귀에는 성구의 말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었다.

《어서 말씀해주십시오.》

성구는 진중해졌다. 누구나 선뜻 제기할수 없는 문제이기때문이었다.

난로안에서 감자가 피-피- 소리를 냈다.

《하루라도 개간을 빨리하구 농사를 잘 지으려면 사람들을 안착시키는 일부터 해야 하네. 집을 먼저 지어야지. 지금은 모두 <손님>들뿐이야. 채벌을 조금 못하더라도 또 뿌리뽑는 일을 뒤로 미루고서라도 집들을 먼저 짓구 사람들을 데려와야 하네. 이곳에다 생활의 뿌리를 내리도록말일세.》

이야기를 하는 성구의 얼굴은 젊음을 되찾은듯 환히 밝아졌다.

명환의 눈은 점점 더 커졌다.

성구는 이야기의 끝을 맺었다.

《그렇게 하면 개간은 몇갑절로 빨리 될게구 생활이 꽃피날게 아닌가. 모두다 생활의 주인이 되지.》

나는 제일 선참으로 이사하겠네. 이제 내야 더 갈데가 없지. 이곳보다 더 높고 더 험한고장은 없을테니까.》

《...》

명환은 아무 말도 못했다. 부끄러웠다. 지금은 현장기사인 성구가 포착하고 모대긴 이 문제를 부총국장인 자기는 어찌하여 보지 못했는가. 당의 뜻대로 언제나 사람들의 심정을 먼저 헤아리며 사업을 설계했어야 했다.

《개간지 지원자들이 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산다면 그야말로 이 개간지의주인노릇을 할게 아닌가. 이 개간지와 생사운명을 같이 할게거든...》

《감사합니다. 성구동지, 래일 참모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주십시오.》

성구는 명환을 바라보았다. 힘겨운 일을 남한테 의탁하는 사람이 노상 짓군하는 그런 표정이 명환의 얼굴에 어려있었다.

《가만 왜 일어서나? 감자가 다 구워졌을텐데...》

성구가 명환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때에야 명환은 자기가 너무 흥분했음을 느꼈다. 명환은 통나무로 만든 의자에 다시 앉았다.

성구는 익숙한 솜씨로 구운 감자를 난로안에서 집어내여 한삼태기나 담아놓았다.

명환은 구운 감자맛이 이렇게 좋은줄은 몰랐다. 그는 성구가 가르쳐준대로 숯검댕이처럼 껍질이 타버린 감자를 표창이로 긁어버리고 노란속껍질이 드러나는 감자를 맛나게 먹었다. ...

참모회의는 지루했다. 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일부 돌격대 대대장들에 대한 책임추궁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덕지대를 개척하며 원목과 초두목, 아지를 끌어내고 뿌리를 뽑는 일이 개간사업 공정이다.

일자리가 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생소한곳에 정을 붙이지 못했고 신심이 없어했다.

회의는 흥이 없었다. 그냥 지루하게 시간만 끌었다.

부총국장은 아까부터 성구기사가 앉아있는 구석쪽을 바라보곤했다.

기사는 무엇인가 그냥 쓰지만 했다. 쓰고는 지우고 지우고는 또 썼다. 회의에 참가한게 아니라 그 무슨 집필과 도면 그리기에 열중한 사람같았다. 회의가 끝나가고있다는것도 모르고있는게 아닌가

집행석의 바로 옆에 앉아 회의를 집행하던 부지배인이 부총국장의 팔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러단장이 병원에 입원했기때문에 부지배인이 립시로 돌격대의 러단장사업을 대신하고있었다. 그는 회의를 그만 결속하는게 어떤가고 부총국장의 의견을 묻고있었다. 부총국장은 얼른 얼굴을 돌려버렸다. 부지배인은 말보다 표정으로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질을 가지고있었다.

때마침 성구기사의 웅글은 목소리가 커다란 귀를집안에 울렸다.

명환은 큰숨을 내쉬었다.

때를 같이하여 부지배인이 가볍게 코웃음을 했다. 부총국장은 몸을 돌려 부지배인을 바라보았다. 낮이 간지러운 랑소가 그의 얼굴에서 찰랑거리고있었다. 그는 성구가 말하기 시작한 그 제의를 아예 듣지도 않겠다는듯 탁상우에 퍼놓았던 문서들을 간중그러서 가방안에 넣었다.

그대신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분위기가 새삼스러워졌다. 바람에 터서 거멸게 된 얼굴들이 성구기사를 흥미있게 쳐다보고있었다. 지루함에 지쳤던 표정도 있고 놀라움에 입을 딱 벌린 모양도 보였다.

부지배인의 통명스러운 목소리가 성구기사의 제의를 중도에서 툭 끊어놓았다.

《여보 성구동무, 부차적 문제는 제기하지 마오. 개간을 하지 않구 살림집부터 짓는게 될번이나 한 말이요? 년말까지 우리가 해야 할 작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하오?》

부지배인은 가방의 자크를 소리가 나게 채웠다.

《제집에 뜨뜻이 들어앉아서 대자연개조사업을 하자는건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소. 그렇게 안일한 생각부터 앞세우지 마오.》

부지배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성구동무, 두고온 집걱정이 많을텐데 차라리 제기를 하오. 동무의 개인사정이야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부지배인의 마지막 말마디들은 동정이 넘쳐났다.

부총국장은 눈을 감았다. 이제 성구기사가 무슨 말을 더할것인가. 그는 아마도 주저앉지 않을 수가 없을것이다. 방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누군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성구는 그냥 서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러장의 도면이 쥐여져있었다. 도면이 아니라 속사를 한 그림이였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목을 빼여든채 성구의 손에 쥐여져있는 그림들을 넘겨다보았다. 계획을 못해서 방금 추궁을 받고난 대대장이였다.

《히야-》

그는 입이 함박만큼 벌어졌다. 그리고도 성하지 않았던지 그는 손을 뻗쳐 기사의 손에서 그 그림들을 앗아냈다.

《이것 좀 보라구...》

대대장은 여러 사람들에게 그 그림들을 나누어 주었다. 여러가지 형태의 문화주택이 그려져있는 그림들이였다.

《야-핑장하구만. 이거...》

《이런, 이젠 집이 아니라 별장이로구만...》

《그런 집을 지어놓고 일을 하면야 왜 성수가 나질 않겠소...》

저마다 감탄을 마지 않았다. 그림은 이손저손을 거쳐 방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갔다.

누군가 한마디했다. 룡이 아니였다.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부지배인의 견해에 대한 불만이였다.

《기사아바이의 말이 전적으로 옳단 말이요.》

또 누군가 그 말을 받았다.

《옳구말구. 집을 지어야 하오. 집부터 짓구 사람들부터 안착을 해야 한단 말이요. 지금은 개간지로 동원을 온 사람들이데 모두 너나없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 일이 제대루 될게 뭐요.》

《옳단말이요. 아무리 량심껏 한다구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구 뿌리를 내리며 살 사람보다야 더하겠소. 집부터 짓구 사람들을 데려와야 하오. 학교, 유치원, 탁아소두 짓구...》

사람들은 흥분했다.

부총국장은 자기를 쳐다보는 부지배인의 얼굴을 룡감으로 느꼈다. 그는 부지배인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의 얼굴은 이렇게 말하고있을 것이였다.

(어찌겠습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개간을 안하구 집부터 지을수야 없지 않습니까?)

부총국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직도 서있는 성구기사를 부총국장은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성구기사동지의 이야기가 좋습니다. 기사동지, 제때에 깨우쳐주어 감사합니다.

동무들 래일부터 집을 지읍시다. …》

사람들의 얼굴이 활짝 밝아지고 회의장이 흥성거렸다. 회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다음날 2만정보를 헤아리는 개간지에서 사람들의 흥분에 어린 말들이 즐겁게 오갔다.

일손들이 빨라졌다. 일터마다 활기가 넘쳐났다. 그들은 벌써 그 집에 자기가 이사와서 사는 듯한 기분속에서 일들을 해가고있었다.

작업장마다에서는 그날 계획을 어김없이 했다. 주택건설장에서는 말그대로 통나무를 가지고 짓는 별장같은 현대식 문화주택들이 화려하게 일떠섰다.

봄철이 다가오면서 따뜻한 날들이 더 많아졌다.

성구는 온실의 공기창들을 활짝 열어놓았다. 온 겨울동안 기사의 정력을 무한정 빼앗아낸 온실엔 감자꽃이 하얗게 피어났다.

성구는 만족했다. 계획했던 감자의 전분함유량이 제대로 높아졌다. 이제 생산재배로 넘어갈 차례였다. 돌아오는 봄부터 생산포에 파종을 할수 있었다.

《아버지-》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던 성구는 와플 놀래였다. 복스럽고 건강미가 넘쳐나는 다 자란 처녀가 아버지의 목에 매달리며 엉석을 부리었다. 딸이었다. 자동차운전수가 된다면서 뛰어다니더니 이제 운전대를 잡은 딸이었다.

《아버지, 이사집을 내 차에 싣고 왔어요. 어머니두 함께… 빨리요.》

손목을 딸에게 잡힌 성구는 끌리다싶이 뛰어갔다. 마을 한복판에 이사집을 높이 실은 화물자동차가 서있고 주위에 술한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개간지에 도착한 첫 이사집이었다.

그날로 이 소식은 또 온 개간지에 퍼졌다. 기쁜 소식이였다. 기사의 딸이 처녀자동차운전수이며 안해는 일생동안 하반신을 잘 쓰지 못하는 영예군인이라는 이야기에 덧붙여 기사네의 옛사랑 이야기와 전쟁시기의 녀성 정찰병의 영웅적인 일화까지 빠짐없이 전해졌다.

그 이야기는 그칠줄을 몰랐다. 점점 더 감격적인 소식으로 번져갔다. 기사의 안해가 개간지에 이사와서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이야기였다. 요즘 중앙의 의료성원들이 현대의술로 특별하게 치료를 한탓인지 개간지에 이사를 온 후 며칠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의료적 효과도 있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생의 희열이 심신에 큰 자극을 준 덕이 아닐가. 봄과 함께 찾아든 개간지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오늘은 한발자국 다음날은 두발자국… 드디어

옛녀성정찰병, 기사의 안해가 걸기 시작했으며 남편이 일하고있는 온실까지 다닌다는 소식은 날마다 온 개간지에 무진장한 힘을 안겨주고 희망을 부풀게 해주었다.

나날이 흘러갔다.

부총국장은 성구기사의 생활기록들이 도간도간 적혀있는 실험일지를 앞에다 펼쳐놓은채 자기의 사무용 책상에 오래도록 앉아있었다.

지도원으로 일을 하던 그 옛 부서에서 떠난다는 기사의 경력은 단순하지 않았다. 몇번인지 모르게 기사는 연구소와 생산현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무엇때문이였을가. 그것은 쓰지 않았다. 처음 옛 부서를 떠날 때 그의 가슴에는 무엇이 소중한 간직되어있었을가. …

성구기사의 생활을 놓고보느라면 특별한 점은 남달리 조동이 많은것이였다. 어느 한 시험장에서 다년간 연구사업을 하다가 다시 생산현장으로 자리를 옮긴 때를 기사는 이렇게 썼다.

《정당 수확고가 높은 〈백두 1〉 호 감자 품종을 연구해서 생산에 도입했지만 전분함유량을 계획대로 높이지 못했기때문에 론문을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였다. 나는 떠나기에 앞서 〈백두 1〉 호 육종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함께 있던 영익기사에게 넘겨주었다. 그가 마지막까지 전분함유량을 계획대로 높여주기를 나는 바랐다.》

명환은 눈길을 들고 허공의 한점을 응시했다.

《영익이, 영익이란 말이지…》

영익이라면 자기와 농업대학의 동창인 그 영익 일것이다. 영익이는 지금 준박사학위를 가지고 농업과학원의 어느 분원에 있다. 그가 무엇으로 준박사가 되었다고 했던가. 그렇지 생각이 났다. 어느때가 명환은 그를 길가에서 만난 일이 있었는데 준박사가 된 경위에 대하여 하던 말이 떠올랐다.

《북부고원지대에 수확고가 높기로 이름있는 감자품종이 작출됐지. 그것으로 학위를 받았는데…》

명환은 생각이 깊어졌다.

론문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성구기사는 왜 그곳을 떠났단 말인가. 명환은 그 다음을 읽었다.

《내가 가려는 그곳 현장에서는 밀재배가 큰 난관에 봉착되어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가서 밀재배가 안되는 원인을 밝혀내고 과학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백두 1〉 호와 전분함유량을 높이는 문제는 영익기사만으로도 해결할수 있지 않는가. 그곳에서 해마다 술한 밀수확을 밀진다는 말을 듣고야 기술자로서 어찌 참을수가 있겠는가.》

명환은 또한번 크게 놀랐다.

성구기사가 있던 그곳 협동농장의 밀수확고가 이 몇해동안에 전국적으로 제일 높을뿐아니라 세

계적인 수준에 이른데 생각이 닿았다.

《그것도 성구기사의 공로가 아닌가.》

기사의 경력에서 조동이 많은 원인이 명백했다.

그가 이곳 개간지로 떠나오기 앞서 하던 말이 떠올랐다.

《새 개간지에 심을만한 알맞은 종자가 아직 없지 않소. 내가 연구하고있는 감자종자가 있는데 마침 그곳에 적임일게요. 나는 그걸 위해서라도 누구보다 개간지로 가야 하오.》

(그랬었구나. ...)

명환은 다시 성구기사의 노트에 눈길을 돌렸다.

《...영익기사는 〈백두 1〉 호의 전분함유량을 높이지 못한채 론문을 발표해버렸다. 하긴 정당 30 톤이란 수확만으로도 그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지만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할수 없다. 나는 다시 〈백두 1〉 호의 전분함유량제고를 위한 연구사업을 하 지 않으면 안되였다.》

명환은 눈을 감았다.

눈보라치던 겨울밤에 시뻘쭙게 달아올랐던 난로가에서 그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이걸 구우면 별맛이야. 다른 감자보다 전분이 꼭 한배나 더 많다네. 이제 훌륭한 품종이 될 걸세...》

명환은 눈을 뜨고 천정의 한점을 응시했다.

옛 책임지도원, 그가 걸어온 생활의 길, 아니 인생의 길은 다단했다. 하지만 그는 당이 바라는 곳,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찾아갔고 그곳마다에서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열매를 맺군했다. 그는 당과 조국에 바친 그 말없는 헌신으로 하나의 튼튼한 인생행로를 다지며 오늘까지 걸어온게 아닌가.

명환은 작업복차림으로 밖에 나섰다.

다시한번 성구기사를 만나고싶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싶었다.

인생의 성공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겠는가.

명환은 생각깊은 발걸음을 옮겼다.

눈부신 해빛이 잔등에 따듯이 내려앉고 멀고 가까운곳에서 뼈꾸기들의 울음소리가 구성지게 울렸다.

명환의 걸음은 온실구역쪽으로 옮겨졌다. 눈앞이 확 트이였다. 밀림은 먼곳까지 물러갔다. 그 밀림이 자리를 내어준 넓은 구획들마다에서는 트랙토르들이 줄지어 달리며 보습으로 검은 흙밭을 파도처럼 번져가고있었다.

마을쪽에서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한창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있었다. 따듯한 해빛을 즐기며 수탉들이 시름없이 울기도 하고 이따금 개들이 경경 짖지도 했다.

새로 닦은 간선도로가 온실구역까지 곧게 나있

었다. 명환은 눈보라치는 겨울밤에 길을 잃곤하던 일을 돌이켜보았다. 이렇게 닦아놓은 다음에야 무엇때문에 길을 헛갈리랴. 길이란 언제나 이런것이다. 곧바르게 바로잡고 거기에 땀과 정력을 바치면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지는게 길이 아닌가.

명환은 첫번째 온실에 들어섰다. 지난 겨울밤 성구기사가 감자알을 구워주던 그 온실이었다. 온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낮의 해빛이 온실안을 밝고 따듯하게 덮혀주고있었다. 하얗게 핀 감자꽃이 해빛에 한창 어울어져서 온실은 화창해보였다.

《백두 1》 호

자그마한 패말에 《백두 1》 호라고 써놓은 글발이 무성한 감자잎속에 가리워져있었다. 명환은 자기가 그 패말을 어떻게 발견할수 있었는지 야릇한 생각이 들었다. 스쳐지나서는 볼수 없을 잎사귀속에 패말은 묘하게 숨겨져있었다.

《〈백두 1〉 호라.》

명환은 소리를 내어 외워보았다. 성구의 자서전에서 본 그 《백두 1》 호일것이였다.

눈보라가 치던 그날밤이 다시 떠올랐다. 시뻘쭙게 달아오른 난로안에서 감자속이 구워지던 구수한 냄새가 금시 코를 찌르는것 같았다.

《이걸 구우면 별맛이야. 전분이 다른 감자보다 배나 더 많다네. 이제 훌륭한 품종으로 될 걸세.》

그때는 무심히 들던 말이였다.

때마침 저쪽 건너편 온실에서 기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노에 찬 노한 목소리였다. 명환은 지금까지 성구기사의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었다.

《...그렇게 치사한 목적에 쓸려구 내가 한생동안 키워낸 감자종자인줄 아는가. 아직 생산포에는 심어도 보지 못했는데 뭐? 자재상사사장네 터발에 심게 하겠대구?》

애원도 하고 조롱도 하는듯한 목소리가 기사를 시가슬렀다.

《아바인 너무 책대로 하는게 탈이야요. 고쳐 생각해보십시오.》

《...》

분노에 찬 기사의 숨소리가 이쪽까지 높게 들리였다. 시까르는 목소리가 분풀이를 하듯 계속 되였다.

《세멘트구 트랙토르부속품이구 일체 자재가 그 사장의 손에 달렸는데 그 집 터발에 새 품종 감자종자가 필요된다구 하지 않아요. 그걸 한되 박 준다구 무슨 큰일나겠어요.》

기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노기가 아니라 울먹이는 목청이였다.

《씩 물러가지 못할가. 되지 못한 녀석같으니 라구...》

명환은 얼어붙은듯 그자리에 선채 그냥 귀를 기울이었다.

《좋아요. 두고봅시다.》

승용차문이 닫기는 야멸찬 소리에 뒤이어 가속 기동음이 가슴을 싸늘하게 식혔다.

명환은 오던길을 되짚었다. 걸음이 빨라지고 숨결이 거칠어졌다. 참을수가 없었다. 문제를 세워야 했다....

그날부터 꼭 열흘이 되는 날이었다.

개간지종합농장의 중심도로 한복판으로 걸어가 는 두사람이 있었다.

명환은 반년만에 성과를 안고 총국으로 돌아가 게 된것이였다. 그는 이 기간 자기 사업을 뒤받 침해주었으며 이렇게 배웅을 나온 성구를 돌아보 았다. 가슴이 뭉클하였다. 성구는 조용히 웃고있 었다.

명환은 어느땐가 어느 한 역을 지나면서 차창 으로 눈여겨본 한 전철수의 얼굴을 문득 되새겨 보았다. 수천명의 각이한 려객들이 서로 다른고 장으로 저마다의 목적을 향해 한 열차를 타고 떠 나는 그 기관차의 방향을 잡아준 전철수의 얼굴 이 바로 저렇지 않았던가.

진실한 인간, 언제나 존경이 가는 우리 시대의 인간!...

명환은 마음속으로 높이 웨쳤다.

승용차는 떠났다. 아득한 지평선에서 그 승용 차가 점점 작아져가더니 운무속으로 자취를 감추 고 말았다.

성구만이 지평선우에 서있었다.

이윽고 그는 자기가 가야 할 방향으로 돌아섰 다. 지평선의 다른 한쪽이 그와 마주섰다.

기사는 머리를 갇수긋한채 걸음을 옮기였다.

온실앞에 화물자동차가 서있었다. 딸이 운전하 는 화물자동차였다. 딸은 화물자동차에다 부식토 를 산더미처럼 싣고와서 부리고 있었다. 안해가 부식토를 온실로 날라가는 일을 곁에서 돕고있었 다. 그는 아직도 다리를 마음대로 쓰지 못했지만 부지런히 운동을 했다. 적후에서 전쟁의 전기간 을 싸워온 그 의지가 그를 이렇게 일떠세운것이 었다.

《아버지!》

복스럽게 생긴 처녀가 장난꾸러기처럼 아버지 의 어깨에 매달렸다.

안해가 온실안에서 내다보며 웃고있었다. ...

또 몇년세월이 흘렀다.

명환은 수도에서 열린 전국영웅대회장에서 성 구를 보았다.

토론문을 들고 연단에 오르는 성구의 귀밑머리 에는 흰서리가 내리였으나 여전히 젊음이 넘 치는 걸음을 힘있게 내짚고있었다. 영광의 주석 단을 우러르는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어려 있었다.

그를 지켜보는 명환의 가슴은 뉘뛰였다.

성구기사는 일생을 저렇게 걸었으리라. 저 연 단에 이어진 머나먼 길을 걸어 오늘에 이르렀으 리라. 드림없는 삶의 궤도를 따라...

술새 우는 오솔길

-고국땅을 처음으로 걸으며-

(중국)김 목

푸르른 소나무숲
뻗어간 오솔길따라
나는 간다 신바람나게
금방 압록강에 잠그었던 발목이
시큰해지도록 걷고만싶어

그러면
예서 제서 술가지우에
술새들도 마중나와
쥬리쥬리 쥬-리 쥬-리
정답게 노래부르네

물어보자,
어데로 닿았느냐, 너 오솔길이어
저기 푸른 하늘이 너의 한끝에 띄웠거니
거기엔 신기루마냥 황홀히 황홀히
평양이 비껴오르진 않았을가

평양은 예서 얼마나 멀더냐
가고가면 끝내는 닿아갈 길
아무리 멀어도 맘에 날게둔치면

단숨에 닿아갈 그리움이여
수령님 계시는 사랑의 요람이어

오솔길은 수천 수만갈래여도
다같이 이 땅우에서 이어지고
심장의 피를 받아온 피줄기마냥
사랑의 한뫼를 떠날수 없는
마음속의 빛나는 길이어라

술새야, 울어라
쥬리쥬리 쥬-리 쥬-리
날 데리고 가려마
어데던지 다 좋다
어서 가자 해저물기전에

푸른 소나무숲
뻗어간 오솔길따라
꿈결에도 그림던고장
조선의 길을 나는 걷는다
말이 닳도록 나는 걷는다

1988. 7

그대 손길 있어

리금녀

눈앞에
아물아물
밤하늘의 별찌런듯
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얼굴들,

간간히 들려오는 목소리
저물녘 내가에서 아이들을 부르던
다정한 어머니의 그 목소리런듯
가슴에 잦아들고... 다시 사라지고...

뜻밖의 사고로
의식을 잃은지 수삼일
천길나락속에 모태기는 몸
나를 포근히 감싸안아
다독여주는 손길이어,

젖줄기인양
입술을 추겨준 달디단 즙
가슴 더웁혀준
따사로운 햇빛
순간을 떠나지 않는 보살핌이 있어

문득 눈을 뜨니 왈각 솟구치는 눈물속에
아, 저 하늘이 왜 저리도 유난히 푸르른가
더듬어 달력을 찾게 된다
다시 태어난 날을 짚어보려고
시계의 초침소리에 귀기울이게 된다
다시 찾은 시간이 더없이 소중한해서

머리우 무리등
처음 보는 은금보석인듯
심장의 박동 그대로 옮겨지는
심전도 측정기
텔레비죤 화면인듯

너무나도 몰랐구나
사람의 생명을 법으로 지켜주는

그 사랑으로
이 심장 이렇듯 고동치는줄

한사람의 작은 불상사도
온 나라가 걱정하는 그 은정으로
눈앞이 이렇게 맑게 트이는줄

길가에서
모르고 스친 사람일수도 있으리
친혈육처럼 온갖 정성 다해주는
머리 흰 과장선생
출근길 한 전차에 마주앉았을수도 있으리
구미맛는 영양제
끼마다 들고나오는 능금불 간호원처녀

이 세상 더없는 보건법아래
피를 주고 살을 주고
뜨거운 마음 다 주는
그 진정에 받들려
내 아무것도 잃은것 없이
삶을 고스란히 되받나니

머리끝 하나 다칠세라
한자육도 헛디딜세라
한초한초 지켜주기에
내 그대앞에선 언제나 요람속의 아기
운명을 다 맡긴
영원히 그대의 딸

대를 이어 바라고 바란 소원이
다 이룩된 내 나라
은혜로운 이 땅에 재생의 큰 걸음 내디디며
내 누리를 향하여 웨치고 웨치여라
아, 어머니여
이 세상 제일인 고마운 사회주의제도
나의 조국이어

수고 많은 사람들

박 철

머리를 숙이노라

수고한다고 인사하면
숫스러이 인사를 받더라
탄캐는 일이
이 세상 가장 쉬운 일인듯

떨어지는 석수속
질적이는 막장길 함께 걸을 땀
안전등불을 돌려 밝혀주더라
자기는 늘 다니는 길이라고

머리를 숙이노라
그 숫스러운 모습에
늘 다닌다는 막장길에

얼마나 가슴뜨거웠던가
묵직한 쇠동발을 손쉽게 드리며
난장보다 막장에서
더 펄펄 난다는 말에
석탄에 바쳐온 날과 날이 다 보여와

생각했노라 아니, 깨달았노라
백탄차가 넘은 탄을 내리쫓고
막장이 밝아지도록 지은

그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석탄은 그의 행복중 행복이라고

정녕 머리를 숙이노라
막장에 바쳐온 그 긴긴날에
환한 그 미소 행복중 행복에

아, 지닌 마음의 아름다움이여
석탄, 석탄증산을 부르시며
새벽에도 한밤에도
수령님 마음 닿아있는곳
그 일터에 바쳐가는 삶의 고결함이여

안을수 없어라
석수에도 지압에도 꺼지지 않고
한뼘 지하천척에서 불타오르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 고결한 삶 없이
땅우에 굽이치는 행복의 뜨거움을

오, 머리숙이노라 머리를 숙이노라
이 나라 탄부들 조국 위해 지닌
마음의 그 깊이에 정신의 그 높이에!

탄광마을의 밤

탄광마을의 밤은
깊도록
탄부안해들 잠 못드는 밤
집집에 불은 밝아라

어느 집엔들
조용히 문 열고 들어가보라
그러면 잠짓은 녀인들을 보게 되리
누구는 기다리는 마음에
누구는 바래줄 마음에

깊이 든 잠을 지켜주더라
꼭- 휴식하고
후야근 나가시라

고르로운 숨소리에 행복한 미소짓고
깨끗이 땀 작업복 다림발 세워라
어서 오시라, 전야근 끝내고
가마목에선 밥이 더웁혀지고
가슴에선 정이 끓고...
때마추 수고 많은 전지불 반겨
집앞에 마중나가리

아 탄부와 한생의 언약은
석탄하고도 맺은 한생의 언약이었던가
석탄이 나라에 귀중할수록
더더욱 두손 모아
남편을 섬겨가는 녀인들

그 지극한 마음
 앞벽을 두드리는 가슴엔 만바람되고
 그 뜨거운 손길
 탄벽을 마주선 가슴엔
 굳건한 동발되려니

어찌 쌓는 석탄산 없이
 그네들 돌아오라
 긴긴밤하늘아래 펼쳐놓은

지성의 그 하늘아래로
 정성의 그 하늘아래로

아, 탄광마을의 밤은
 탄부안해들 밤
 바치는 정을 안고
 바치는 사랑을 안고
 가슴마다 석탄산이 높아지는 밤이여라

숨결

웬일인가?
 석탄을 안고 흘러가던 콘베아가 멎었다
 그러자 다급한 발자국소리
 울리굴에서 젊은 채탄공 내려선다, 소리친다
 -왜 멎었어? 영희!

-아이참, 조구가 왔어요!
 빈 탄차 없는것이 제 잘못이거나 한듯
 처녀의 안타까운 목소리
 콘베아 저 한끝에서
 안전모불빛이 반짝 떠오른다

하자 젊은 채탄공
 통화기를 두드린다
 지령장의 가슴인듯

-공차! 공차!
 ...

이윽고 레루를 울리는 전차의 동음
 이윽고 소리치며 돌아가는 콘베아
 채탄공은 썩- 막장에 올라간다
 그러자 급하게 몰아쉬는 호흡인듯
 썩- 쏟아지는 석탄 석탄...

아, 이 모든것을 보며
 나는 소중히 석탄을 쥐어본다, 생각한다
 순간이라도 멈추면 꺼지는
 탄부들 생의 숨결은
 석탄, 저 석탄의 끝없는 흐름이라고

그들은 아직 모르네

오늘은 세발과 때린 날
 이 가슴을 터치지 않고
 어떻게 기쁨을 잠재우랴
 굴진공총각 처녀를 찾네
 강반을 걸자고

오늘은 만바람
 압축기운전공처녀의 가슴도
 행복이 출렁
 어떻게 이 저녁 그냥 보낼가
 어서 함께 걸자네

-수고했어! 총각은 무엇이랴
 자꾸만 살뜰한 말 하고싶네
 -수고는... 거기서 했어!
 처녀는 어느새 꺾어든 꽃 한송이

웃음과 함께 **총각에게** 안겨주네

처녀가 세발과 떨군듯
 총각이 혼자서 착암기를 돌린듯
 따스한 말 웃는 못
 저기 강물우에 떠오르는 둥근달
 사랑스런 얼굴들에 금빛을 뿌리네

걸음걸음 즐겁네
 기슭에 가득한 물소리 노래갈네
 그래서 그래서
 바람 두고 발과 두고 목소리 높였다가도
 함께 걷고싶은 길이라네
 아름답네 향기롭네
 석탄을 캐는 보람이
 조국에 바치는 로동이

청춘의 가슴에 맺어준 그 사랑
그들은 래일도 이 강반을 걸으리

아직은 모르네 두 심장

로동의 희열 안고 왜 함께 걷는지
다만 이 강반에 솟고솟은 달만은 아네
만바람이 사랑이 되는줄!
여문 발파소리 사랑을 꽃피우는줄!

내 석탄을 쥐면

어느때건
내 석탄을 손에 쥐면
떠오르리 오로지 탄밖에 모르는
저 탄부들의 얼굴이

강가에서 모래 푸듯
그렇게 쉽게는 얻을수 없겠지만
올리굴 가파로운 한끝에
발파구멍 뚫으며
땀에 번쩍이는 저 모습

못잊어라, 한동발 더!
삶의 의의가 그 한동발에 다 있듯
교대전 짧은 시간을 부여잡고
탄벽을 허물어내며 불이 일던 가슴들
불꽃이 튀기던 그 눈동자들

탄을 탄으로 안다면
탄에 것처럼 낮이 불타라
탄을 탄으로 안다면
거울인듯 석탄에
가슴속 마음이 다 비끼라

량심의 보화더라, 더 캐야 할 석탄을 두고는
종일토록 땀흘린 막장에서

스스로 목표를 높이 내세울줄 아는,
진심의 응결체여라 한줌 흘린 석탄에
그처럼 엄한 매를 드는,

얼마나 아릅답던가
번쩍이며 흘러가는 석탄을
고이 비껴담은 운전공처녀의 그 눈동자는
유정하더라, 꼬리 긴 탄차를 앞세우고
사갱을 오르며 갱장이 부르던
그 절절한 노래소리는

아, 석탄
너는 조국과 주고받는
탄부들의 가장 열렬한 말!
너는 어머니당앞에 고이는
탄부들의 가장 효성스런 마음!

귀중하리라
뜨거우리라
석탄, 내 언제 어디서나 너를 쥐면
못잊을 그 목소리, 그 노래소리
잊지 못할 탄부들의 그 얼굴
언제나 뜨겁게 추억하리
-령대탄광에서-

봄의 자국소리

김광춘

봄은 오네
저기 앞내가 보ית한 해버들개지에

양지바른 뒤산 잔디밭에도 파릇이
해빛에 금실대는 저 아지랑이에도 실려

먼산의 흰눈을 사뿐히 밟고오는 그 자국소리
해묵은 잔디잎을 밟고 내리는 그 자국소리

그 자국소리 들리지 않네
망울로 새싹으로 땅우에 깃을 퍼는 봄의
자국소리는

그러나 지금에는 들려오네
그 자취는 보이지 않아도-

겨우내 땅속에 묻어온 배관따라
모판으로 흘러드는 저 생광스런 물소리

앞내가 실개울은 얼음에 덮여있어도
알알이 풍년씨앗 움티우며 농장벌로 흘러드는
첫 물소리

아, 나도 듣는 그 물소리
풍년을 실어오는 봄의 자국소리

사립문

정현철

알알이 여문 벼이삭들은 다함없는 감사와 송가의 마음에 휩싸인듯 대지를 향해 경건히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김철진은 그 풍요한 벌을 오른쪽에 두고 곧추 뻗어나간, 폭탄자리들이 여기저기에 보이는 방천길로 걸어가고있었다.

가을, 승리한 해의 가을이었다.

파아란 하늘은 거울같이 맑고 눈부신 해빛은 취할듯이 따사로웠다.

빨간 고추잡자리 한마리가 손에 잡힐듯한 눈앞에서 동동거려었다.

철진은 싱그레 웃으며 두손가락을 짝지발모양으로 곧추 펴서 잡자리앞에 살며시 가져다댔다. 그러자 잡자리는 그 손가락끝에 앉을듯말듯 날개를 파르르 떨며 까딱앉고있다가 무엇이 이상한듯, 아니 무엇을 문득 깨달은듯 제풀에 놀라며 포르릉 저만치 날아갔다.

《허허 고 깜찍한것.》

정다왔다.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눈물겹도록 정다왔다.

포연서린 전호속에서, 행군의 실참 쪽잡속에서 그 얼마나 걸어보고 또 걸어본 고향길인가.

저 멀리 다박솔 우거진 산기슭에 오봇이 모여 앉은 고향마을, 그앞으로 감돌아흐르는 맑은 시내물, 우물가에 울리는 너인들의 빨래방치소리와 마을의 파수병인듯 소소리높은 두그루 백양나무...

방천쪽에서 왼쪽으로 초간히 떨어져있는 푸른 언덕에서는 아이들이 말뚝에 매놓은 염소와 갈껌질을 하고있었다. 염소는 피하느라고 목에 맨 줄을 팽팽히 당기며 뺑글뺑글 돌아가는데 아이들은 따라잡느라 법석 떠들어댔다.

철진은 문득 자기의 어린시절이 생각났다. 그의 어린시절도 이곳은 장난속에 흘러갔다. 아스랑게 치솟은 백양나무에 기어올라가 까치둥지를 내리워 온 동네를 소란스럽게 했고 저 아이들처럼 염소를 못살게 굴기도 했었다.

한번은 제포래 동무와 함께 산에 매놓은 염소를 풀어내어 온종일 타고다니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도망쳤던 일도 있었다.

그때가 열살이었는지 열한살이었는지?

일찌기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있던 철진은 그날 어스레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해서야 슬며시 마을로 들어섰다.

(밤나무집 할머니 댁에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소문을 냈을거야.)

철진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발뒤축을 들고 키를 솟구어 사립문머머 마당안을 가웃이 넘겨다보

았다.

불이 켜져있지 않은 방은 고즈넉하였다. 뒤뜨락 어디에선지 쓰르륵 쓰르륵 귀뚜라미소리만이 끝없는 고요와 깊은 밤을 불러내고있었다.

(엄만 벌써 자나?)

그는 살그미 사립문을 열고 발뼉발뼉 트락으로 들어섰다.

무릎 뒤에서 인기적소리가 났다. 철진은 흠칫 돌아보았다. 어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서고있었다.

《이녀석아.》

엄한 목소리였다. 철진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런 못된짓을 하고서도 집으로 들어올수 있더냐. 그 집에선 염소 하나를 믿고 애기를 키우는데 온종일 염소를 타고 놀아 풀을 못뜯어먹었으니... 오늘밤엔 애들이 얼마나 보채겠느냐. 얼마나...》

철진은 가슴이 뜨끔했다. 그런줄은 전혀 몰랐던것이다.

《잘못했어요. 엄마 사실은...》

《용서는 그 집에 가서 빌어라. 제 지은 죄는 제가 씻어야지 에미도 대신 못해. 어서.》

어머니는 차그마하게 보자기에 쓴것을 내주었다.

《예?》

이밤중에 여우가 사람을 흘려간다는 그 고개를 넘어 밤나무집으로 가란 말인가?

《래일... 아침에...》

《아니다. 지금 당장 가져라. 용서를 받지 못하면 아예... 집으로 들어올 생각을 말아!》

《엄마!》

그는 눈물어린 목소리로 애원했다.

《어서!》

어머니는 조금도 인정사정이 없었다.

남의 엄마들은 아버지가 때리면 치마폭으로 감싸막아주군한다는데 우리 엄만... 철진은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핵 돌파서 사립문을 뛰쳐나왔다.

산속길은 무서웠다. 몹시도 무서웠다. 여우의 울음소리가 앞에서 이번에는 바로 옆에서 위협하듯 들려왔다. 와스스-검은 숲이 설레었다. 저앞에 시꺼먼건 혹시 승냥이가 웅크리고 숨어있는것이 아닐까? 철진은 등골로 소름이 쭉 줄달음쳐갔다. 불현듯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핵 돌아보았다. 저 멀리서 희속한것이 피곳거리며 따라 오는듯싶었다. 철진은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혼비백산하여 앞으로 내달렸다.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종주먹을 부르친채 달리고 또 달리었다. 밤나무집마당앞에까지 와서야 숨을 할씩이며 멈춰섰다. 더운 땀이 얼굴로 줄줄이 흘러내리고있

었다.

《아니 이밤중에 네가 웬일이냐?》

할머니는 어마지무 그의 손을 덥석 잡아쥐었다.

《저... 아까는... 아까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왜선지 그는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아이구, 그래서 왔단 말이나? 이밤중에... 원, 세상에... 네 에미두 참 무서운 사람이구나. 고운자식 매로 키운다지만 이렇게까지... 용서구 뭐구 할게 있나. 장난을 한결 가지구. 장난을... 현대 이건 뭐냐? 아이구, 이건 암가루로구나. 혹시 네 아버지 제사때 쓰려고 모아뒀던걸...? 참, 샘물이 맑아 강들도 맑다더니 용타용아...》

그는 누가 용타는 소린지 알수 없게 혼자소리처럼 자꾸자꾸 중얼거리는것이였다.

(보라. 할머니도 별창게 생각하는걸 가지고 엄만 팬히...)

철진은 자고가라고 손을 잡는 할머니가 제 어머니이기라도 한듯 반발적으로 뿌리치고 돌아섰다. 그러나 고개길이 점점 가까이 보이자 조충조충 망설이다가 저도 모르게 서버렸다. 이제 또 어떻게 넘어가나.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쳤다.

그는 무중 고개길위에 웬 사람이 서있는것을 보았다. 머리칼이 쭈뼛 곤두섰다. 발이 땅에 얼어붙은듯하여 도망칠수도 없었다.

이때 《애야.》하고 부르는 정다운 목소리가 어둠속을 헤가르며 달아왔다.

철진은 그자리에 폴짝 주저앉아 영영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니는 허둥지둥 달려와 철진을 일으켜 가슴에 꼭 껴안았다. ...

이윽하여 철진은 입술에 뜨거운것이 닿는것을 느끼며 손을 들어 받았다. 구운 고구마였다. 구수하고 감미로운 그 향기에 철진은 대번에 취하며 한입 뭉칭 떼어물고는 몇번 씹지도 않고 꿀딱 꿀딱 삼켰다. 가슴한복판으로 뜨거운것이 찌르르 내려가는것이 알리면서 온몸이 파스히 녹아드는 것이였다.

《목메겠다.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어머니의 목소리를 꿈속에서처럼 들으며 철진은 그만 잠들어버렸다. ...

《야, 인민군대아저씨다!》

염소를 가지고 놀던 아이들이 철진을 향해 달음박질쳐오고있었다.

아이들은 철진이 앞에 와서 코가 땅에 닿도록 굽석굽석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철진을 이리기웃 저리기웃 열심히 뜯어본다.

《허, 이너석들 뭘 그리 보느냐?》

《아저씨 군대나요?》

견장없는 차림새가 별난모양이였다.

《그래 군대다.》

《미국놈 많이 잡았나요?》

《그럼.》

《어느만큼 잡았나요?》

《이만큼!》

철진은 열손가락을 다 펼쳐보였다.

《야, 썬구나!》

《영웅이다야! 훈장 좀 보라마. 데저!》

철진은 싱그레 웃으며 무릎을 굽혀앉아 노끈으로 바지를 죄여입은 아이의 머리를 애뜻이 쓸어주었다.

《허, 이너석. 코물이 떨어져 발잔등 깨졌구나. 자, 이 수건으로 씻자.》

《아프네!》

그 애는 제코가 아프다고 골살을 찌프리며 도리질을 했다. 그리고는 철진의 모자를 벗기여 제 머리에 척 올려놓았다. 모자는 아이의 작은 머리에 푹덩 빠지며 눈까지 가리웠다.

《해해해.》

아이들은 저마다 모자를 써보겠다고 손을 뻗었다.

《이너석들아, 모자가 다 찢어지겠구나. 허허.》

아이들은 또 저마끔 철진의 옆에 가까이 서겠다고 밀치락거리면서 걸었다.

《아저씨 우리 마을에 오나요?》

《그래. 나도... 가만, 그런데 넌 종만이 조카가 아니냐? 그러구 너는 우물집 둘째 손자구. 허, 정말 몰라보게 컸는걸.》

《해해 아저씨 나 아나요? 난 모르겠는데?...》

머리가 수팍수팍 같은 애가 별같은 눈을 삼박거리며 당돌하게 물었다.

《허허. 이너석, 물에 빠진걸 꺼내준 사람도 몰라보다니...》

《정말이나요?》

그것은 사실이였다.

마을앞으로 흐르는 시내물의 돌다리를 건너다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서너살났던 이 애를 철진은 옷을 입은채로 뛰어들어가 건져주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갈아입을 옷으로 양털내의를 꺼내주었다. 장군님 주신 땅에서 첫해 농사를 잘 지어 사온 양으로 털을 깎고 실을 뽑아 어머니가 밤새도록 뜯것이였다.

《참, 어머니두. 지금이 어느때라구...》

《철없는 소리. 계절이 바뀔 때 물맞은 몸은 감기들리기 쉽단다.》

어머니는 철진의 팔을 붙잡아 골며 말했다.

《아, 그래두 이젠 열다섯살 대장분데...》

그러면서도 그는 어린애처럼 내의를 입혀주는 어머니에게 몸을 맡겨두는것이였다.

《참, 어머니. 래일은 시내물에 돌다리를 다시 놔야겠어요. 아이들이랑 로인들이 마음대로 건너다닐수 있게 폭이 짧으면서도 든든하게.》

철진은 털내의의 포근함이 가슴속 깊은곳까지

파스히 스며들음을 감각하며 말했다.

《그래, 그러면 좋지. 자, 이쪽 팔… 그런데 같은 값이면 장마철이랑 생각해서 무지개모양으로 허궁 들리게 나무다리를 놓는게 어떠냐?》

《아, 참!… 그게 좋겠군요. 야, 어머니 정말… 어찌면 그렇게…》

《원 너석두…》

어머니는 눈부터 웃었다. 가슴속에 대범히 묻어두려던 기쁨이 어쩔수 없이 새어나오듯 유정한 미소가 초생달모양으로 휘여드는 두눈에 따듯이 떠올랐다. 소리없이 넘쳐나는 고뿌의 물처럼 눈가장자리의 주름살을 타고 온 얼굴로 함뱍 넉트려지는데 그때에야 입술이 방시레 벌어지는 것이었다.

《나무는… 아버지가 지켜낸 뒤산의 소나무를 짝도록 해라.》

철진의 아버지는 왜놈들이 나무를 마구 란벌하러 할 때 마을사람들의 앞장에 서서 막아싸우다가 순사놈들에게 매를 맞고 잘못되었던 것이다. …

아버지가 지켜낸 나무로 아들이 놓은 그 다리가 이제 빨간 단풍잎새들이 바람결에 속살거리는 저 떨기나무숲을 지나 조금만 더 가면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시내물을 건너서면 인차 세그루의 좁복송아나무들이 정겨이 맞아주리라. 설익었을 때부터 따먹기 시작하여 서리맞아 쪼글쪼글한 마지막 알까지 요정내군하던 좁복송아. 아, 그것은 참 얼마나 꿀맛이었던가.

정녕 눈을 감고서도 그 모든것을 생생히 감각하며 한발자국도 헛디딤없이 걸을수 있고 풀 한 포기 조약돌 하나하나에조차 애모쁜 추억들이 속속들이 스며여있는 향토였다.

《아저씨, 이거 잡썬보랴요.》

문득 한 아이가 내여미는것을 보니 검붉은 흙을 깨끗이 씻어내지 못한 고구마였다.

철진은 고구마를 받아들였다.

《이거 정말 크구나. 그런데 너희들 이거 어디서 샀니?》

아이들은 서로 눈을 맞춘채 인차 대답을 못했다. 그러고보니 바지주머니들이 한결같이 볼록하다.

《저기… 속새굴 뽕기밭에서…》

배꼽이 내보이는 애가 머뭇머뭇 대답했다.

《속새굴 뽕기밭? 거기서 이렇게 큰 고구마를 켜단 말이나?》

그 밭은 철진이네 것이었다. 토지분여때 좋은 논 나쁜 밭을 골고루 섞어주었는데 어머니는 병신자식에게 더 애정을 기울이듯 척박한 그 밭을 걸구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전쟁이 일어나 철진의 마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선으로만 가있던 그 날에도 어머니는 퇴비를 날랐다.

《참, 어머니두. 이젠 그 밭을 내버려두자요. 괜히 구실두 못할 밭때문에 해마다 고생할게 있어요.》

철진은 좋은 땅만 가지고도 자기들 두 식구가 충분히 먹고 남을 남알이 나오는데 굳이 멀리 떨어진 고양이 이마뺨만한 비탈밭을 걸구기 위해 벌써 5 년째나 아글타글하는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농사군이 땅을 타밭하고 천시하면 못쓴단다. 그게 어떤 밭이라구. 다 장군님 주신 우리 땅이 아니냐.》

어머니는 땀이 흐른 이마에 차붓이 내리드러운 앞머리카락을 손등으로 쓸어올리며 아들을 타일렸다.

《자, 해지기전에 한번만 더 나르자꾸나. 한치 땅도 놀리지 말아야 전선원호미를 더 많이 마련하지.》

어머니는 감장치마허리에 맨 노끈을 풀었다 다시 더 바싹 죄여매고나서 앞서 걷는 것이었다.

철진은 포성이 쿵쿵 들려오는 전선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는 마지 못하듯 스적스적 어머니를 따라섰다.

(래일은 군사동원부에 가서 끝장을 봐야겠어. 나이가 무슨 상관이라구…)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날 민주선전실에서는 영웅상봉모임이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철진은 저수지특경비에 걸렸다. 반동놈들의 발악적인 책동에 대처하여 순번대로 경비를 조직하여 서는데 철진은 밤 12 시까지 서고 다음교대가 아침까지 서게 된 것이었다.

철진은 나무총을 어깨에 걸쳐 메고 우등불을 피워놓은 저수지특우를 왔다갔다하면서도 마음은 민주선전실에 가있었다.

(어떻게 싸워서 영웅이 됐을까?)

그는 저 멀리 가물가물보이는 선전실 불빛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가만히 귀를 기울이었다.

(가볼까?)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솟아올랐다.

(얼른 갔다오면… 그래 더두말구 딱 10 분만 듣고오자.)

철진은 돌아섰다. 성큼 밭을 내짚으려는 순간(아니 그러다 혹시) 하는 다른 생각이 담백처럼 앞을 막아서는 것이었다.

(그 사이에 반동놈들이 달려들면… 안돼.)

그는 저쪽 밤나무에 매달려있는 비상종을 바라보며 우등불쪽으로 다시 돌아섰다.

(헛, 딱 오늘 경비에 걸릴건 뭐람.)

그는 활활 타오르는 나무가치 하나를 톡 건어찼다. 확 하고 무수한 불꽃이 캄캄한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그것들은 어서 오라고 유혹하듯 새물새물 미소짓는 아득한 높이의 별을 향하여 까불거리며 다투어 달아올라가다가는 어둠속으로 꿈처럼 아수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철진은 찬란한 별무리를 바라보며 느닷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불현듯 민주선전실쪽에서 웃음소리가 고요한 밤공기를 헤가르며 들려왔다. 철진은 눈길을 돌려 선전실불빛을 바라보았다.

(통쾌한 이야기인 모양이지. 얼마나 재미날까? 까짓거 가볼까?)

또다시 이런 생각이 철진의 마음속에 막아나섰던 담장너머로 빠르게 고개를 쳐드는 것이었다.

(아무렴 지금까지 별일 없던 일이 몇 분 사이에 생길까? 그래 제껴 갔다오자.)

그는 나무총을 벗어 밤나무에 기대어놓았다.

(흥, 이따위 나무총이나 메고서야...)

그는 며칠전 군사동원부에 찾아갔을 때 아직 나이가 어리다면서 저수지근무를 잘 서는 것도 미국놈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하던 부장의 말이 떠올라 피식 웃어버렸다. 그리고는 누가 보지 않는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사방을 살펴보았다. 고요했다. 이따금씩 습기를 머금은 저수지바람이 귀뿌리를 간지럽히며 감작될 뿐이었다. 하늘에선 초생달이 수심어린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달이 한뼘쯤 기울면 돌아오자.)

그는 선전실을 향해 달려가다가는 뒤를 돌아다보곤 하였다. 저수지쪽우에서 우등불이 외로이 타고있을 뿐 그윽한 골짜기는 고즈넉하였다.

민주선전실은 사람들로 꽉 차서 문가에도 어깨성을 쌓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데 정신이 팔려 누구도 뒤를 돌아다보지 않았다. 철진은 사람들의 뒤에 조용히 다가섰다.

《이때 부관인듯한 장교 한놈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그는 대번에 취하고 말았다.

(저 영웅은 경찰병인 모양이지. 나도 군대에 나가면 꼭 경찰병이 돼야겠어.)

그는 제스스로의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경경 개짓는 소리에 철진은 펄쩍 정신이 들었다. 달은 어느새 두뿔가랑 기울어져 있었다.

(아차 벌써 저렇게...)

철진은 저수지를 향해 부리나케 뛰여가기 시작했다.

문득 앞에서 《땡!》 하고 종소리가 울리었다.

철진은 와들 놀라며 우뚝 멈춰섰다.

분명 저수지쪽에서 울리는, 사고가 났다고 알리는 비상종소리였다.

(무슨 일인가? 누가 쳤을까?)

무서운 예감이 칼날처럼 가슴을 뚫 찔렀다. 그는 허둥지둥 달려갔다.

저수지쪽우에는 스러진 우등불의 불씨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있고 종말에는 웬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누굴까?)

철진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한순간 흠칫 멈춰섰다가 다시 어푸러질듯 달려가 그 사람을 외락 둘러안았다. 근무를 인계받아야 할 덕보아저씨였

다.

《아저씨, 아저씨!》

철진은 그를 마구 흔들며 부르짖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자 그는 가파스로 눈을 떴다.

《으흠! - 오... 철 ... 진이나...》

아픔에 짓눌린 맥락에 닿지 않는 목소리가 토막 토막 끊기며 입술사이로 새어나왔다.

《반동놈들이... 저수지를 폭파하려다가... 도망을... 넌 어딜...》

그리고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아저씨!》

철진은 눈앞이 캄캄했다. 손이 끈적거렸다. 무망중에 손을 들어보니 붉은 피가 달빛에 눈을 찔렀다. 흑! 팔국질이 튀어나왔다.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그는 뒤미처 마을사람들이 달려와 부상자를 응급처치하고 반동놈들을 추격하여 어둠속을 달려간 뒤에도 얼없이 그자리에 굳어져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는 울고난 뒤처럼 흐흐 느끼며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정처없이 걸었다.

검은 구름이 어디론가 무섭게 밀려가고 있었다.

쪽배같은 달은 풍랑사나운 바다 한가운데서 갈팡 질팡 외로이 헤매는 듯싶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여기가 어디인가?)

그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모를 곳이다. 가만, 속새풀이 아닌가. 그러니 저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가야지.

그는 길을 잃고 밤새도록 헤매서야 겨우 마을 앞에 이르렀다. 가슴은 점차 진정되면서 제 정신이 드는 것이었다. 그러자 몇 시간전에 있었던 일들이 모두 꿈만 같았다.

(그래 그건 사실일수 없어.)

그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걸음걸음 검질기게 따라오는 공포를 떨구어버리며 애쓰며 생각했다.

(정말 내가 지금 꿈을 꾸고있는 것이야.)

그는 그러기를 그 무슨 소원처럼 바라면서도 확인해보려는 듯 가벼이 머리를 흔들며 보았다.

그러나 가슴속 아픔도 머리속에 인찍혀진 붉은 피도 그냥 남아있는 것이었다. 그는 잊을 수도 지워버릴 수도 없는 그 무서운 사실앞에 다시 한번 몸서리를 쳤다. 이제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는 귀죽은듯한 마을의 맨앞에 자리잡은 자기 집을 바라보다가 눈을 흘렸다.

저건 누군가? 사립문앞에 초연히 서있는 녀인은 어머니, 분명 어머니가 아닌가. 지금껏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러나 다음순간 누가 벌써 어머니에게 알려준 게로구나 하는 생각이 총알처럼 가슴속을 꿰뚫고 지나갔다.

그는 저도 모르게 《어머니!》 하고 불렀다. 어머니는 그 부름의 충격에 흠뻑 몸을 떠는 듯 하였다. 《애야.》 하고 부를듯 입이 벌어진 듯. 그러나 어머니는 마주 걸어오지도 않고 철진을 바라보고만 있을뿐이었다.

철진은 숨이 막히는 듯했다. 달빛에 비치인 어머니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이슬에 젖은 머리는 번들거렸고 가름한 얼굴은 달처럼 창백했다. 그 옥한 눈동자는 절망과 안타까움으로 캄캄한 밤처럼 어두워지는 듯싶더니 그 무슨 희망으로 다시 확 밝아지는 것 같기도 하였다. 하많은 뜻과 하염없는 생각으로 끝없이 깊어보이는 눈이었다.

《넌... 어딜 갔었느냐?》

《...》

《네가 실마, 그럴 줄은...》

어머니는 가슴속 사랑이며 슬픔이며를 다 토로 해버린 듯, 그래서 더 말할 힘이 없는 듯 흐느끼는 눈을 감는다. 그렇게 굳어진 듯 오래도록 까딱 않고 서있던 어머니의 가슴이 문득 세차게 부풀어 올랐다가 꺼지듯 내려앉으며 눈이 떠졌다.

《온밤 그렇게 서있기만 하겠느냐. 들어오너라.》

《...》

《...》

어머니는 초연히 아래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철진은 사립문을 열고 선뜻 따라들어갈 수 없었다.

어느때처럼 별생각없이 사립문을 열 수 없었다.

그것은 철진이 자신이 쓰리로 엮은 것이었다. 하루에도 수십번 스스로 없이 여닫던 문이었다.

저녁이면 어머니가 밥을 먹자고 이 문안으로 따듯이 불러들이었다. 어디 갔다 조금만 늦게 와도 어머니는 바로 이 문앞에서 기다리다가 《철진 이냐?!》 하고 기쁨에 젖은 목소리로 반겨맞아주었다. 비오나 눈이 오나 철진이가 들어와야 닫기 곤 하던 정다운 요람의 문이었으며 어머니 사랑의 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을 흔연히 열 수 없었다.

아! 철진은 숨을 크게 들이켜 텅 빈 듯한 가슴에 찬공기를 채우며 머리를 들었다. 캄캄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현듯 어린시절에 여우가 나온다는 고개로 넘어보내던 어머니가 생각났다.

아들을 질책하던 그 목소리는 공중에 매달려 흔들리는 종소리처럼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어둡속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 가서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인가? 빌어서 되는 일이라면, 용서를 받을 곳이 있다면 높은 고개가 열이라도 넘어가련만... 아, 어머니!

그는 어머니가 추호도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있는 이 순간에조차 그 이름을 부르며 삼작문지며 방안을 바라보았다.

발그레한 창호지문에는 한쪽 무릎을 세워짚고 바느질을 하고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비껴져있었다.

어머니는 팔을 들어 실을 뽑다가 문득 그치고 한숨을 내쉬는지 구슬피 어깨를 떨군다. 그리고는 하염없는 생각을 좇는 듯 꼼작 않고 그린 듯이 앉아있었다.

아, 얼마나 생각이 많으시면, 얼마나 괴로우시면 아닌 밤중에 저렇게 바느질을 하시는 걸가. 한 뜸 또 한 뜸 가슴아픈 생각을 께메시다가 바늘에 손끝이 찔리워 피방울이 맺혔을지도 몰라!

그는 당장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무릎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고싶었다.

《어머니, 절 용서해주세요. 예,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을...》

그러면 혹시 이 아들의 잔등을 애투이 쓸어만 지며 눈물겨이 속삭일지 어이 알랴.

《됐다됐어. 모르고 그랬는걸. 모르고...》

그랬으면,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가. 아니 그렇게 해서 씻을 수 있는 잘못이라면... 아, 어머니. 난 이제 어쩌면 좋아요. 예, 어머니!

자식의 마음속 애절한 목소리, 피타는 그 부르짖음을 들은 듯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선다. 그리고는 바깥동정에 귀를 기울이듯, 밖에서 애달피 떨고있을 아들을 생각하는 듯 까딱 않고 서있었다.

그래, 어머니는 어린시절의 그 밤에도 높은 고개로 따라왔었지. 그때처럼, 그 밤처럼 어머니 문 열어주려 나올거야. 이제, 이제... 아니 다섯을 셀 사이에... 하나 둘... 셋...

철진은 그 어떤 기적에 대한 어렴풋하고도 절망적인 희망으로 몸을 떨며 저도모르는 사이에 사립문을 잡았다.

그러나 철진은 힘없이 손을 내리우며 처연히 고개를 떨구었다. 허리치는 사립문은 여전히 닫겨있었다.

그것은 결려있지 않은 문이었다.

그러나 그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다!

그러자 사립문은 끝없이 높아보이고 트락하나 사이에 둔 어머니와 자기의 거리가 아득히 멀어보이는 것이었다.

찬바람이 획 불어쳤다. 대추알같은 비방울이 마지 못한 듯 후드득 땅우에 떨어져내렸다. 토방 밑에 기여들어간 강아지가 추운지 아니면 달콤한 잠에서 깨어난 때문인지 더 깊은 요람을 파며 따스한 잠내가 풍기는 소리로 꿈꾸거린다. 부엌쪽 어느 구석에선지 귀뚜라미 한마리가 목선 소리로 그 무슨 애달픈 사연을 하소하듯 처량히 울고있었다.

철진은 따뜻한 아래목이 못견디게 그리웠다. 이 사립문을 열고 들어서면 사랑하는 어머니의 뜨거운 품이 있건만...

그는 행복과 불행이 뜨락하나 사이에 두고있는 줄 미처 몰랐다.

《어머니 나 배고프네.》하고 언제나처럼 부뚜막 우에 걸터앉으며 스스럼없이 말할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이 문밖에서나마 날이 새도록 어머니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수 있다 해도 얼마나 크나한 행복일것인가.

그는 눈에 익고 손때가 올라 보통날에 것처럼 범상스레 대해오던것들이 이렇게 애듯해지고 소중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웅대한것으로 여기며 누려오던 그 모든것들이 커다란 기쁨이였고 행복이었다는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는것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그 귀중한 모든것이 감히 손대지 못할 신성의것처럼 아득한 높이로 멀어진것이 아닌가.

언제면, 그 언제면 이 문은 내 눈앞에 활짝 열려질것인가? 아, 어머니!...

마침내 그렇게도 소중했던 모든것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였다. 방천뜰에서 송아지가 한가로이 꼬리를 휘저으며 가담가담 풀을 뜯는것이며 좁복숭아 가지끝에 앉아 콩지를 출썩이면서 유정히 우짖는 까치머가 선명히 보이는것이였다.

총각아이 하나가 소잔등우에 앉아 제멋에 거위 노래부르며 **마을뒤산에서** 내려오고있었다.

《...공세우라 하신 말씀 명심하여 싸웠네...》
황소도 흥에 겨운듯 《음허-》하고 제 목청껏 뽀아댔다.

철진은 마을의 맨앞에 자리잡은 자기집을 바라보았다.

지붕우에 널어말리우는 빨간 고추가 해빛에 반짝이며 불처럼 타오르는듯하였다. 맵고도 향기로운 고추내가 코를 찌르며 풍겨오는듯싶었다. 수건으로 입을 싸맨 어머니의 모습과 더불어 쿵쿵 절구 찧는 소리도 금시 들려올것만 같았다.

이제 어머니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아, 얼마나 늙으셨을가?!

《애들아, 저 집에...》

그는 자기의 목소리가 떨리고있음을 깨닫고 잠시 가슴을 진정시켰다.

《어머니가 계시더냐?》

《예.》

《아까도 왔어요.》

아이들은 대답하는 기쁨을 독차지하려는듯 거품내기로 떠들어댔다.

《아, 그래!》

철진은 숨이 차올랐다.

《그런데 그 집 형님은 영웅이래요.》

《신문에두 났대요, 대문짝만하게!》

《아저씨 그 집 형님이냐요?》

《!...》

행복감은 철진의 가슴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 막걸리처럼 온몸으로 속속들이 흘러퍼져 취하게 만드는것이였다. ...

불현듯 사립문밖에서 빙빙 돌아가던 그밤이 썰 무렵에 진격하는 인민군대의 한 부대를 무작정 따라나서던 일이 생각났다.

마을쪽에서 밤과 새벽의 분기점을 아뢰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힘차게 울리였다. 속절없이 걸던 철진은 멈춰서서 무엇을 기대하는듯한 눈길로 희읍스름히 새벽빛에 휩싸인 마을을 돌아보았다. 고요했다. 그 고요는 차거운 이슬비처럼 철진의 마음속으로 호젓이 스며드는것이였다.

어디선가 토닥토닥 가벼우면서도 재빠르게 축축히 젖은 땅을 밟는 소리가 들리는듯싶더니 점점 분명해지며 가까와지는것이였다.

문득 저 앞에서 이마뺨에 흰점이 박힌 중강아지 한마리가 쏜살같이 달려오고있는것이 보였다.

《아, 얼룩아!》하고 웨치며 철진은 마주 달려갔다. 강아지는 앞발을 쳐들고 짹짹 뛰어올라 철진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려 애썼다. 철진은 무릎을 굽혀앉으며 강아지를 끌어안았다.

《네가... 네가 어떻게...?!》

애듯이 쓸어주며 허공을 향해 쳐든 그의 두눈에서는 애무의 정이 따뜻이 피어오르다가는 꺼지고 다시 처연한 빛발이 서글피 타올랐다. 그러던 그의 눈에 무중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이 확 피어났다.

저 멀리 동구길 정자나무아래 초연히 서있는 너인은 누군가?! 안개같은 보유히스름한 새벽빛에 아슴프레 보이는 너인은!...

《어머니!》

철진은 목메어 부르며 벌떡 일어섰다.

밤새도록 불이 커졌다 꺼졌다하기를 그 몇번이었던가. 아마도 어머니 밖에서 떨고있을 자식의 숨결소리를 온 넋으로 듣고있었으리라. 그러다가 멀어져가는 발자국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문을 차고 따라나왔을거야. 아, 어머니.

어머니를 향해 달려가려던 철진은 가벼이 머리를 흔들었다.

나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가?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있는것인가? ...

그래, 깨끗한 마음으로 어머니앞에 서야 해.

철진은 뒤를 돌아다보았다. 인민군부대의 대렬이 차차 멀어져 산굽이를 돌아서고있었다. 그우에 푸르스름한 하늘에서는 새벽별이 유난히도 반짝이고있었다.

철진은 결연히 돌아섰다. 강아지는 그 무슨 들놀이에라도 따라나서듯 꼬리를 들까불고 졸랑거리면서 제먼저 앞서가는것이였다.

《얼룩아, 가라. 집으로 돌아가.》

그러자 강아지는 시무룩히 뒤에 서서 철진을 멀뚱멀뚱 바라보는것이였다.

《너라도 가서 외로이 계실... 울겨울에는 뽀

나무 한가치 없는데…》

문득 뽀얀 물보라속에 어머니도 강아지도 멀어져보이는것이였다.

《용서하세요. 어머니! 그러나 꼭 원썬을 이기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는 저 멀리 하염없이 서있는 어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

그렇게 고향을 떠나온 그였기에 그는 진한 땀도 고귀한 피도 아끼지 않았다. 불뽕는 적의 화구를 향해 주저없이 달려올라갔고 적참호속으로 제일 먼저 뛰어들기도 했다. 그런 전투뒤끝이면 그의 입대전 생활을 잘 아는 중대장이 은근히 권고하는것이였다.

《이제는 고향에 편지를 보내지.》

《아니 전 아직…》

철진의 가슴속에는 《사랑하는 어머니 보세요》하고 써놓고 보내지 못한 수십통의 편지가 간직되어있었다.

그는 남들이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전호의 한쪽 구석에 앉아 고향을 그려보며 입속으로 조용히 노래를 부르곤하였다.

내 나서 자라난 정다운 집은
박꽃이 하얗게 피는 초가집
어머님 물레소리 들창에 울릴제
뒤동산 접동새도 아, 울었지

어느덧 그의 눈앞에는 아들을 기다리며 화로에 푼돌장을 덥히느라고 하얀 재를 들썩던 어머니의 머리가 떠오른다. 인기척을 듣고 삐딱문밖으로 뛰어나오는 어머니의 머리에서 밤사이에 늙어버린 그 《흰서리》를 발견하고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던가. 이제는 어머니 속을 태우지 않고 저녁이면 꼭꼭 일찍 들어올테야…

그래, 난 그때 그렇게 마음다졌었지.

뜨락의 봉선화 꽃잎질적에
내 동무 손잡고 먼길 떠났지
못잊어 다시보던 다박술 푸르른 길
눈에 삼삼 안겨오네, 아 내 고향…

애국미를 선참으로 바친 그밤, 누른빛 초가지붕우의 하얀 박이 이리딩굴 저리딩굴면서 **뒤산**에 내려앉아 싱글병글 웃고있는 마음무뎀한 보름달과 속삭이던 그밤은 얼마나 좋았던가.

《참 어머니 저것들이 모두 흥부네 박같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어머니 무엇을 소원할래요?》

《어머니 소원은 너무나 많구나.》

《그래 두 꼭 한가지만 대랴요. 제일 중요한걸.》

《그건… 네가 장군님 세워주신 나라의 어엿한 아들로 굳세게 자라는거다. 그런데 넌 무엇을 제일 소원하냐?》

《난 어머니를 오래오래 잘 모실래요.》

《원 녀석두…》…

(아. 어머니, 어머니는 지금 무얼 하시나요?)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그는 나서자란 고향산천 앞에서, 고향사람들앞에서 떼뻗지 못한 마음으로 떠나온 괴로움, 가장 소중한것을 잃은 상실의 아픔에 몸부림쳤다. 하면서도 그가 맹세코 다짐한것은 기어이 그것을 되찾고야말 일념이었으니 필요하다면 목숨 그것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각오에 충만되어있었다.

새꿈새꿈하면서도 향기로운 고향의 줍줍송아맛을 그가 어찌 한순간인들 잊을수 있었겠는가!

그리하여 마침내 고향마을은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것이였다.

이것은 꿈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꿈속을 가듯 걸어가고있었다.

철진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넘칠듯 고여올랐다. 해빛을 받아 찬연히 빛나는 그 무지개빛 눈물 너머로 빨간 고추를 머리에 인 고향집이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있었다. 사립문은 활짝 열려져있었다!

그러자 기쁨같기도 하고 아픔같기도 한 열광적인 감정이 폭풍같이 그를 휩쓸었다. 돌입하는 적땅크를 맞받아 맹렬히 기여가던 그 피어린 나날들이 홀연 떠올랐다가 어느덧 사라지고 지난날 행복했던 어린시절의 나날들이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모습과 더불어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것이였다. 그것은 다시 찬란한 빛발속에 빛나는 사립문으로 뒤바뀌어진다.

철진은 눈길을 떼면 또다시 닫겨버릴것만 같은 듯 애오라지 그 사립문만을 바라보며 걸었다.

저 문은 언제부터 열려져있었을것인가?

아마도 영웅된 이 아들의 소식이 신문에 났을 때부터이리라. 그때부터 천리밖에 있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 아들을 기다려 저 문은 낮이나 밤이나 활짝 열려져있었을것이다!…

《야, 야, 아저씨 운다야?…》

《왜 울가?》

《그것두 몰라. 엄마 빨리 보고파 울지 머.》

《아저씨, 우리가 뛰어가서 엄마를 찾겠어요. 큰 엄마!-》

아이들은 사립문을 향하여 잉그르르 달려갔다.

철진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주춤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부엌문이 펄쩍 열리더니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흰옷 입은 어머니가 허둥지둥 밖으로 나오고있었다.

해묵은 찌리로 결은 사립문은 열려있었다. …

영웅의 인간상

전창걸

옛날에는 영웅이 되려면 그 외모부터가 범상치 않고 탄 사람들과 구별되는 뛰어나고 천품적인 기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람찬 체구, 청동의 투구아래 수북한 흰 장미, 천군만마를 질겁케 하는 호령소리 못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뛰어난 기질과 지략... 이것이 착취 계급사회가 규정해놓은 이른바 《영웅호걸》의 상징화되고 초인화된 영웅의 인간상이었다.

얼마전에 나는 북부철길청년돌격대의 한 청년 영웅을 만난 일이 있다.

인제 겨우 스물다섯이나 났을가?

한사코 숙이고싶지 않은듯 총총히 일어선 머리 카락, 코언저리에 넓게 뿌려진 팔알같은 주근깨, 아직도 소년기의 흔적이 력연히 어려있는 애젊은 청년이었다.

돌격대처녀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자기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한다는 정령이 발표되자 한길이나 쟁충 뛰며 믿지 않았다고 했다.

그날도 그는 아직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듯 자꾸만 주먹을 쥐었다 폈다하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난 처음에 누가 이름을 삭갈린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썄 우리 려단에만도 영철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섯이나 되니까요.

기자동지도 알겠지만 영웅이란 칭호가 어떤 칭호입니까. 그런데 내가 글썄 영웅이 되다니. 그제 어디 될법이나 한 일입니까. 난 그저 정신나간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한채 멍하니 서있기만 했지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전에 다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만 자꾸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황없이 려단정치부로 달려가니 글썄 려단정치위원동지가 막 성을 내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영웅이 뭐 하늘에서 내려온 별난 사람인줄 알아. 바로 동무같은 노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우리 수령님께서 아끼시며 자랑하시는 우리 시

대의 영웅이란 말이요.

엑끼 못난 사람 같으니, 어디 가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오.)

그 말을 들으니 어째서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내가 입술을 떨며 밖으로 나오니 문밖에 서있던 한마을에서 온 명심이가 두손으로 얼굴을 싸고 울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동문 바보야요. 엉터리 고집쟁이.〉

〈젠장 동문 왜 여기까지 따라와서 야단이야.〉

기빠서 우는 고향처녀에게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게 다였습니다.

그밤엔 왜 그렇게 별들이 많던지... 마치 장난꾸러기소녀애가 은구슬, 금구슬을 한웅큼 쥐어뿌린듯 했습니다.

기자동지 이게 답니다.》

만일 그가 내게 진지하고 정색한 어조로 자기의 위훈담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그날저녁 내 가슴이 그렇듯 깊은 사색에 젖지 못했을것이다.

너무나도 소박하고 평범하며 가식이 없는 인간미, 심장의 마지막 밑바닥에서 좁처럼 내배어나오는듯한 그 진정이 나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것이다.

노동자, 농민의 아들딸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세상!

력사는 우리 시대 영웅의 금별메달을 그 어떤 제왕의 왕관이나 명장의 갑옷과 장점보다도 더 귀중히 추억하고 자랑할것이며 우리 행성의 가장 귀중한 재부로 천세만세를 두고 빛내일것이다.

나는 다시금 생각한다.

자주시대의 산아로 세기의 하늘가에 뚜렷이 나타난 우리 시대 영웅의 인간상-그것은 다름아닌 우리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빛내여주시는 주체의 우리 조국에서 사는 우리 인민모두의 모습이며 이 위대한 인간상은 세월의 눈과 비에도 닳고 퇴색하지 않을 영원한 인간상이라고...

눈이 녹지 않는 땅우에서

주종선

첫눈이 내린다.

햇숨같은 눈송이들이 내 어깨우에도, 팔애의 흰 머리수건에도 춤추듯, 어리광치듯 날아내리며 덧쌓인다.

우리는 바빠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 섞여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있다.

청신한 대기, 내리는 흰눈... 마음 상쾌하고 생 각 또한 깊어지는 출근길이다.

하물며 전문학교를 마친 딸애가 공장전력감독 원으로 배치되어 이 아버지와 함께 오늘 첫 출근 을 하게 되었음이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이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세대에 맡겨진 중대한 사명을 깊이 자각 하도록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후손들에게 더 훌륭한 생활을 물려주기 위하여, 공산주의의 휘 황한 앞날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 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레사롭지 않은 날, 이런 날 이런 때면 항용 그러하듯 오늘 역시 저 멀리 아득히 홀려간 그 시절의 추억들이 한겹, 두겹 망각의 너울을 벗으며 눈앞에 떠오른다.

평범한 나날에 있었던 일들, 범상히 스쳐보냈 던 그 모든 가지가지의 사연들이 날이 갈수록 새 라새로운 의미로 이 가슴속에 되새겨지는것은 무 엇때문일가?

하많은 사연들중 귀밑머리 희여져가는 오늘에 도 때없이 되살아나 거대한 진폭으로 내 심장의 문을 두드리군하는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아마도 그것은 내가 공장에 배치받든지 보름 남짓이 지난 때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산골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던 나는 며칠 출 근하는 사이에 대화화공업기지의 어마어마한 위 용에 반해버리고 말았다.

산악같이 치솟은 지붕마다에서 타래치는 흰김, 밤이면 불을 토하는 굴뚝들...

애젊은 가슴은 무한한 욕망과 의욕으로 한껏 부풀었다. 하여 나는 공장구내에 자리잡은 직류 발전기실에서 열심히 귀로 듣고 눈여겨 살펴보며 기계들에 정통하려 애썼고 어느새 단독근무까지 서게 되었다. 그러면서 마음속 한구석으로는 출 장떠난 아버지가 돌아와 그사이 벌써 견습과정은

마친 아들을 대견스레 여겨보게 될 그 시각이 은근히 기다려지기도 했다.

아버지가 돌아온것은 바로 그날저녁 내가 교대 인제준비로 한창 바쁜 때였다.

발전기실에 들어선 아버지는 내가 애초에 상상 했던것보다 더욱 흡족해하시는지 같았다.

일을 처음 배우는 우리또래들에게 의례히 하군 하는 그러한 혼시를 몇마디 하고난 아버지는 밖 으로 향하다가 문득 출입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 다. 그러더니 나를 손짓해 불렀다.

《너 이게 무슨 소리냐? 저 천정우에서 나는 소리말이다!》

《?...》

나는 의아해져서 귀를 강구었다. 그러나 중형 발전기들의 웅글은 동음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다.

《안들리냐? 저 소리가...》

《저 회파람소리같은게 네 밝은 귀에도 안들린 단 말이냐?》

그제야 나는 옷층 어디선가 간간이 들려오는 가느다란 잡음을 겨우 분간해들었다.

《들리지!》

《네, 들려요!》

나의 목소리는 무슨 큰 발견이라도 한 때처럼 한성에 가까웠다.

아버지는 주름살이 깊은 얼굴을 찌프리고 나를 내려다봤다.

《저 소리가 난게 언제부터였냐?》

《침 들어요 난... 큰 기계들이 온통 웅웅거리는 소리뿐인데저 모기소리만한걸 어디 가려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아버지는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가려들을줄 알아야 한다. 큰걸 다루 는 사람일수록말이다. 너희들은 무엇이든 다 마 련된 다음에 일을 배우니까 그것들이 모두 어떻 게 생긴건지 그걸 몰라.》

그날밤 아버지는 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큰 공장의 지배인이라 늘 있는 일이였지만 이날 만은 아버지가 못건디게 기다려졌다. 그리고 낮 에 아버지가 하던 그 말이 왜서인지 자꾸만 귀전 을 맴돌며 괴롭히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나는 종 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였고 얼마후에 는 다시 공장 발전기실의 문앞에 서서 귀를 기울

이게 되었다.

그 소리-《회파람소리》는 아까보다 한결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런데 아버지는? ... 아버지는 왜 그리도 서운해했을가? 그 말속에는 분명 나에 대한 질책과 나무람이 섞여있지 않았던가!

웃춤에서는 여전히 새된 소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무엇인가 절절히 속삭이기도 하고 안타까이 하소하기도 했다. 어느덧 그 소리는 아츠러운 공명을 일으키며 나의 온몸에 육박해왔다.

아! 저 소리는? ... 저것은?!...

나는 그제야 자기 할바를 깨닫고 공구들을 찾아 들고 2층으로 치달아올랐다.

거기서 나는 온몸이 땀에 젖어 증기발브와 씨름하고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눈발이 펄펄 날리는 공장구내의 한끝에서 다른 한끝까지 걸어갔다.

드넓은 구내는 온통 흰눈천지였다.

그 희디흰 구내길 한복판에 한가닥 거무스름한 띠가 경계선처럼 길게 누워있었다. 그것은 공장에서 유일하게 눈이 덮이지 않은 땅이었다. 그 땅밑에서는 커다란 증기관이 숨쉬며 표면에 내려쌓이는 눈을 녹이고있었다. 우리는 바로 그 땅우에서 밟아섰다.

《발이 뜨겁구나.》

아버지의 말이였다.

나도 역시 발이 서서히 더워오는것처럼 느껴졌다. 증기관이 땅밑으로 지나갔으니 그 부근의 눈이 녹을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울봄에 온 공장이 달라붙어 증기관을 땅속에 묻고 보온공사를 다시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눈이 녹는 땅우에 서있구나.》

《이 정도의 열랑비야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니니까.》

《어쩔수 없다니?!...》

《...》

《...언젠가 넌 어머니가 프락에 흘린 쌀 몇알을 줏는걸 보고 웃더구나. 모든걸 죄다 꺾어보지 못하고 다 마련된 땅에서 사니 웃을수밖에. 그건 네가 오늘 큰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만 듣고 증기새는 소리를 스쳐들은것과 같은거야.

너희 후대들 대에 가선... 그땐 우리 조국이 또 얼마나 몰라보게 변모되겠니, 그때 애들은 아마 자기 할아버지들이 전쟁때 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수류탄을 깎았다면 잘 믿지 않을게다. 그러면서 모든게 풍족하다고 웬만한건 랑비로 생각지 않고 망탕 소비하려들지나 않겠는지... 난 이게 안타깝구나.》

눈은 밋을줄 모르고 하염없이 내리고 또 내린다. 내려서는 자리잡을 새도 없이 점점이 녹아버렸다. 그 땅을 밟고선 발처럼 내 가슴도 뜨거워올랐다.

돌이켜보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철의 기둥을 일떠세우던 그 시절, 전화의 재더미속에서 털어내던 한장한장의 벽돌이, 한대두대 세여가며 아껴쓰던 용접봉들이 우리의 부모들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참으로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 주체의 강국을 만천하에 떨치는 오늘의 조국을 보았기때문이었으리라!

그때로부터 우리는 멀리 달려왔다. 세대도 바뀌었고 또 바뀌고있다. 전후의 그날에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세대들이 오늘 자기 부모들에게서 초소를 넘겨받고있다.

나의 딸도 그렇게 자라나 혁명초소에 서게 되지 않았는가.

그 애들이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자기들이 누리며 자랐고 지금 향유하고있는 모든것- 온 나라에 수풀처럼 일떠선 철의 기둥들이며 불빛 찬란한 극장과 배움의 교정이, 지어 자기들이 입고 쓰고사는 그 모든것이 전후의 엄혹한 그 시절 1 만톤의 강재를 위해 우리 수령님께서 강선의 솟눈길을 헤치셔야 했던 바로 그 길에서 재더미를 헤치고 로를 쌓는 우리 부모들이 구워내던 그 한장한장의 벽돌장들에서 시작되었음을, 아니 그보다 썩 이전 저 려명이 불타던 백두광야에서 위대한 수령님 따라 일떠선 항일혁명선렬들이 꽃다운 청춘과 바뀌야 했던 그 한자루의 총에서 시작되었음을...

...눈은 계속 내리고있다.

나는 딸애와 함께 공장구내길 한끝-눈이 녹아 내리던 땅우에 서있다. 눈은 이제는 녹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발목까지 눈속에 파묻고 선채 두줄기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진 희디흰 눈벌을 바라본다. 나는 거기서 내 딸이, 그 애들의 세대들이 이제 가야 할 길을 더듬어본다.

딸애는 거기에서 자기 부모들이 걸어온 그 길을 부디 돌아보기를 바란다.

오. 새 세대여! 잊지 말아다오.

세월이 흐를수록, 행복이 커갈수록 차례지는...

그 모든것이 어디서 마련되었는가를... 그것을 자각하게 될 때 그대들은 우리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항일혁명선렬들과 부모들이 미래를 위해 흘린 피와 땀에 대하여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주리라!

계승자의 참된 의리로...

나의 군복

김기호

내 어릴적
커가는 나이따라
이리저리 몸을 재어보며
어머니 해입히던 그 옷도 아니고

내 자랄적
바뀌는 철따라
색갈무늬 골라가며
학교에서 타입던 그 교복도 아니건만

어이하어
하나의 푸른 색깔
정해진 호수따라
내 입은 군복
이리도 몸에 잘 어울리는것일가

조국땅 산과 들
어디에나 척 누우면
군복이 숲갈고
숲이 군복갈아
새들도 멋모르고 내려앉아라

그 빛갈
사시절 푸르려
이 가슴 언제나
젊음에 차넘치게 하는 군복

그 빛갈
조국과 인연 깊어
이 마음 어디서나
보위자의 자각을 불태워주는 군복

그때문인가
미루나무 설레이던
정든 고향길 떠나던 그날
웃고 떠들며
내 가볍게 받아입은 군복
반백이 되어도 가볍게 벗지 못하는것은

내 어린 날엔
장난질에 푹어진 못
내 어머니 나무람 없이
맑은 물에 행구어
깨끗이 빨아줄수 있었다만

병사시절 오늘엔
물색푸른 군복자락
순간이나마 수치로 넓게 한다면
어머니조국앞에
한생을 두고도 씻지 못하리니

눈비에 젖은들 어퍼리
땀과 피에 얼룩져도 좋아라
가시철조망에 찢기고
총포탄에 뚫린대도
실밥하나 수치로는 더럽히지 않으리

아, 나의 군복!
입었으니
렬사탑의 전사처럼
청동의 옷자락이 될 때까지 입으리
때가 되어 벗는다면
리수복영웅의 군복처럼
조국의 기억속에 남게끔 벗어놓으리

생활속에서

리찬영

멀고먼 산촌이여도
오붓한 동네
진료소장으로 배치된 날
울렁이는 가슴 진정 못해
전등불 낮추 곁고 시를 썼노라

생명과 건강을 지키
몸과 마음 다하리라

등넘어 배나무집에서
끝지나 풍산집에서
손주손녀네들을 받아낸 날

그들의 고고성소리에
기쁨 넘쳐 쓴것이 한편의 시가 되고

정다운 산촌에
더해지는 기쁨은
병없는 마을에
행복의 송가로 힘있게 울려했노라

이렇게 20년 30년
내 귀밑머리에도 흰것이 하나들
받아낸 아이들이 자라
탁아소 유치원을 이루고

어느덧 중학생 대학생이 되었거니

아래마을 샘골집 맏손자
군대복무 잘하고 돌아왔노라고
거수경례 힘차게 할 때
포전에 농장원들 노래 흥겨울 때
그것이 더없는 표창이어서

세상에 직업은 많아도
사람마다 건강을 주고
웃는 얼굴마다 시대의 감격을
아 뜨거이 안겨주는 일
내 하는 일 긍지높았노라

마을에 커가는 행복과 함께
한편 또 한편 시도 자랐노라
신문과 방송에

생활의 보람이 서정으로 나래칠 때
좋은 일이라고 현실속의 작가라고
시인의 영광도 안겨주었나니

바라보는 앞길에
생활은 행복의 문을 활짝 열었어라
내 사는 이 땅이 더 행복하라고
내 사는 조국이 더 문명하라고
청진기와 함께 붓을 더 높이 드노라

한생을 다해
열정을 다해 살리라
생활이여
기쁨이여
언제나 언제나 나래쳐오는
삶의 행복이여!

어머니의 기쁨

김옥심

아쉬워했어요
이 막내마저 딸이라고
어릴적 사랑스런 내 재롱 다 받아주면서도
누구보다 이쁘게 꽃리봉 달아주면서도

한해 두해 해는 바뀌어도
내 마음속엔 항시 맺혀있었어요
어머니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은
팔만 가진 그 아쉬움 가셔주지 못하는것이

그래서였어요
아직은 연약하던 어깨우에
돌격대 배낭메고 떠나던 그날
모자안에 단발머리 정차게 빗어올리고
어머니앞에 보란듯 생긋 웃던것이

내 입술을 깨물며 그날에 하던 생각
언제면 그 언제면
어머니의 그 서운함 덜어줄수 있을가

낮이나 밤이나 심장은 불타올랐어요
돌격대 붉은 기폭아래 엄숙히 선서하고
벽찬 건설에 뛰어든던 나날
용접불보라에조차 가슴 조이던 이 딸이
인제는 키높은 기증기 타고
건설의 숲을 누벼가요
그때마다 어머니 생각 없지 않았어요

언제였던가
눈보라 기승치는 한 겨울날도
육중한 기증기 걸싸게 몰아가며

척척 조국의 새 모습 그려낼 때면
바쳐가는 내 진정 어서 어서 완공의 날 부르고파
새워도 또 지새고싶던 열정의 그 순간 순간들이

끊어번지는 건설장의 온 시선에 받들려
집채같은 동체 아슬한 합성탑우에 떠돌거울 때
시뚝하던 연공총각들 꽃송이 안겨주며 선망의 눈
길 보냈고

기쁨속에 만사람들 이 작은 몸 에워싸며
평양에서 온 기자들앞에
누구보다 먼저 내 등을 떠밀어줄 때도
마음속엔 다시금 어머니 생각이었어요

아, 나의 어머니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못사나이를 부러워하는 이 딸의 모습을 보며
푸른 하늘가에 방긋이 미소짓는 내 얼굴 보며
샘솟는 기쁨 감추지 못할거라고

이웃 어머니들 아들자랑 신명날제
그리고 부러워했을 나의 어머니
인제는 아들 부럽지 않다고
처녀수리개 우리 딸의 모습 좀 보라고
온 마을 들썩이며 자랑을 해요

그 소박한 어머니의 기쁨앞에서
나는 생각해요
조국을 위해
아들이 할 일 따로 있고
딸이 할 일 따로 없음을...

물을 채우라 외 2편

- 타입공을 대신하여 -

량덕모

첫 타입의 진동기소리 울린 그날부터
몇년 세월 흘러갔느냐
아스라히 다져세운 긴 언제
어서 수문을 닫고
물을 채우라
만수위로 푸른 호수를 펼치라

타입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숨결 하나같이 흘러든
이 미덥고 훌륭한 창조물로
먼먼 래일의 후손들과도
땀땀이 마주 웃을수 있나니

언제벽 그 어디든 짚어보라
휘틀을 땀 때 맛보는 기쁨으로
교대를 이어 넘겨주고 넘겨받은
건설자의 성근한 량심
뜨겁게 맥박쳐오리

무거운 진동기를 드다루며
팔다리 빠근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언제 한번 품은 일 없었다
보이지 않는 언제속이라 하여
힘을 덜 들이고 땀을 아낄 생각

소낙비인들 그 몇번 내리고
눈보라인들 그 얼마나 모질었으랴
허나 몰탈만은 옷을 덮어서라도
적신적 없고
얼군적 없는 우리

혁신자의 꽃다발이며 휴양권은
저마끔 동무에게 양보하여도
보일듯 말듯한 작은 실금 하나 놓고는
호된 비판의 매를 안기던
참다운 우정의 결정체

아, 세월에 씻기고
맑은 물에 씻기워
더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질
우리의 깨끗한 마음
째없이 어깨결고 일어선 청춘언제

어서 물을 채우라
우리의 가슴가득 공지가 차오르게
그 어떤 물살에도 흔들리지 않을
동지와 벼들의 군상으로 이언제를 믿고
조국땅에 새 호수를 펼치라!

내가 만난 영웅

성큼한 키 어글어글한 눈
삼십년 연공일에 어깨 넓어진 작업반장,
언제앞에서 통성하자
어쩐지 낯설지 않는 영웅이여
그대 이야기에 끌릴수록 돋보이는구나

저기 골재를 나르는 줄다리며
힘한 배길 이백리 여울목을 터치고
하나하나 실어나른 대형발전기 변압기...
위엄스런 중량물마다 깃들은
그대의 위훈

모험이라고
공칭능력론 안된다고

누구도 용단내리지 못하는 일들
어떻게 해낼수 있었는가 물으니
조용히 웃으며 하는 대답
내 다시 그대를 쳐다보게 하는구나!

-전기가 곧
나라의 빛이고 열이 아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궁리가 트이고 대담성도 생깁니다

아, 소탈한 그 말에 진정이 어려
구면처럼 친숙해지는 영웅이여!
내 몰랐구나

위험한 고비 아슬아슬한 순간
수없이 넘어온 그대의 마음

언제나 나의 생활 가까이 있을줄

밤새워 시줄을 고르던
창작실 탁상등 불빛속에,
아이들과 같이 즐기던
유희장의 신비스런 전동단추에...
그 마음 닿아있을 줄 생각이나 했던가

내 행복에 겨워 웃을 때
불을 뿜는 화점에 뛰어들듯
건설장의 돌과구름
그대 목숨으로 일어나갈줄

뒤늦게 깨달았음을 용서해달라

달아오른 이 가슴으로
오래오래 포옹하고싶은 담큰 사나이여!
어디간들 내 그대를 잊지 않으리
발전소 언제가 새겨진
조국의 국장을 바라보는 회의장에서
전류로 기쁨을 꽃피우는
일터와 가정의 그 모든곳에서...

아, 천리 먼곳에 떨어져있어도
나뿐이 아닌 만사람곁에 마음 두고
빛과 열을 지켜선 용맹한 영웅,
그대는 조국땅 어느곳 어느 집에도
귀빈의 자격으로 선참 들어설수 있어라!

금야강으로!

좋은 성적으로 한 학년을 마치고
새 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처럼
밝아오는 새해를 앞두고
진정 못하는 젊은이들처럼
누구나 가슴 설레여 말한다
-이제 우리는 금야강으로 갑니다!

타입직장 휴게실에서
언제우에서 가소린차 운전실에서
태일을 그리며 나에게 하는 말
-이제 우리는 금야강으로 갑니다!

금야강! 금야강!
여기서 천리던가 이천리던가
허나 그 세찬 물살은
벌써 이들의 마음 한복판으로
도도히 굽이치거니

선발대는 이미 한해전에 떠나
건설의 대군단이 자리잡을
거창한 터전을 닦는단다
무시로 이사짐을 실은 자동차들
역전으로 줄달음친다

종구나! 줄곧 전진하는
조국의 큰 호흡이 내 가슴에 마쳐온다

신혼살림 꾸린 저 부부들
첫 아이 출생지로 될 금야강반
또 하나 새 발전소를 세워간다는것은
우리 생활에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일인가

금야강으로!
우리 수령님과 지도자동지 가리키신
언제건설의 진격로-
믿음의 크나큰 일감을 생각하며
오늘에 다하지 못한 힘과 지혜
거기에 없으려는 희망의 봉우리
위훈의 새 리정표여!

언젠가는 장자강에서 서두수로
서두수에서 압록강으로...
이렇게 외우며 달음쳐온 그대들
조국의 강줄기마다 찾아가며
새로운 승리를 불러오는 목소리여!

어서 떠나자 건설자들아
금야강으로! 금야강으로!
오, 건설의 음향으로 가득찰
그 물맑은 강반에서
조국의 더 눈부신 빛과 후더운 열
끝없이 끝없이 솟아나리!

한장의 사진을 놓고

정은옥

사진은 대체로 기념, 그리고 추억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바다처럼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의 흔적일 수도 있고 백일홍처럼 오래오래 피어 웃는 우정의 표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장의 사진에서 보다 거창한 시대적 문제를 통감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해결을 기다리는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조국통일과 우리 세대의 사명감을 두고 때없이 가슴을 치는 것이 우리 생활이 아닌가.

저녁에 있는 일이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여섯살 잡힌 딸애가 방에 들어서서 참으로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제포레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붙인다는 것이었다.

사진첩의 빈자리를 찾아 한장 두장 번져가던 딸애가 뽀르르 달려오더니 다우쳐묻는 것이었다.

《엄마, 이건 무슨 사진이냐요? 모두 낯선 사람들뿐이네!》

오동보동한 손끝이 가리키는 사진에 시선을 옮긴 나는 순간에 아연해졌다.

누렇게 색이 바랜 사진속에서 참대숲을 배경으로 다섯의 오랍형제가 부모를 모시고 나란히 웃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의 어릴적 사진이었다.

나의 눈길은 사진에 멎어선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아직은 우리 말도 다 모르는 저 어린 딸애에게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내가 전해들은 그 가슴저민 사연을 또다시 되풀이해야 하는가.

…나의 아버지의 고향은 참대가 많이 나는 동남쪽 해변가였다.

형제 많은 집안에서 배고픔에 늘 서럽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참대밭을 뛰어다니며 자라났

다.

전쟁의 검은 연기가 그 푸른 대숲을 불태웠을 때 마을을 떠나는 의로운 의용군대오속에 아버지도 따라나섰다.

아들을 기다려 언제나 열려져있을 고향어머니들의 그 마음들을 순간도 잊지 말자고 군복주머니에 사진 한장을 간직한채…

그날부터 얼마나 많은 그리움이 이 한장의 사진에 덧쌓여왔는가.

미제원썹들을 물리친 전호가에서 승리하고 돌아 가면 가난이 사무친 내 고향을 본때있게 살찌우리라 남몰래 마음다지며 자주 꺼내보던 사진이었다.

전승의 그날, 조국이 아버지의 가슴에 빛나는 훈장을 달아주었을 때에도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은 고향의 그 동구길을 그려보며 눈물속에 바라본 사진이었다고 한다.

말없는 그 사진과 가슴속 사연을 나누며 10년, 20년… 30년 …

흘러가는 세월속에 사진은 어떻게 색이 바래고 젊은 날의 추억을 불러 안타까이 그려보면 눈에 선한것은 고향을 떠날 때 그 모습들뿐…

밤새워 엮은 대바구니를 팔아 난생처음 사다준 갑사땡기를 드리우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던 외태머리 누이동생이 이제는 여러 자식들을 거느린 어머니로 되였는지도 알수 없다고 한다. …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 딸을 거쳐 또 그 손녀에게 전해지고있다.

말 못하는 새들도 제가고싶은곳으로 자유로이 나는데 뜻이 있고 마음이 있어 그리움에 살고 인정에 사는 한겨레가 분별의 고통으로 가슴을 치며 세대를 넘겨야 하는 가슴아픈 이 현실…

이것이 어찌 우리 가정에만 사무친 이야기라.

팔려간 누이를 찾아 남행렬차에 몸을 실었던

누구네 사랑하는 동생이 원한의 분계선 가시철조 망때문에 영영 돌아오지 못했고 전쟁의 불비속에 모래알처럼 흩어진 형제들이 생사조차 알지 못한채 또 한세대를 넘어서고있다.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갓난아기의 이름을 통일, 통일이라고 지었겠는가.

층층 높은 집에 다섯칸짜리 좋은 방을 꾸려놓고도 한지에서 겨울을 날 남녘의 형제들을 못잊어하는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청명한 날 화첩을 펼치고 천만송이 꽃이 핀 조국의 맑은 하늘을 담아가다가도 주먹을 불끈 쥐고 저 원한의 콩크리트장벽에 메아리치는 철새들의 울부짖음소리를 듣는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조국통일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이다!

그러나 분계선너머 남쪽에 도사린 분렬주의자들은 통일의 앞길에 복잡한 《단계》를 설정하면서 그 전도를 료원시하고있으며 결국 통일이 아니라 분렬을 추구하고있다.

아니다. 통일은 결코 먼 후날의 일이 아니다!...

잠결에도 방실거리는 딸애의 머리맡에서 나는

다시금 사진을 펼쳐들었다.

그러자 고요한 밤의 정적을 밀어버리며 웅심깊은 메아리가 나의 마음속에 들려온다.

다름아닌 우리 세대가, 우리 대에 기어이 안아와야 할 통일의 숙원을 안고 나의 마음은 세차게 고동친다.

날마다 레사로이 걷는 한걸음 한걸음도 조국통일의 일념으로 불태우고 그 자각으로 빛내일 하 나의 생각으로 나의 열정은 나래쳐오른다.

멀지 않아 그날은 올것이다.

미제와 괴뢰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분렬주의적인 《단계론》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위업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줄찬 대일이 설레는 동구길에서 그리움에 타던 마음들을 터치고 목이 메여 얼싸안을 상봉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아, 이밤! 부풀어오르는 마음 안고 숙연히 창가에 서니 진청색 비단폭같은 조국의 맑은 밤하늘에 곱게 여문 별들이 빛을 뿌린다.

머지 않아 아버지의 고향 푸른 대숲을 거닐며 환희로이 바라볼 그 별들이!